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주년 백서



서울 사회적경제
연결의 기록

2013 - 2023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영광의 기

2013 - 2023

세 번째 사회적경제를 시작하면서

사회적경제는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굴하고 혁신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주요 주체로 성장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이루고자 했던 첫 번째 미션은 경제 민주화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독재 시대의 종식과 경제 호황이 정점을 찍었던 황금기이자, 외환 위기로 최악의 경제적 시련을 겪던 시기로 강준만 교수는 이 시기를 ‘이념에서 소비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정치적 민주화는 이루어졌지만 경제적 민주화에 대한 고민이 이 시대의 큰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 사회적경제는 양극화된 삶의 현장에서 실업과 불안정 고용의 노동환경 개선과 취약계층의 자활을 도움으로써 복지국가 시스템을 견인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한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미션은 사회적경제의 시민경제 생태계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2010~2020년대는 디지털 시대의 개막으로 강력한 세계화가 촉진되는 시기였습니다. 세계화로 연결되며 우리 경제는 세계시장에서 선전하였으나, 그 이면의 사회문제는 이전의 방식과는 다른 양상으로 더 빠르게 확산되었고, 팬데믹과 같은 전지구적 문제 또한 순식간에 전파되었습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세계화의 문제를 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습니다. 지역순환경제를 통해 시민의 삶을 치유하고, 사회적 혐오를 상쇄해 나가며 지역사회가 함께 키워나가는 커뮤니티케어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는 시민이 주인이고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인 시민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새로운 비전에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본 백서는 서울의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시민경제 생태계까지 발전하게 된 10년의 과정을 알뜰하게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온 세 번째 사회적경제의 미션은 기후재난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후재난은 시민의 생활과 매우 맞닿아 있는 다가올 미래로 지역적이면서 전지구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 사회적경제는 2020년부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해 왔습니다. 모색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쉽지만, 이는 인류의 생존문제이자 경제문제며, 윤리문제이기도 하여 사회적경제가 가장 긴급하게 다뤄야 하는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이 기후재난을 절박하게 고민하며 사회적경제와 기후시민들이 함께 서울의 사회적경제를 더 단단하게 키워나가기 바랍니다.

그동안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방향과 비전에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이 과정이 연결되어 10년 후 시민이 주도해 온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백서를 다시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주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발전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2009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200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발굴에서부터 시작되어 2013년 사회적경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2019년 시민의 일상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은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서울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해 이웃의 삶을 더 낮게 만드는 일에, 사회문제와 이슈에 대응하며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성이 존중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감하며 소비생활 속에서도 실천하는 일은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UN 총회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결의안에는 사회적경제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적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과,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백서를 통해 살펴본 서울시가 만들어 온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의 과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서울시 곳곳에서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향상에 기여했음과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와 사회를 위한 노력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서가 발간된 2023년, 우리는 향후 10년을 바라보며 지나온 발자취를 통해 모두를 위한 사회적경제가 한 걸음을 내딛기를 바랍니다.

지난 10년은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걸어왔던, 그야말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앞으로의 10년 또한 연대와 협력이 또 다른 새로운 길로 우리를 안내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그 길 위에서, 사회적경제가 사회 곳곳에서 희망으로 자리 잡아 가리라 기대하며,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발전과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오단아, 박미현, 한경아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10주년과 백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2013년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초대 이사장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를 함께 축하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의 사회적경제 부문과 조직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허브로 설립되었습니다. 당시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첫 과제는 사회적경제의 여러 부문을 서로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산의 살처럼 서로 연결하고 지지하며 협력하는 협동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사회적경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변을 넓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 부문 간의 협동을 촉진하고, 서울시 곳곳에서 사회적경제를 만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전반에 사회적경제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0년 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외쳤던 기후 위기와 친환경, 지역에서의 안전한 돌봄, 소외되지 않는 노동, 상생과 협력의 골목 경제 등 사회적 가치 기반의 활동이 이제는 사회·경제 전반에 스며들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서울 사회적경제를 돌아보면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실천이 지금의 사회적경제의 위상과 역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사회적경제는 또 다른 도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위치, 어느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토론하고, 연대하며 계속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 존재 이유와 비전, 목표, 철학적 기반을 공유하며 여러 부문과 협력 및 연대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0년 동안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함께 걷는 한 걸음으로 연결되고 연대하면서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결코 굽아지도, 멈추지도 않는 담대한 도전으로 더 나은 서울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사회적경제를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서울시 사회적경제 10년 백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송경용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1대 이사장

지난 10년의 발걸음을 담아 백서를 제작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이승석입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10년간의 발걸음을 담아 백서를 제작하게 된 것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민선 5기 이후, 서울시는 늘 사회적경제를 선도해왔습니다. 광역 단위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민관 소통과 협력을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의 운영, 지역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혁신 등 사회적경제의 만형으로서 서울시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환경·정치적으로 큰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4년 사회적경제 정부예산은 참담한 수준으로 삭감되었고, 서울시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조직과 예산의 축소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지역·유형 중심의 전국적 연대 체계의 한계점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지역·유형별 중심 체계는 변화의 시기에 효율적 정책 대응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지난 1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변화의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백서 제작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서는 단순한 지난 흔적의 기록이 아니라 새로운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백서의 제작 과정 자체가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지역·유형·업종을 넘어서 사회적경제 전 영역에 커다란 파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영역을 넘어서 전국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사회적경제 내부거래 활성화를 통한 공동행동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중앙정부의 예산삭감에도 적극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그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석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CONTENTS

발간사

02

축사

03

INTRO

좌담

10년 동안 우리가 몰두했던 것

10

종합성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년 주요성과

16

연혁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연혁

22

모두의 경제로
새로운 연결

좌담

새로운 관계맺음 거버넌스

30

도전

서울 사회적경제의 도전

36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39

연결

사회적경제 굿거버넌스, 민관정책협의회

4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41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

43

일하는 사람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46

위키서울(WIKI SEOUL)

52

사회적경제 해외연수 지원

53

기고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교육과정 평가와 향후 방향

54

사회적경제
지역화의 도전

좌담

지역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

60

지역화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68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73

인프라

사회적경제 인적·물적 집적화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74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조성

76

기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로컬비즈니스

80

경계에서
자라다

좌담

사회적경제 경계를 넘어 자라나다

86

기업성장

사회적경제 기업성장 간접지원체계 구축

신규 사업모델 발굴 및 전략사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92

95

98

시장형성

사회적경제 가치소비 활성화

공공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활성화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확대와 역량 강화

100

101

103

기고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목적'과 '균형'에 주목하라

106

자원연계

사회투자기금 조성

서울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

109

110

기고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서 사회투자기금이 갖는 의의

113

일상에서
열매 맺다

좌담

시민, 사회적경제 주체로의 등장

118

시민체감

시민체감형 지역순환경제 구축

126

기고

'시민경제'로의 '사회적경제' 개념의 해체·재구성

132

홍보확산

사회적경제 홍보와 확산

136

연구

사회적경제 연구 사업

서울형 사회가치지표(S-SVI) 개발과 측정

139

141

기고

현장을 연결하는 브릿지, 사회적경제 연구

142

OUTRO

좌담

서울 사회적경제 함께 걸어갈 10년

148

기고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

156

부록

협력 기관

162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목록

166

편집위원회 한마디

167

INTRO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사회적경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람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우위에
두는 따뜻한 경제 활동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 활동을

- 2013-2023
- 2013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300, 서울특별시)
- 2014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지원조직 육성
GSE 창립총회 개최
- 2015 창신승인 사회적경제 허브 (연세대학교) 개소
서울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대우서울 상영대회
- 2016 국제사회적경제협력대회(GSEF) 2016년 총회(가천대학교)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 2017 세운상가 도시재생지 기술지원센터 개소
마포 문화체육관광부 공동육상 생활기술지원센터 개소
- 2018 사회적경제 신년 정책대회
국제사회적경제협력대회(GSEF) 2018년 총회(가천대학교)
- 2019 서울사회적경제 2.0 비전선언식(사회적경제 서울특별위원회)
예르셀로니 - 돈토리를 - 서울도시재생소 중대시행계획 발표
- 2020 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주민참여
공동주택 임대사업 프로젝트 - 사회적경제 거점지원센터 운영사업
서울 사회적경제 전략적 대응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
소상공인-사회적경제 협업을 통한 공익성 실현 프로젝트
- 2021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적거부 금지법 제정
서울형 사회적경제(가치) 5개년 계획
가치소비 콘텐츠 플랫폼 <해변숫자> 오픈
- 2022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해변숫자> 오픈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서울> <서울 사회적경제 플랫폼> 오픈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해변숫자> 오픈

좌담	10년 동안 우리가 몰두했던 것
종합성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년 주요성과
연혁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연혁



10년 동안 우리가 몰두했던 것

일시

2023. 9. 19.(화) 15:00~17:00

참석자

이은애 (사)씨즈 이사장

(1대 센터장, 2013~2019),

조주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2대 센터장, 2019~현재),

이진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식플랫폼실 책임(진행)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2012년 4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발표한 기업 재정 지원 중심 사회적경제 정책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라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앞장섰다. 이러한 서울의 사회적경제 모델은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국제연대의 새로운 물꼬를 띄우는데 주요 역할을 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며 고군분투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노고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2013년 1월, 민관 거버넌스 기관으로 출발해 10주년을 맞이한 센터의 두 수장을 만나 지난 10년간 센터가 몰두한 것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역생태계 구축·양적 확대 등은 성과, 재원다각화·내부자원 연결은 한계

진행 ____ 지난 10년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이끌어 온 1, 2대 센터장님을 한자리에서 뵈니 반갑습니다. 우선 센터 설립 초기를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센터 설립 과정과 초기 서울 사회적경제 지원 기조 및 변화 방향은 어떠했나요?

이은애 ____ 2011년 민선 5기 보궐선거 후 사회적경제인들은 서울에서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중앙정부의 탑-다운 방식을 탈피해 지역생태계를 만들어보자는 큰 비전을 세웠어요. 이를 위해 기업 당사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행정도 함께 생태계 조성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로의 변화와 광역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자치구 네트워크망의 성장을 돕고, 서울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역화 전략을 계획했어요. 그 과정에서 행정과 민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일도 있었어요. 전임 서울시장님은 모델화할 수 있는 자치구 몇 개에 집중 지원하자고 했고, 민간은 사회적경제 방식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했기에 전체 자치구에 골고루 지원해서 평균을 끌어 올리는 전략을 제안했죠. 이러한 시각차가 있었지만 끊임없이 민간과 행정이 사회적경제 현장에 필요한 사업을 논의하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이었어요.

사업적으로는 지역 안에서 사회적경제가 성장하는 주요 요소인 금융, 동·이중 업종 협업과 네트워크, 판로 등을 지원했어요. 우선 은행의 높은 문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을

위해 선도적으로 500억 원을 출연하여 서울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고, 지역 차원에서 활용가능한 자조기금 조성에 힘썼어요. 또한 자치구들과 협력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부터 사회적경제특구사업까지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구매자로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사회적책임조달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으로 확산했어요. 이 외에도 센터 초기에는 생활문제 해결 아이디어 대회를 열어 사업의 저변을 넓혔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 사회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배 기업가들을 연계하는 피어멘토링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진행 ____ 앞서 이야기한 초기 전략 기조와 방향에서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나요?

이은애 ____ 우선 성과를 꼽으라면 첫째,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역화와 커뮤니티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울시가 앞서 사회적경제의 지역화를 과제 및 목표로 삼고 지역의 기초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했던 방향이 옳았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두번째로 거버넌스에 의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은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어요.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 협의회 운영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개발에 대한 공동 정책생산, 공동책임을 실현할 수 있었죠. 당시 다른 영역에서는 '왜 굳이 이렇게 힘든 방식으로 하나'는 의견이 많았어요. 하지만 거버넌스로 인한 성과가 하나둘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에서도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변화되었죠. 무엇보다 지방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는데, 서울시 줄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회적경제 국제연대를 적극적으로 펼친 것도 성과네요. 2013년 센터가 개소하고 서울시가 국제연대를 본격화했을 때 국제사회 내에서 '사회적경제가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제안'에 뼈뚫한 시선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서울시가 의장도시까지 역임하며 사회적경제 국제 네트워크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가 UN 자문단 역할하는 국제협의체로 성장했고, 여러 사회적경제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등 국제사회 안에서 그 역할을 인정받았다고 자부합니다.

전략 방향을 실천함에 있어 아쉬운 점은 사회적경제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자금을 모아 선순환하는 시민 주도의 상호부조형 사회적금융을 추진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또한 초기 우리 안의 자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대규모 소비자품을 확보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소비자데이터를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 후발 기업들의 초기 영업비용을 줄이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전략을 고민했지만 이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죠. 재원의 다각화, 내부 자원의 연결 등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평생 숙제가 아닐까 해요.

12 우리도 처음이라 미숙했죠.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초기에만 해도 서울시는 중앙정부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죠. 자치구도 마찬가지예요. 자치구 차원의 고용·산업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가 성장하기란 어려워요. 그런 한계 속에서 2013년 센터 사업이 시작된 거라 통섭적이지 못한 정책적 한계의 부분을 우리 또한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또한 서울시의 부서 간 칸막이 정책을 보며 행정 혁신 없이는 민관 협

치는 어렵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공급자 중심 생태계에서 시민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진행 _____ 기존에 없던 사례를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 성과도 많았지만 모든 과정을 지나고서야 지금 알게 되는 아쉬운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센터의 여러 지원사업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본격화되고 양적 성장도 이루어졌는데요. 서울시는 2019년 시민주체, 지역기반, 일상체감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 계획'(19~22)'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수요와 현장을 반영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2.0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적경제 1.0에서 2.0으로 도약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이은애 _____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양적 확대로 사회적경제 내부는 성장하고, 생태계 조성을 정책 목표로 시장을 만드는데 주력했지만 우리만의 성과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양·질적 성장에도 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지도와 체감률은 낮았죠. 또한 서울시 정책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늘었지만, 현장 기업 간 협력 속에서 자기 영역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진정성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기업은 초기에 비해 오히려 비중이 낮아졌어요. 그러다보니 시민의 문제를 규모있게 해결하기보다는 각자 생존 중심의 운영이 다수였죠. 생태계 지원보다 개별 기업

을 지원하라는 요청이 중간지원기관에 쏟아졌고, 열심이던 지자체도 일몰제 시행 이후 관심이 많이 식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죠. 사회적경제가 시민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시민들이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초기 진행했던 업종네트워크, 지역네트워크를 미션 중심으로 재조직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었죠. 그 속에서 나온 게 바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2.0 추진계획'이에요.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이라는 주제로 △시민체감형 지역순환 경제 구축, △시민자조기반 형성 지원, △지속가능 생태계 기반 강화, △판로개척 및 시민 인식 제고,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등 5가지 과제를 내세웠죠. 사실 2.0 발표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어요. 3년간 준비했는데 현장의 요구가 너무 다양해서 실태조사 후에도 하나로 모아내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여러 이유로 몇 번 뒤집어지며 만들어진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회적경제 2.0 계획안이죠.

조주연 _____ 사회적경제 2.0 발표가 '2019 서울사회적경제 2.0 비전선포식'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계획을 발표했던 게 기억나요. 서울시가 직접 발표한 게 파격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무엇이 성과이고 한계였는지 명확히 구분 가네요.

진행 _____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돌봄SOS센터와 연계하는 우리동네나눔반장, 주민기술학교 등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들이 사회적경제 2.0에서 시도되었는데요, 서울시의 주요 정책들과도 연계되어 사회적경제가 결합했을 때 정책도 살리고 사회적경제도 성장하는 등 상호 간의 시너지를 높이는 사업들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중점사업들이 채택되었나요?

이은애 _____ 2017년 센터 감사 때 지적받은 게 '센터장 대외활동이 많다'는 거였어요. 당시 도시재생, 사회주택, 다문화 등 다양한 서울시 내 부서들과 매일 만나서 회의했어요. 사회적경제 1.0이 사회적경제의 골격을 갖추는 역할을 했다면, 2.0은 행정부서 간 벽을 허물고 사업적 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민간 영역에서도 미션이 융합·복합되는 실험들이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에 모든 정책에 이런 융합이 가능한지를 탐색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많은 영역의 주체, 행정 부서와 만났어요. 해외사례를 보면 100년 가는 기업은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먹거리, 주택, 돌봄 등 필수생활재 생산 기업들이에요. 붕어빵



쪼듯이 창업 기업 수만 늘린다고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에서 반복 구매가 가능한 주거, 먹거리, 교통, 교육 등 필수 생활재 생산에 사회적경제도 집중해야 해요.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어내고 커뮤니티 순환경제로 가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특히 도시형 마을기업의 모델은 개별적 시도를 넘어 동네에 필요한 생활재를 사회적경제-광역·기초지원조직들이 함께 사회문제 해결형 전략업종으로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봤어요. 그런 고민 속에서 2.0 사업들이 탄생했죠.

팬데믹, 서울시 정책변화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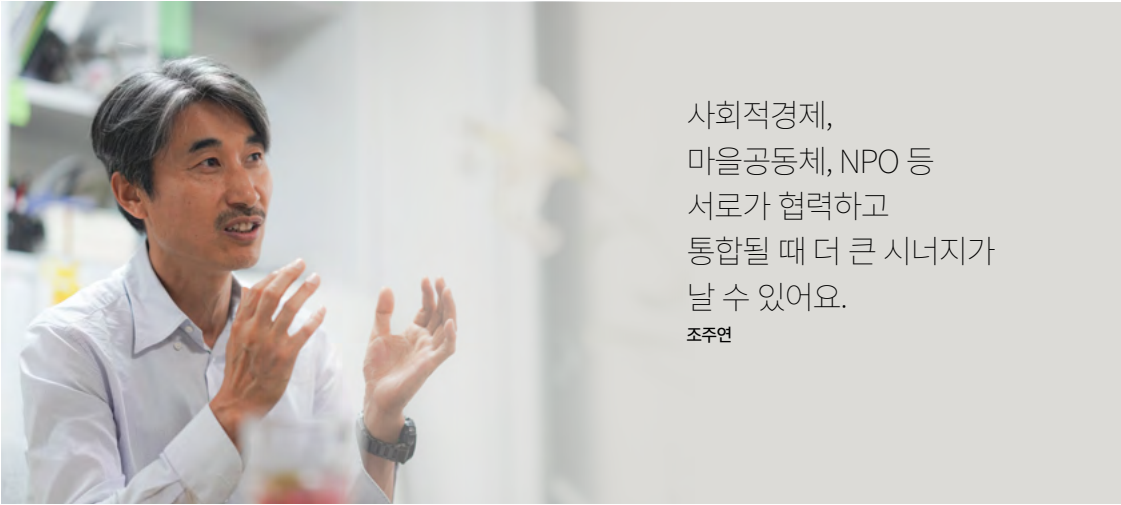
진행 _____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적경제 2.0을 실제 실행해 간 건 2대 센터장인 조주연 센터장님입니다. 시민 체감 향상, 시민의 경제주체로의 등장에 중점을 둔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조주연 _____ 제가 센터장으로 취임한 게 2020년 1월이에요. 서울 사회적경제 2.0 시대에 맞춰 시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과업이었죠. 사회적경제 2.0의 핵심은 바로 '시민 중심'이었어요. 단지 소비자로서의 시민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주체로서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만들어가게 할 것인지 기획이 필요한 단계였죠. 센터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시민과 행정, 현장을 연결하는 허브



지난 10년의 경험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내부를 정비하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이은애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NPO 등
서로가 협력하고
통합될 때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조주연

역할이었고, 실제 2.0 사업을 실행하는 단위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자치구였어요. 지역의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해가는데 있어 자치구 생태계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으로 경험을 갖춘 자치구 단위 중간지원조직들이 주민기술학교, 같이살림 프로젝트와 같은 2.0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해주었어요. 이러한 사업들이 2020~2021년에 신나게 이루어졌죠. 센터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운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생태계 조성에서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했어요.

아쉬운 점은 사회적경제 2.0 초기사업이었던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의 경우 2년차 때 서울시가 직접 실행기관이 되면서 사업이 관료화되었던 점이에요. 실제 사업을 실행하던 현장에서 문제 제기도 많았죠.

진행 _____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을 본격화한 시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컸던 시기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타격이 컸죠. 사업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팬데믹 상황 극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조주연 _____ 팬데믹으로 모든 행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추경 예산이 나와도 코로나-19로 사용이 쉽지 않은데다 사업 기간도 짧아서 실행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팬데믹으로 오히려 가능성을 본 사업도 있어요.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가 그것인데요. 소상공인들이 골목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협력과

연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성화시킴으로서 골목경제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오히려 생활권 근방에서 소비하고, 정주 기간이 길었으니까요. 코로나-19로 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의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사회적경제특구와 자치구 단위의 사회적경제 민민네트워크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참여와 노력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진행 _____ 서울시장이 바뀌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 방향도 급선회하면서 어려움이 컸을 듯합니다.

조주연 _____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이후, 사회적경제담당관실 예산이 절반가량 축소되고 센터 예산이 줄면서 직접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센터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구 예산이 줄어들거나 운영방식이 바뀌는 등의 상황이 발생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관·민민 네트워크로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선보여

진행 _____ 서울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가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지금의 거버넌스를 생각하면, 행정과 민간이 파트너십을 가지며 일했던 시절이 아득하게만 느껴지는데요. 거버넌스에 대해 더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이은애 _____ 박원순 시장을 준비하면서 사회적경제 진영에서는 행정-중간지원조직-현장이 분절되지 않고 합의에 기초한 민주적인 공동생산, 공동운영의 경험을 해보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어요. 2012년 상반기 서울시가 사회적기업과를 만들면서 사회적경제 1.0 발표를 위한 준비 TF가 생겼어요. 그런데 TF에서 최종 정리된 내용을 보니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위주로만 정리가 되었던대고요. ‘민간이 의견을 내면 행정이 최종결정하는 방식은 거버넌스가 아니다’는게 민간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테이블이 수평적으로 운영되던 충남의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에서도 새로운 민관 거버넌스를 실현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 결과 기존 TF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와 민간의 대표를 공동대표로 세우고 민관이 같이 결정하는 합의제로 민관정책협의회가 탄생하죠. 초기에는 시장님은 물론 전체 실·국장이 참석할 만큼 위상이 높았어요. 현장 대표들도 열성적으로 참여했고요. 그렇게 1년간 진행되는 걸 보며, 마을공동체, 청년 등 다른 영역에서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전환하기 시작했죠.

오히려 초기에 힘들었던 건 민민 네트워크였어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각 부문이 정부부처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산적인 논의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3년 정도 지나면서 각 부문의 특성을 알아가며 함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크도 자리를 잡아가났어요.

조주연 _____ 서울 사회적경제의 거버넌스 방식이 다른 지역에도 많이 확산되었죠. 그 중 하나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한계도 명확해요. 당시 저는 센터를 재단 방식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재단으로의 운영 방식이 그나마 외부의 정치적 변화에 부침이 덜하기 때문이죠. 혹 앞으로의 거버넌스나 민관협력을 위해서는 어떤 방향이 필요할까요?

이은애 _____ 저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해 만든 민관 합작식의 제3섹터형 재단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공공 출연재단은 감사 한번 거치면 규제 중심의 관료화의 길, 현장과의 괴리가 커지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변화가 너무 커서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예요. 민간재단으로는 공신력과 정책 영향력이 떨어지고요. 서울시가 이명박 시장 당시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티머니 카드를 민관합작사로 만든 것처럼 사회적경제 영역도 민관합작 재단을 설립해 공동 책임지는 구조를 실험해보았으면 해요.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사회적경제 내 자기반성 통한 혁신 일궈야

진행 _____ 인터뷰를 진행하며 성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과제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10년을 앞두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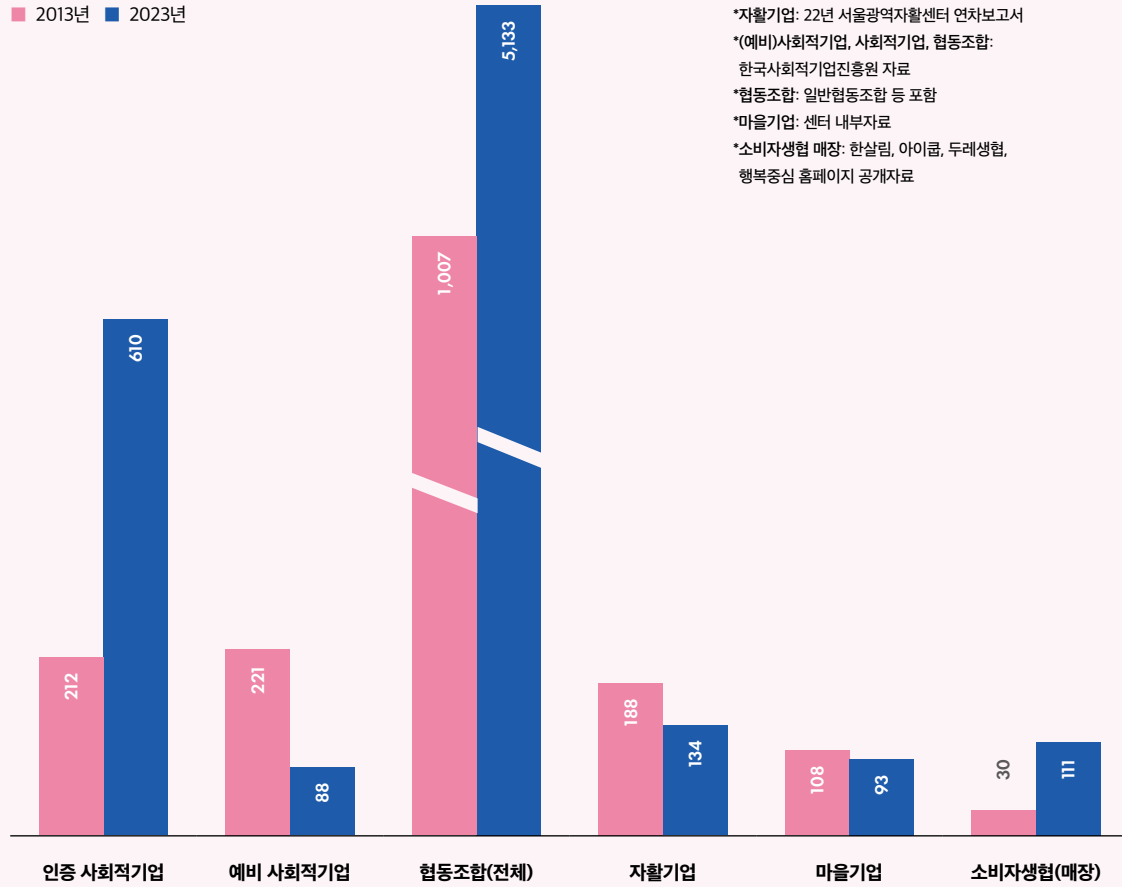
조주연 _____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NPO 등 서로가 협력하고 통합될 때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어요. 쉽지는 않지만 사회적경제를 넘어 다양한 변화의 주체들과 협력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지만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 생각하고 자기 평가와 더불어 같은 영역 간에 모여서 이후 방향을 같이 준비하고 논의해갔으면 합니다.

이은애 _____ 각 영역이 자기 주도권을 유지하려다 보니 협력이 쉽지 않죠. 사회적경제는 실행력이 뛰어나지만 지금보다 더 시민 중심이 되려면 다른 영역과의 협력이 필요해요. 그런 점에서 앞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안에서부터 평가하고 성찰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해요. 각자도생의 시대를 사는 시민들에게 마지막 믿는 구석으로 사회적경제가 인식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까지 연대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합의해 나가야 해요. 지난 10년의 경험을 통해 미래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내어 지금의 위기를 그런 방향성을 설정하고 내부를 정비하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합니다. 또한 그 합의가 곧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최근 사회적경제가 위기라는 얘기가 많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고, 국내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벌였던 서울시 또한 사회적경제 정책의 축소를 알렸다. 물론 큰 위기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시민들의 삶이 파편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 사회적경제가 더 이상 시민들 속에 있지 못하고 호혜의 경제를 주창하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서는 협동과 호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진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기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두 수장의 얘기 속에 그 답이 있다. 각자도생에서 융합의 시대로, 공급자 중심에서 시민 수요자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산조직과 생산·소비·투자운동과의 조화로 변화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안에 서부터 자기 성찰과 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일반현황

■ 2013년 ■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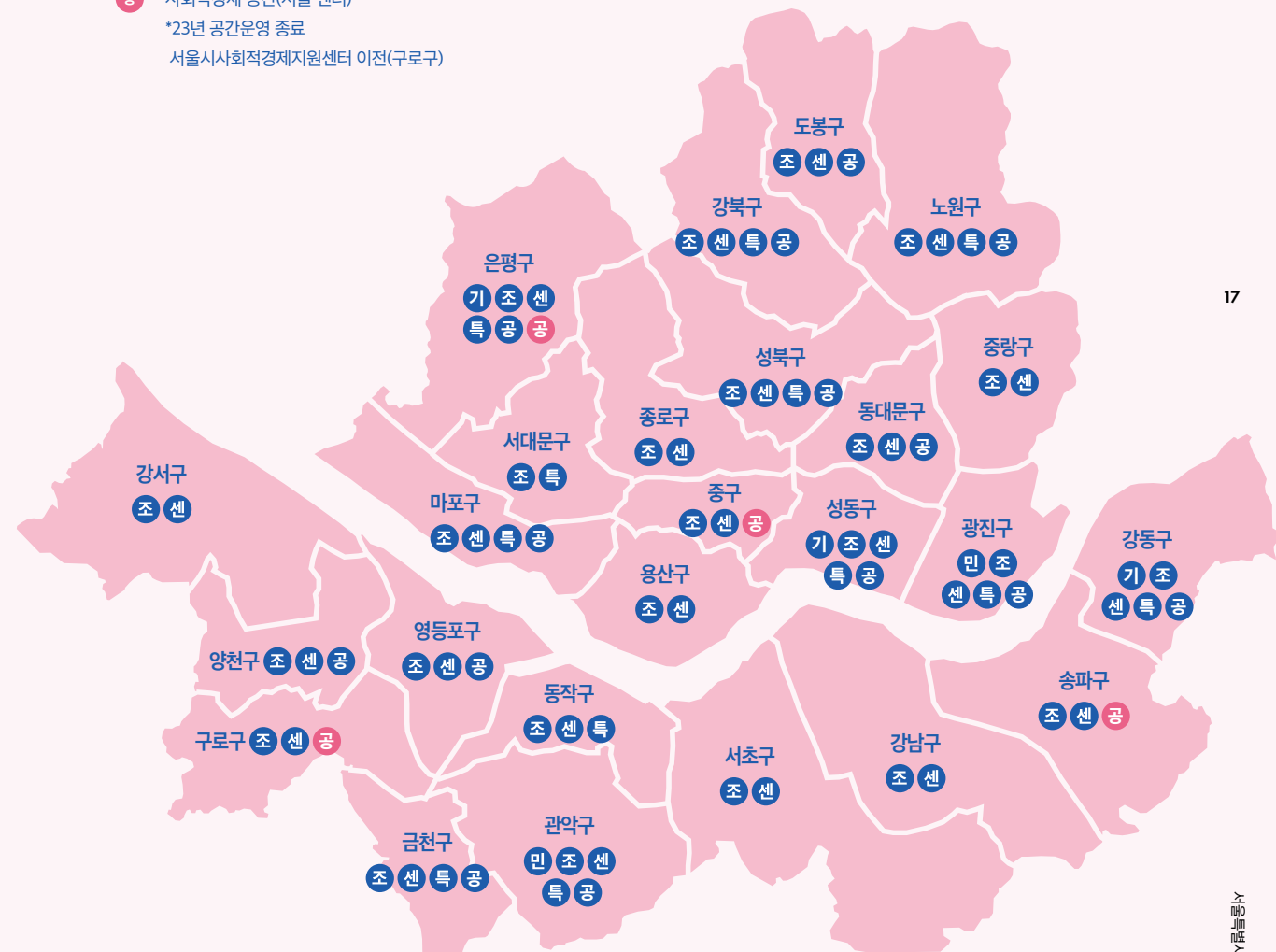
*자활기업: 22년 서울광역자활센터 연차보고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료
 *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등 포함
 *마을기업: 센터 내부자료
 *소비자생협 매장: 한살림, 아이쿱, 두레생협, 행복중심 홈페이지 공개자료



인프라 구축 현황

- 기 자치구 기금
 - 조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 센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특 사회적경제특구(18년종료)
 - 공 사회적경제 공간(자치구 센터)
 - 공 사회적경제 공간(서울 센터)
- *23년 공간운영 종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전(구로구)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2021.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자원조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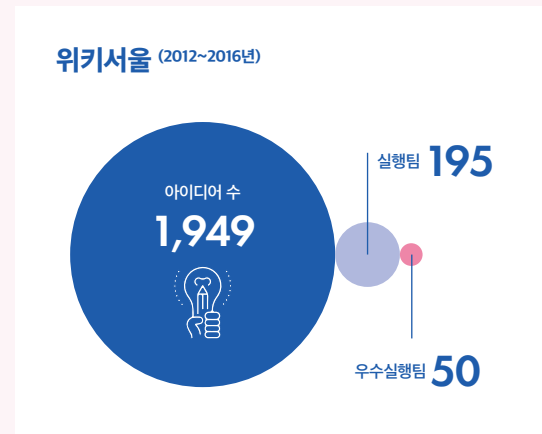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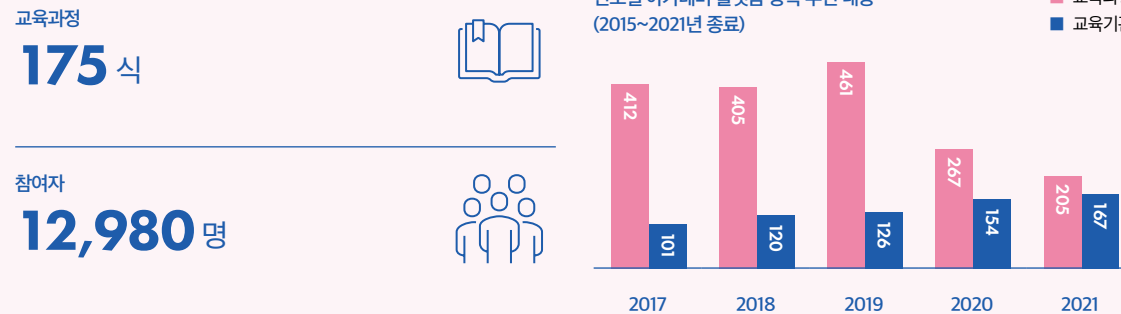
거버넌스 구축

민관정책협의회의 (2013~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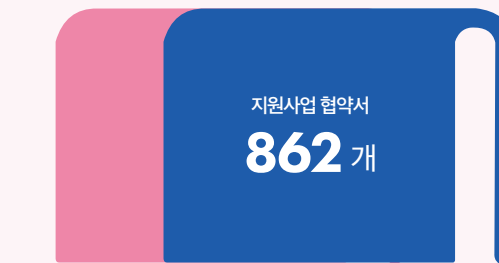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기업 성장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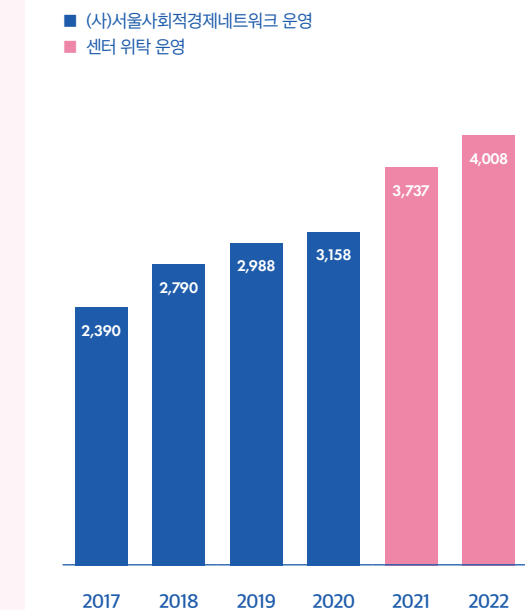
지원사업 참여 (2013~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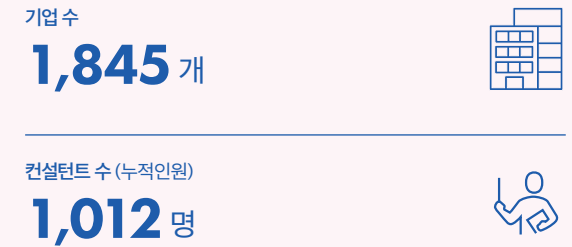
공공시장 확대 (2015~2022년) * 23년 미집계



온라인 쇼핑몰 함께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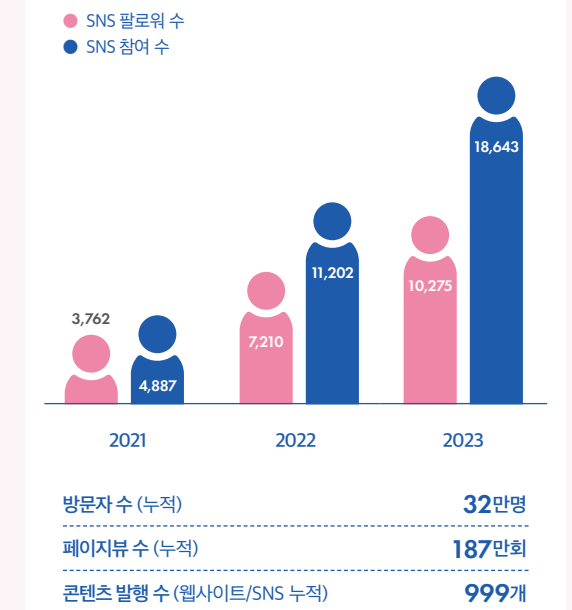
통합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민간시장 활성화 *23.9.30.기준



캐빈닷넷



홍보 확산

sehub.net 월평균 방문자 수



SE:LETTER

발행 수 누적 (2013~2023년)

220건



벤치마킹 기관방문 (2013~2019년)

기관 수 (누적)

307개



누적 구독자 수

11,29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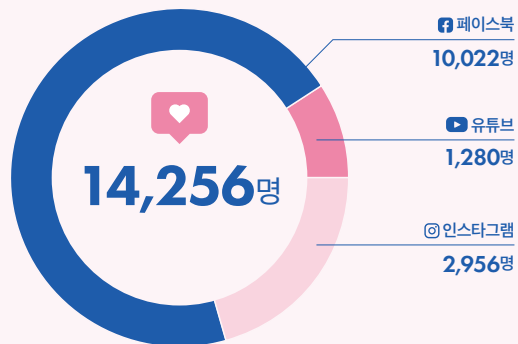


인원 (누적)

5,43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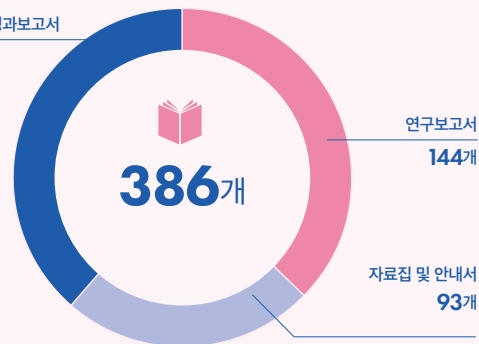


SNS 구독자



센터 제작 발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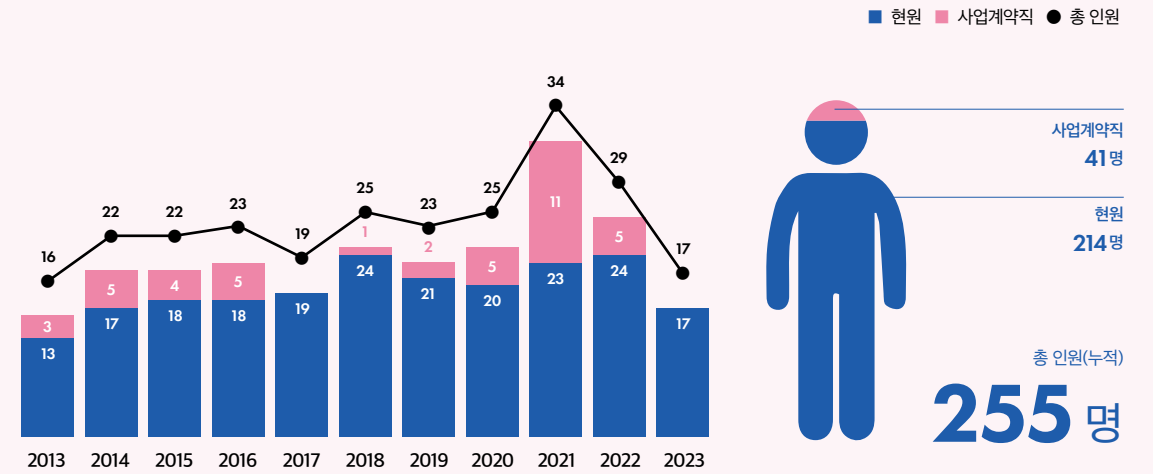
결과 및 성과보고서
149개



중간지원조직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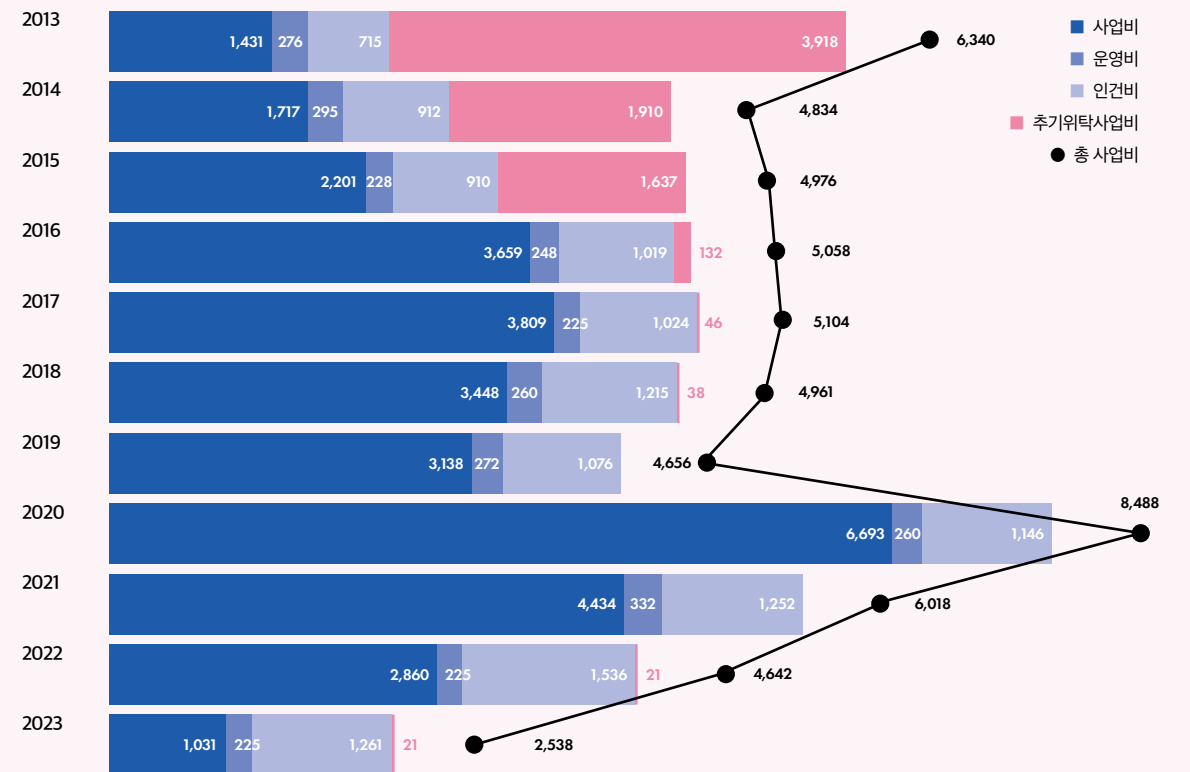
운영인력

* 매년 12월 말 기준



센터 예산

(단위: 백만원)





조직운영

주요 사업 연혁

2013

- 01.~11.
 - 부문·업종 간담회
 - 사회적경제 의제포럼 3회
 - 상호거래활성화 TF
 - 체육/문화업종 협동화사업(상암포럼)
- 01.23.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탁 계약 체결 <서울시-(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대 센터장(이은애) 취임
- 02.~10.
 - 사회적경제 자치구 정책 토론회
- 02.~12.
 -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양성
- 03.~11.
 - 광화문 희망나눔 장터 참여
- 03.~12.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원사업
 - 공공기관 순회박람회 및 상품패키지 '맺음' 개발
 - 공공구매 매뉴얼 개발 및 설명회 운영
- 04.~12.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 06.~12.
 -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경영지원(컨설팅)
- 04.11.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식 (서울혁신파크)
- 06.~12.
 - 자치구 생태계 조성 사업(지역특화사업단) 운영
- 08.~12.
 - 사회적경제 학습동아리 지원
- 11.06.~11.07.
 - 국제사회적경제 포럼(GSEF2013)운영 (서울선언문 발표)
- 12.11.
 - 공유경제 서울, 시민햇빛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 <서울시설관리공단-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13.10.~'14.02.
 - 학교 협동조합 추진단 운영
- '13.11.~'14.02.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창안대회 '위키서울'

2014

- 01.~12.
 - 자치구 생태계 조성 사업(지역특화사업단) 운영
- 03.~12.
 - 사회적경제 부문 및 업종 협동화 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 콜로키움/희망살롱 정기운영 (자율공시, 상호거래, 일본노협초청토론회, 도시농업 등)
- 04.~12.
 - 상호거래추진단 발족 등 상호거래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 정책/기술연수 (영국, 스페인 몬드라곤, 캐나다)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 04.09.
 - 사회적경제 조직 법률지원을 위한 프로보노 업무협약 <사단법인 선>
- 04.16.
 - 서울시 사회적경제 포털 확대 개편 오픈
- 05.14.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
- 05.~11.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 06.~12.
 - 공공구매 영업단 운영(전략 업종 개발, 설명회, 매뉴얼보급 등)
- 06.~12.
 - 월간 '자치와 협동' 연계 사회적경제 기획기사
- 08.~12.
 - 사회적경제 통합 경영 컨설팅 지원(회계, IT, 일상경영상담 등)
- 09.16.
 -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추진단 위촉
- 10.~12.
 - 제2회 머니투데이 사회적경제 기업 CI 공모전
- 11.17.~11.19.
 - 국제사회적경제 포럼(GSEF2014) 및 창립총회 (초대 의장 도시 서울)
- '14.07.~'15.02.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운영

2015

- 01.~12.
 -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지원
- 02.05.
 - 사회적경제기업 회계지원을 위한 프로보노 활동 업무협약 <공익회계사네트워크 맑은>
- 03.17.
 - 몬드라곤 대학 창업지원 교육과정 LEINN 소개 워크숍
- 03.12.
 - 서울시 여성협동조합활성화를 위한 협약 <서울특별시 협동조합상담센터,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 연합 서울권역>
- 03.~12.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영업단 운영
 - 사회적경제 기업 통합 경영 지원 (회계, 법률, IT, 일상경영지원)
- 04.~12.
 - 사회적경제 시민 장터 운영(신촌, 잠실, 아파트 단지 등)
 - 사회적경제 기업 일상 경영 지원 (회계, 법률, IT, 일상경영지원)
 - 장애인 SE 사회적서비스 모델 발굴 및 육성 지원
 - 학교협동조합 설립 및 활성화 지원 (설명회, 예비주체 발굴, 시민홍보 등)
 - 사회적경제 AMP과정 개강(성공회대학교)
- 04.01.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울연구원> 교류협력 업무협약
- 04.29.
 - 서울시 사회적경제 창신송의 협동허브 <한다리증개소> 오픈
- 07.~12.
 - 서울사회적경제 특구 사업 추진 (6개 자치구)
- 08.23.
 - 마을기업 지원 업무 이관
- 08~12.
 -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온라인 지원 플랫폼 구축
- 08.~10
 - 친환경 생태사업 중간관리자 양성교육(건국대학교)
- 09.07.
 - 해외연사(헬레나노르베리호지) 초청 강연
- 09.24.
 - 해외연사(폴카터) 초청 강연
- 09.~11.
 - 동북4구 산관학 연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한신대학교)
- 09.~12.
 - 여성특화형 사회적기업 MBA 교육과정(이화여자대학교)
- 10.01.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협약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광주NGO 시민재단 사회적경제센터>
- 10.~12.
 - 제3회 머니투데이 사회적경제 기업 CI 공모전
- 10.29.~10.30.
 - 서울사회적경제 주간 서울시 사회책임조달 박람회 운영



2016



2017

2018

2019

- 01.~12. •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업단 운영
- 학교협동조합 설립 지원(학생조합원의 날 행사 주관 운영)
- 01.~12. •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설치(창신송의 사회적경제허브, 세운/장위/성수 지역재생리빙랩/ 마포 생활자원기술협업작업장, 기술혁신랩)
- 01.~08. •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원인력 직무역량강화 교육
- 02.~12. • 업종별 사회적경제 신규전략 사업 개발 (장애인, 지역기반, 세운상가, 지역기반 노인통합돌봄)
- 사회적경제 기업 마케팅 지원(바이럴, 온라인, 공동캠페인 등)
- 사회적경제 기업 경영지원 컨설팅(경영, 전략, 법률, 회계 등)
- 03.17.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사)광주광역시협동조합연구소> 상호교류협약
- 03.~11. • 서울시립대 대학 연계 찾아가는 회계·세무 서비스 운영
- 04.~11. •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성공회대학교)
- 05.~11. • 동북4구 산관학 연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한신대학교)
- 사회적경제 심화 교육과정(한양대학교)
- 05.~12.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창안대회 '위키서울'
- 서울시 생협매장 협약 및 입점 운영 '우리동네 협동가게'
- 06.~12. • 핸드메이드페어 사회적경제관, 창동하나로마트 이벤트 매장 입점
- 06.02.~03. • 서울시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 담당공무원 워크숍
- 06.27.~06.30. • 사회적경제주간 공공구매 홍보관 운영
- 07.~10. • 자치구/교육청 찾아가는 공공구매 박람회
- 07.19.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울시립대학교> 상호교류 업무협약
- 08.25.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대화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정치리더와 시민들의 만남>
- 08.~12. • 제4회 머니투데이 사회적경제 기업 CI 공모전
- 09.07.~09.09. • GSEF2016 몬트리올(캐나다) 총회 및 아시아 정책대화 세션 기획 및 운영
- 09.30.~10.02. • 전국마을기업 박람회 체험 부스 참여(세종시)
- 10.21.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호교류 업무협약
- 11.10. • 세운상가 일대 창의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 12.12. • 마을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 12. • 2011-2015년 5개년 성과보고서 제작/배포
- 서울연구원 서울을 바꾸는 정책 단행본 시리즈<사회적경제편>
- 사회적경제 언론인 포럼 연계 사례집 <사회적경제 참 좋다!>

- 01.23. • 2017년 사회적경제 신년회
- 01.~12. • 사회적경제 경영 전략, 사업개발 컨설팅 (회계, 법률 상담 등 포함)
- 공공구매 영업단 운영 및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지원
-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 02.15.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창안대회 '위키서울' 사업종료 성과보고회
- 03.~12. • '기업영업지원단' B2B 영업지원
- 서울시립대학 연계 찾아가는 회계·세무 서비스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 규모화 공동사업 전략사업육성 (마을기반 프랜차이즈, 변화대응 협동비즈니스, 통합돌봄, 특화거리 조성 등)
- 부문별 협동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전문심화교육, 업종/대상별 교육)
- 04.12. •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개소
- 04.~10. • 사회적경제 시민장터 '덕수궁 피크닉'
- 04.~11. • 동북4구 산관학 연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한신대학교)
- 04.~12. • 사회적경제 생협 매장 입점지원 '우리동네 협동가게'
-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과정(성공회대학교)
- 05.01.~05. • 국제핸드메이드페어 사회적경제 기업관 개설
- 05.23.~24. •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추진
- 사회적경제 자치구 중간지원 조직 종사자 교육
- 05.~08. •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공정무역, 여성리더십, 노동, 한일교류 세미나)
- 06.16.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
- 07.~12. • 청소년 사회적경제 주체 양성 교육과정 운영
- 07.24. • 청소년 사회적경제 주체 양성 '해냄'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 10.~12. • 제5회 머니투데이 사회적경제 기업 CI 공모전
- 12.28. •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01.~12. • 컨설팅 및 일상경영지원사업(회계, 법률 등)
-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지원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업단 운영
- 공동작업장 관리(상암소셜박스, 기술혁신랩)
- 02.02. • 사회적경제 신년 정책대화
- 02.~12.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전문심화교육, 업종/대상별 교육)
- 03.16.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 사회적경제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 03.22. • 사회적기업 10주년 공동기획 언론 캠페인(한겨레신문)
- 03.~12. • 창동 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공감마켓장' 입점 지원
- 04.~11. • 사회적경제 콜로키움 (사회적금융, 통합돌봄, 노동, 윤리적패션, 플랫폼 협동주의)
- 04.~12. • 사회적경제 생협 매장 입점 '우리동네 협동가게'
- 전략업종 성장지원 모델개발 (돌봄, 도심제조업, 공제금융, 지역관리 등)
- 07.05.~06.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박람회 운영
- 07.09. • <서울시-(주)우리홈쇼핑-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협약
- 07.~12. • 롯데홈쇼핑 입점 판매지원
- 공동주택 같이살림프로젝트 시범사업 운영
- 09.29.~10.14. • 2018 GSEF(스페인 빌바오) 포럼 참여
- 11.23. •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사회연대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업무 협약
- 11.~12. • 언론 전략 캠페인 (한국일보)
- 12. • 거점채널(JDC면세점) 시범 운영
- 12.17.~12.18. • 해외전문가 초청연수 '대안적 교육/보육 및 장애인 일자리'콜로키움
- 12.19. • 연구성과공유회 '사회적경제 장애인 일자리의 내일'



- 01.18. • <SH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연구원-서울시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재생기업(CrGs) 육성 및 지원 업무제휴
- 01.~12. • 사회적경제 전략모델 사업화 지원 (테크, 도시재생, 프랜차이즈 등)
- 지역재생기업(CRC)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 커뮤니티케어 사회적경제 시범사업 '우리동네 나눔반장'
-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온돌네경제공동체사업' 주민경제공동체 지원
- 도시제조업 협업활성화 추진 '소공인 협업사업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 기업경영 맞춤형 컨설팅 및 일상경영 지원 (컨설팅 및 경영멘토링 등)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영업단 운영
-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지원
-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 02.27.~28.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상담회
- 02.~12. • JDC 제주 면세점 사회적경제 판매장 운영
- 창동하나로마트 중소기업제품전시 판매장 사회적경제 기업 입점 지원
- 생협매장 '우리동네 협동가게' 사회적경제 기업 입점지원
- 소셜상품마켓테, 스마트컨슈머리포트 등 상품경쟁력 강화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업종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 07.19. • <서울시-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협약
- 03.14. • 서울 사회적경제 2.0 비전선포식
- 03.18.~19. • 전문가 초청 강연 '보건의료, 지식전수, 청소년교육'
- 04.17. • 서울시/자치구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교육
- 04.~10. •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법정 의무교육 지원
- 04.~12. • 롯데홈쇼핑 입점 판매지원
- 서울시립대 연계 찾아가는 회계·세무 서비스 운영
- 건강한 조직형성을 위한 리더십과정
- 05.23~24. • 사회적경제 중간 지원조직 활동가 종사자 워크숍
- 05.06.~06.22. • 한국-인도 국제협력 기술연수
- 06.28. • 롯데홈쇼핑 입점 및 성장지원 발대식
- 06.23.~07.04. • UNTFSSE(UN사회적경제TF) 국제 컨퍼런스 참가 서울 사회적경제 성과 발표 및 정책교류
- 07.16.~17. •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한반도 단번도약과 사회적경제의 가능성'
- 10.15.~10.18. • 중국 CSEIF(China Social Enterprise Investment Forum) 초청 정책 및 사례 발표
- 10.15.~12.10. •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지역기반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과정'



2020

- 01.06.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대 센터장 취임 (조주연 센터장)
- 01.~12. • 오프라인 유통채널 입점지원(JDC면세점, 생협 입점 등)
• 롯데 홈쇼핑 입점 판매 및 성장 지원 컨설팅
•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법률, 회계 등 자원연계 포함)
• 마을기업 발굴 및 활성화
- 03.13.~20. • 코로나 19 극복 캠페인 및 마스크 지원
- 04.~10. • 뉴미디어 교육콘텐츠 기획 및 제작 '하루인턴'
• 사회적경제 코로나 19 대응 우수사례 영상 제작
- 04.~07. •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 운영
• 코로나 극복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개발 지원
- 05.~07. • 서울사회적경제 기업 온라인 간담회 '솔루션스쿨'
- 05.07.~05.13. • 온라인 공공구매 상담회 운영
• 공공구매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영상교육 콘텐츠 제작
- 05.~12. • 사회적경제인론 이로운넷 '이로운 서울' 공동운영
- 06.~11. • 사회적경제 프랜차이즈 규모화 지원
- 07.~11. • 전략분야(돌봄)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운영
- 07.~12. • 사회적경제 지역돌봄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 운영
• 바이소셜 캠페인 'SE 크리에이티브'
- 07.30.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국전력공사> 업무협약
- 08.~11. • 서비스 분야 클라우드 펀딩 운영
- 08.~12.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임팩트 확장 지원
- 10.08.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울시-한국공항공사> 사회적경제 판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협약
- 10.~12. • 지역통합돌봄 신규전략개발 '허약 노인 지역기반 바른먹거리 제공사업 기본계획 수립'
•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포럼
- 10.13.~11.19. • 사회적경제 종사자 실천학습 과정
- 10.30. • 서울시/자치구 공무원 사회적경제 교육
- 11.~12. •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시민참여 액션플랜 시범사업
- 12.17.~18. • 서울사회적경제 성과공유회 '보따리 토크 2020'
- '20.11.~'21.02. • 한겨레 인문기획 '이웃이 경제다'
- '20.12.~'21.03. • 골목상권 활성화를 사회적경제 전환 및 협업사업
• 사회적경제 기업 온라인 유통채널 역량 강화 지원
- '20.12.~'21.05.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 전환 및 협업 사업 (소상공인-동종/유사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업)

2021

- 01.~12. • 사회적경제 지역통합돌봄 '우리동네 나눔 반장 사업단'운영
- 01.~12. • 사회적경제 쇼핑물 '함께누리' 운영
- 02.~11. • 온오프라인 기획전(봄시즌 야외 판매전, 추석 카달로그 기획전, 롯데홈쇼핑 판매, 11번가)
- 03.~12. • 코로나 극복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체험사업' 추진
- 04.~11. • 유통형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지원
- 04.~12. • 시민이 주문한 생활문제 해결 솔루션 제안 '시민액션플랜'
- 04.~12. • 개봉 비대면 산업 클러스터/가락 먹거리 클러스터 개관
- 05.04.~08.03. •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강화 '소셜 클라보레이터 커뮤니티 Co-Workers'
- 05.~12. •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온라인 상담회 및 설명회 운영(3차)
- 06.~11. • 사회적경제 공공시장 전략품목 개발(그린뉴딜)
• 사회적경제 연구 (재정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패널구축 기초연구, 사회가치지표 고도화 연구)
• 사회적경제 기업 임팩트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프로젝트 지원
- 06.~12. • 청년이 만드는 사회적경제 혁신 사업모델 지원
- 06.28.~08.05. • 사회적경제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 'Social On: Series'
- 06.29.~09.30. • 사회적경제 실천학습과정 '슬기로운 사회적경제 생활 2021 Social Mates Club'
- 07.~08. • 서울사회적경제 기업 온라인 간담회 '솔루션스쿨2'
- 07.19.~08.27. • 중간지원기관 실무자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 'My Social Story, Our Special Steps'
- 07.~09. • 서울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실무자 법정 의무교육
- 08.13.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업무협약
- 08.~12. • 사회적경제 영상 홍보 캠페인 '사경을 헤매다'
- 09.~12. •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식문화 네트워크 전략 수립 및 시범운영
- 09.~12. • 가치소비 콘텐츠 플랫폼 '캐빈닷넷' 오픈
- 10.26.~12.10. • 사회적경제 가치확산을 위한 커뮤니티형 교육 'Co-Workers: 시즌2'
- 10.~11.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 및 아카이빙 (기후위기, 일자리, 먹거리)
- 10.~12. • 지역통합돌봄 신규사업 개발 '사회적경제가 함께하는 허약노인 의료-영양 중재 시범사업'
• 온라인 마케팅 그로스해킹 컨설팅 지원
- 11.~12. • 조선일보 공익세션 더나은미래 '이것이 사회적경제다' 연재
- 12.14.~15. • 서울사회적경제 보따리 토크 2021: '협력해'

2022

- 01.~12. • 사회적경제 쇼핑물 '함께누리' 운영
• 가치소비 플랫폼 '캐빈닷넷' 운영
- 04.28. • 2022년 사업설명회 '다시 시작해, 불'
- 04.~11. • 현장 수요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이달의 교육'
- 05.~11. • 사회적경제 소비자 체험단 운영
• 온라인 기술 기반 청년 커뮤니티형 교육 '소셜클라보레이터'
- 05.~12. • 서비스 업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공유주방 시범사업 운영
• 신진연구단 운영과 '사회적경제 이슈 브릿지' 발간
- 06.~11. • 공공구매 온라인 설명회 및 경쟁력 강화 컨설팅 지원
• 서울형 사회가치지표 측정 및 컨설팅
• 사회적경제 임팩트 강화를 위한 가치기반 역량 강화 컨설팅
- 07.~10. • 사회적경제 조직 커뮤니케이션 교육 '다수의 수다'
- 07.~12. • 뉴미디어 교육 영상 콘텐츠 '사플리' 제작
• 사회적경제 가치소비 온라인 기획전 업무제휴 및 운영 (11번가, 쿠팡, 와디즈)
- 08.~12. • 민간시장 온라인 마케팅 역량강화 컨설팅 (디자인패키지, 홍보, VMD)
- 09.05.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울신용보증재단> 사회적경제기업 ESG 경영 활성화 협약
- 09.14.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 포럼 '새삼스러운'
- 12.13. • 서울 사회적경제 보따리토크 2022 '스프링: 높이올라'

2023

- 03.29. • 2023년 사업설명회 '다갖춘'
- 03.~12. •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마을기업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 04.~11. • 실무 역량강화 교육 '이달의 교육'
- 04.~12. • 가치소비 참여형 마케팅 진행
- 05.30.~06.02.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행정타운 새활용 전시회 참여
- 05.~11. • 마을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
- 06.~12. • 사회적경제 가치소비 기획전 운영 (11번가, 쿠팡, 롯데온)
- 08.03.~04. • 뉴리더십 워크숍 '사부작'
- 08.26.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전(개봉소상공인드림창작소 내)
- 10.11.~13. • 2023 대한민국 ESG 친환경 대전 참여
- 10.13.~15. • 제8회 베지노믹스페어 비건페스타&그린페스타 참여
- 11.01.~03.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행정타운 ESG 친환경 사회적경제 전시회 참여
- 12.07. • ESG 역량강화 자원연계 밋업데이
- 12.15. • 서울 사회적경제 보따리토크 2023 'Cirdl-연결의 기록'



SOCIAL ECONOMY CENTER

사회적경제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람의 가치, 사회적 가치를 위해
되는 따뜻한 경제 활동입니다.



모두의 경제로 새로운 연결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 서울의 모습이 어떠한지 생각해보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진보로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세계화로 다양한 문화와 관계가 교류되고 있다. 반면에 급격한 도시화와 사회변화로 세대 갈등과 양극화, 자원 배분과 기후위기 등 사회문제는 개인을 넘어 전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인간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은 시민 참여로 기존의 일방적인 패러다임과 문화를 바꾸는 시도였고,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주체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찾는 것에 있어 당사자로부터 필요를 찾는 기본에 충실하는 과정이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고민하는 조직, 기업, 시민, 전문가 등 참여자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상향식으로 논의하고, 민간과 행정이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국내·외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는 등 이를 위한 구조를 만들고 운영에 몰두하였다.

좌담	새로운 관계맺음 거버넌스
도전	서울 사회적경제의 도전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연결	사회적경제 굿거버넌스, 민관정책협의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
일하는 사람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위키서울(WIKI SEOUL) 사회적경제 해외연수 지원
기고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교육과정 평가와 향후 방향

새로운 관계맺음 거버넌스

일시

2023.8.23.(수) 15:00~17:00

참석자

이미영 페어트레이드코리아 대표(좌장)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
협의회 사무국장

장지연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실장

최영미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사



서울시 사회적경제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성과가 있다. 바로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이 그것이다. 거버넌스는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의 관심사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찍이 민간과 공공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왔다. 국내에서는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든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며, 전국에서 서울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정도로 주목받았다. 10여 년 전부터 서울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실천을 주도해 온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방향을 이야기 나눴다.

이미영 —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서울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시작에 앞서 각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공정무역 사회적기업인 페어트레이드코리아를 운영 중이며, 1, 2기 민관정책협의회 민간집행위원장을 맡아 2014년 6월까지 활동했습니다.

최영미 — 이미영 대표를 이어서 2015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기 민관정책협의회 민간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현재는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영식 —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출범하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이 2012년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저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출범한 2013년 봄에 정책기획단이 민관정책협의회로 전환하면서,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되어 민관정책협의회 간사도 맡아 역할을 했습니다. 민관정책협의회 업무는 2018년 12월까지 했습니다.

장지연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했고, 마지막 2년은 사무국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만나 협력의 싹을 틔우다

이미영 ____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 전후로 사회적경제 민간 주체들이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어요. 거의 매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사회적기업만 당사자 조직이 있었기에 함께일하는재단, 사회연대은행, 씨즈, 희망제작소 같은 지원기관이 논의를 이끌어가는 분위기였죠. 2012년 1월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 전담부서인 사회적경제과를 만들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를 계획해요.

당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형식적인 구조라 한계가 많았어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조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이 만들어졌어요. 비공식기구였지만 영향력이 컸죠. 그러다 2013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격적인 민관 거버넌스가 시작됩니다. 민관정책협의회 운영은 서울시 사회적경제과가 맡았고,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기업), 자활기업, 사회투자,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부문에서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참여했고,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간사 역할을 했어요. 민관정책협의회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반영하는 것

은 물론,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관리 및 실행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당시에는 서울시에게도 모든 과정이 새로운 시도였기에 민간에 많이 의지했고, 민간도 주도성을 가지고 활동해나갔던 것 같아요.

김영식 ____ 그때 정말 자주 모였어요. 2012년 민관정책기획단 때도 자주 모인 것으로 알고, 민관정책협의회로 전환된 2013년 이후에도 공식 모임만 연 20~30회였죠. 분과위원회 회의, TF 회의 등 비공식 회의까지 포함하면 거의 매주 만났어요. 회의록을 제때 정리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만큼 참여하는 주체들이 열성적이었어요. 많은 분의 이러한 헌신이 있었기에 성공적인 거버넌스가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민관정책협의회가 회의체계이긴 하지만 안건을 올리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 후반부어나 가능했고, 그전에는 안건 통과보다 브레인스토밍 형태의 토론이 대부분이었어요.

최영미 ____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등이 만들어지면서 민관정책협의회라는 공식적인 틀에서 논의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2014년부터 민관정책협의회 내 많은 분과 모임이 생겼는데, 크게 2가지 과제로 논의가 이어졌어요. 첫째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 사회적경제에 대한 큰 정책을 만들자는 것, 둘째는 우리(민간) 간

민관정책협의회가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관리 및 실행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미영



에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지원체계를 만들자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논의를 위해 부문별, 의제별, 업종별, 주체별로 끊임없이 모이고 논의가 이어졌어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부문별 벽을 허물어 공동의 요소를 찾고 서울시 전체에서 어떻게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당시 이런 논의가 이어질 수 있었던 건 서로에 대한 신뢰, 강력한 리더십이 바탕이 되었다고 봅니다.

장지연 ____ 당시 직접 지원에서 생태계 지원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현장은 물론 중간지원조직에서도 강했기에 그걸 가장 큰 기조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더불어 당사 자조직의 역할론이 중요시되면서 민간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분위기도 컸어요. 민관정책협의회에서도 논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중요시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민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없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국내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사례라면 단연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를 꼽을 수 있다. 민관정책협의회는 서울시 공무원을 비롯해 부문별 조직, 지역조직,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고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원하는 형태이다. 서울시는 민관정책협의회를 통해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기본방향과 사업계획을 세우고, 민관 공동수립·공동집행·공동책임 구조를 갖추어 민민, 민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틀을 세웠다.

새로운 거버넌스로 민관 신뢰 높이고, 서울 모델 전국 확산

이미영 ____ 서울의 사회적경제 거버넌스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분명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앞서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 주체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고, 이는 지금의 서울 사회적경제의 성과를 이루는데 밑바탕이 되는 신뢰 형성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서울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 보시나요?



민관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며 서로 간의 신뢰가 깊어졌어요.

김영식

장지연 ____ 민관, 민민 거버넌스로 만든 서울의 사업 경험들을 전국으로 많이 확산했어요. 성과가 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만 서울의 경험이 전국으로 확산하여 더 좋은 모델이 나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분명 성과라 생각합니다.

김영식 ____ 민관정책협의회가 기여한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니, 첫째, 서울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아이디어를 서울시와 협의하며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둘째, 앞서도 얘기했듯 서울의 거버넌스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도 지방에 내려가서 서울의 사례를 많이 알렸는데, 지방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형성입니다. 민관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무수한 토론을 펼쳤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헌신하며 서로 간의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신뢰는 이후 서울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사회적경제가 해결해가는데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미영 —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네요. 반면 새로운 시도도 보니 한계도 많았죠. 우선 세대교체에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미래의 사회적경제는 어떤 모습일지가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미완으로 남은 듯해 아쉬워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후, 민관정책협의회가 당사자 중심이 아닌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아쉬운 점이에요. 센터 이전에는 당사자조직들이 민관정책협의회 운영은 물론 다양한 사업에서 주체가 되었지만, 센터가 안정화되면서 당사자조직들은 센터가 설계한 사업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에 머물렀죠.

민관 거버넌스만큼 민민 거버넌스도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위원회 구성도 했지만 논의도 담론적 수준에 머물고 진척이 별로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형식화된 거죠.

사회적경제를 넘어
참여 주체에 대한 확장도
필요해요.

장지연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민관 거버넌스를 형성할 때 조직적 위상과 중간기관과의 역할, 민관 협력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는 게 지난 경험을 통해 얻은 시사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관정책협의회가 활성화되었던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그야말로 폭풍 같은 시기였어요. 우리도 처음이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죠. 그래서 아쉬운 점도 많아요. 우선 민관정책협의회의 조직적 위상을 우리가 미처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우리 내부의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서울시를 민관 거버넌스로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죠. 또 아쉬운 점은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에게 그 과정을 알려내고 모아내는 게 중요한데, 당시에는 지역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세력이 미약하다 보니 그런 점이 원활하지 못했어요. 또한 민관 거버넌스는 법과 리더십이 중요한데, 리더십이 바로 서지 못하면서 막바지에는 서울시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과정이지 않았나 조심스레 의견 내 봅니다.

장지연 — 앞서 센터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센터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는 스스로 사업을 하고 성과를 내는 전문지원기관의 상을 향해 가다 보니 전략사업에 힘을 쏟았던 것 같아요. 만약 전략사업이 아니라 민관, 민민 거버넌스를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움직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어디에 센터 사업의 중심을 두었느냐가 지금의 모습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미영 — 거버넌스 과정에서 행정 사이의 칸막이 정책, 민민 사이에 부문의 벽을 깨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네요.

김영식 — 초기에 정책기획단이나 민관정책협의회를 행정이 신뢰하고 의지한 이유가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개인의 이해관계를 내려놓은 가운데 헌신하고 여기에 리더가 힘을 실으면서였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민간에서 형식을 중요시하면서 부문별, 지역별 대표자들이 민간정책협의회에 참여했어요. 그러다보니 공동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기보다는 부문별, 지역별 과제를 논의하고 충돌하는 자리로 변하면서 민관정책협의회의 위상 또한 낮아지고 그간의 시너지도 생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거버넌스가 가진 한계죠. 다만 거버넌스의 틀, 형식만 강조하기보다는 진짜 생태계를 고민하는 주체들이 참여해 논의를 가져갔더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 새로운 세대 중심으로
새로운 연대 방식 고민해야**

이미영 —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 서울 사회적경제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정리가 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그간의 한계를 딛고 협력적 거버넌스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향성 이야기로 오늘의 논의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최영미 —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려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연대가 필요해요. 기존의 위원회가 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거버넌스에 맞는 새로운 제도적 모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새로운 연대의 모습은 어떠할지,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연대의 틀과 모습을 상상해보고 실현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가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도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해요. 정치는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우리 일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무조건 멀리하려 하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시민의 일상으로 들어갈지, 그 속에서 정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영 — 최영미 대표님이 새로운 연대가 필요하다 얘기해주셨는데, 새로운 연대란 어떤 모습일까요? 같이 한번 상상해보면 좋겠네요.

김영식 — 지금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연대는 조금 더 실용적인 연대이지 않을까요. 의제를 설정하고 논쟁도 필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연대가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덜 피로하게 또 느슨하게 헤쳐모여식 연대여야 더 오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장지연 — 아무래도 중간지원조직들은 성과,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역 중심으로 접근하면 다중 정체성 때문에 부문의 경계가 흐려지기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히려 공무원들과 더 자유롭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단위의 네트워크, 민관 거버넌스는 이후에도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 또한 각 영역에서 사회적경제를 넘어 NPO나 노동단체 등 참여 주체에 대한 확장도 필요해요. 우리의 규모는 작지만 아젠다를 중심으로 의제



사회적경제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연대가
필요해요.

최영미

별로 새로운 주체들과 새로운 연대를 만들어간다면 사회문제를 더 힘있게 해결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식 — 협력적 거버넌스가 이루어지려면 구성원들의 헌신적 태도, 리더의 의지가 중요해요. 특히 거버넌스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보면 좋겠고, 거버넌스 운영의 실무 또한 임기를 두기 보다는 한 주체가 오래 맡아서 경험이 축적되는 게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사회적 자본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상호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적 특성으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신뢰는 단시간에 형성되지 않고 반복되는 협력의 결과로 서서히 축적되기 마련이다. 서울 사회적경제는 10년간에 걸쳐 민관, 민민이 함께 신뢰를 쌓으며 생태계 구축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있다. 바로 민관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민민 거버넌스가 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당사자조직 간에도 협력과 연대가 충분치 않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소통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행정과의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운영 경험과 역량을 쌓는 것도 민민이 함께 해결할 과제들이다.



서울 사회적경제의 도전

사회적경제 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서울시는 2009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2012년까지 1,000개의 신규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2년간의 인건비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1년 차에는 90%, 2년 차 60%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총 6차에 걸쳐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였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육성하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 운영은 분명 고 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일률적인 지원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설립목적을 충분히 실현하는 기업은 설립 이후 성장을 위한 간접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면서 성장 기회를 놓치는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당 시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지원했던 411개 기업 중 2년차로 지원 중인 기업 230개, 인증기업 48개 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133개 기업 중 연장배제, 자진포기, 약정해지로 89개 기업은 지원이 중 단되고, 2년 지원 종료된 44개 기업 중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서울형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149개 (36.3%), 문화교육분야 130개(31.6%)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환경주택, 보건복지 등 시민의 일상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안전망이 되어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등장하 였다.⁰¹

민선 5~6기(2011년 10월~2017년 6월) 서울시는 “함께 서울”,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 울”이라는 비전 아래 시민참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사회적경제 또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맞이 할 수 있었다. 서울은 자본주의가 집중되는 경쟁의 장이자,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 파괴와 더불 어 민주화와 다양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등 다양한 욕구가 혼재된 곳이다. 이러한 커 뮤니티 기반이 약한 메트로폴리탄 도시 서울에서 사회적경제는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민간서비스 와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안전망 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와 성 과는 도시문제에 대응하는 대안 경제이자, 서울시 혁신정책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기존의 단순한 재 정지원과 창업 육성을 넘어 서울 시민의 참여, 사회·경제·문화적 수요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 가치 소비 우호적 시장조성,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지원 및 인재양성 등을 포함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가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01. 서울형 사회적기업의 성과 및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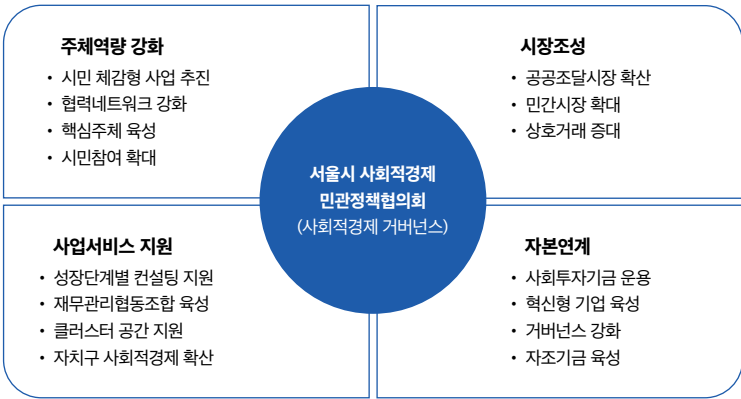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패러다임 전환

	2009~2011	2012~2016	향후 4년
추진 관점	사회적기업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단기적 양적 확충 중시)	시민주도 사회혁신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장기성, 고용/수익은 결과물)	지속가능한 서울혁신 (사회문화-경제-환경 통합 휴먼기업 내실화)
지원 전략	한시적 인건비 지원 (확일성, 형평성 원칙)	민관거버넌스 생태계 조성 (협업단지 구축/사회책임조달 시장조성/사회투자금융 등)	자조적 생태계 강화 (교차보조 수익개발형 자산형성, 사업연합 협동경제 촉진 등)
‘서울형’ 개념	서울시 선정, 지원형 (인증 사회적기업 등 역차별)	서울시민 생활문제 해결 (공동체주거, 돌봄서비스, 학교급, 에너지복지 등)	거점별 솔루션 경제 (서울형 창조경제클러스터 구축, 도시재생,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범주	경제활동 조직 한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정책간 칸막이 해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포괄)	포괄적 사회적경제 (사회책임 소비&투자운동, 지역화폐 등 기반 강화)

자료 : 이은애(2011 정책워크숍)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구체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2013년 서울시와 사회적경제 현장조직은 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같은 부문을 넘어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라는 비전 아래 종합적 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더불어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육성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이 로드맵에서는 정부-시민사회-노동계 협업적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진 ‘퀘백식 거버넌스 모델’을 거쳐 ‘유럽식 사회적 자본 기반형 모델’로의 진화를 제시하였다.⁰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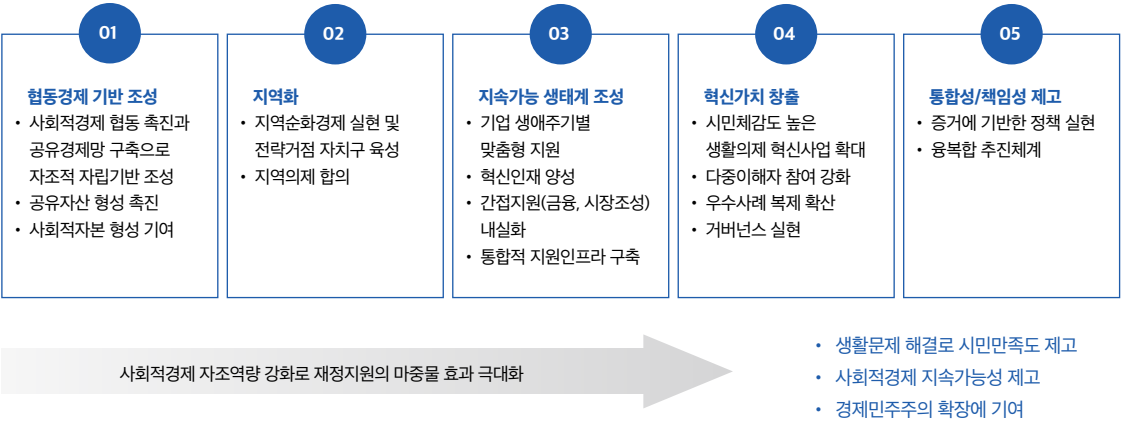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천 조직인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 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조직하였다. 이를 통해 주체 역량 강 화·시장 형성·기업 성장지원 서비스·자금 및 자본 연계 등 기업 성장 지원과 부문 및 업종을 통합하는 협동경제 기반 조성, 지역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시민의 생활권 단위인 자치구를 육성하는 지역화를 추 진하여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의제 중심의 혁신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인지도와 시민의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하였다.

02. 서울시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연구보고서, 정태인, 2013.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생태계 조성 전략 및 목표



서울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기반 마련

서울시는 이에 맞춰 제도를 정비해나갔다. 기존의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유지하며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2013년 3월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였다. 2014년 3월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판로 확대에 사회적 가치 창출에 공공기관이 앞장설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4년 5월,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서울 사회적경제 지원 제도적 기반 조성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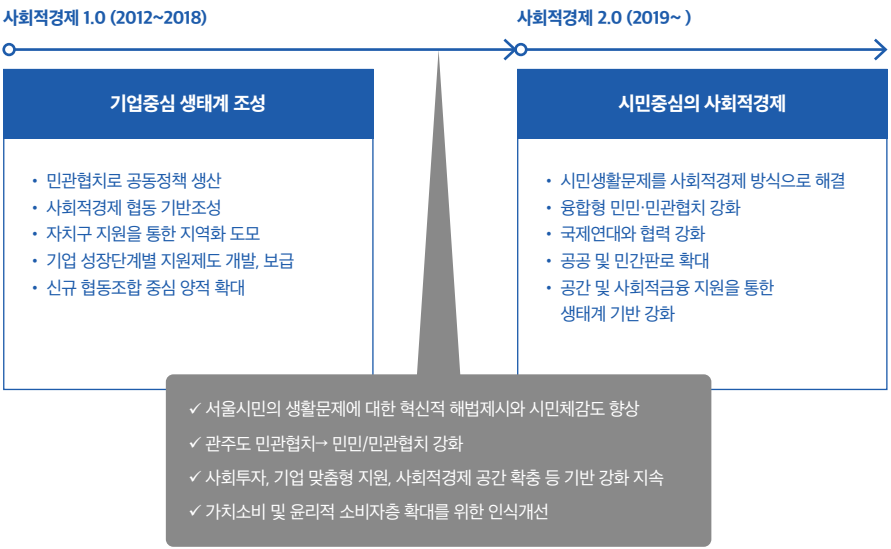
2009년 5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5., 2013.3.28>
2013년 3월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 일자리의 창출, 경제민주화의 실현, 지역공동체의 회복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3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용역,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며,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5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서울특별시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서울시 사회적경제 제2의 도약

2019년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을 발표하며 제2의 도약을 위한 계획을 알렸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에서는 2012~2018년 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의 성과를 기반으로 더 적극적인 서울시민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해법제시로 시민 체감도를 향상하고, 관 주도의 민관협치 거버넌스에 민간의 참여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기존의 기업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경제 공간확충의 필요에 대응하는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갔다. 가치소비 확산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해 우호적인 민간·공공 시장을 형성함으로써, 친근하면서도 협력과 연대의 사회적경제 방식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로 전환을 도모하였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2.0 활성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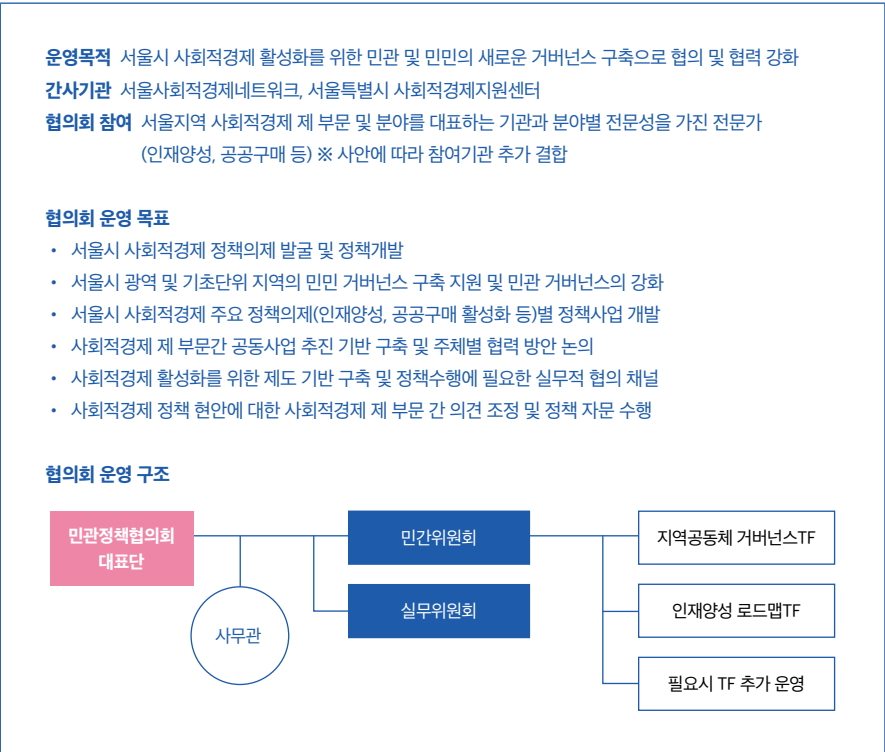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굿거버넌스, 민관정책협의회 협력과 신뢰로 함께 나서는 향해

201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기획단’을 운영하여 서울 사회적경제의 비전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주무부처에 따라 구분되던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을 서울이라는 지역 안에서 사회적경제로의 통합을 지향하며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2013년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허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센터를 중심으로 서울시 행정과 사회적경제 현장이 정책 실천을 공동생산·공동지도(co-guidance)하는 민간과 행정이 결합한 새로운 거버넌스인 ‘민관정책협의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협의하였다. 민관정책협의회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194회 월례회의 및 분과회의 등을 운영하였으며, 민간과 행정의 참여형 혁신 거버넌스⁰³의 사례가 되어 다른 사·도로 확산되었다.

2013년 사회적경제 민관정책협의회 운영 방향



03. 과거의 일방적인 정부 주도식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 (오승은,〈거버넌스론에 관한 제 접근〉《연세행정논총》. 29권. 51p.)

2013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역동의 현장이었다. 서울시 행정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아래 협력을 도모해가기 위해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했고, 정책 칸막이에 나뉘어 있던 서울의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람들은 칸막이를 넘어 사회적경제 조직이 부문과 업종을 넘어 협력

할 수 있도록 민간과 자치구 단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사회적경제 4대 부문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부문·업종별 협의회와 사회적경제 조직, 서울의 25개 자치구와 서울시의 참여로 서울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통해 민간이 단순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행정과 파트너가 되었으며, 행정은 민간과 협력으로 만족도 높은 정책 실현의 경험이 축적되었다. 정책을 함께 계획하고 만들어가며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서울이라는 지역을 넘어 국내외로 연결되면서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던 2012~2013년 초기 수많은 회의와 논의로 거버넌스를 이끌어왔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비전에 공감하며 헌신적으로 참여해왔다. 그러나 도전은 계속되지 않았다. 2021년 이후에는 정치환경의 변화로 정책의 생산과 설계 과정에서 거버넌스 방식을 활용하지 않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량적 성과 창출의 압박 속에 기존에 작동하던 거버넌스가 힘을 잃었다. 상황과 환경은 늘 변화하고, 사회적경제가 확장되고 성장할수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 이에 서울의 사회적경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지난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성장의 기회로 삼을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연대라는 공동의 목표 부문·업종의 연결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부문과 업종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경제로 통합적 인식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와 영세 자영업 공생,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지역화를 도모하면서 기초 지자체와 정책연대 강화로 기초 단위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업종별 인프라 확충을 모색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 간 컨소시엄과 내·외부 연대사업,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개발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였다. 2013~2014년 컨소시엄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시의 의제 도출을 위한 포럼과 간담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당시 자치구 순회 정책토론회로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주체와 의제를 발굴하고, 지역 단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결성을 촉진하였다. 이는 이후 자치구 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자치구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기초 논의로 이어졌으며, 부문 간 네트워크로 서울 사회적경제 부문협의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 업종 네트워크와 조직 간 공동사업으로 업종협의체(사회주택협회 등)의 형성과 업종별 전략 사업을 고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부문과 업종을 연결하여 사회적경제 부문·업종별, 이업종 조직 간의 컨소시엄으로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시장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2013년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 개요

공모내용	• 사회적경제 부문별·업종별 협의체 구축 및 회원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 사회적경제 부문별·업종별 협의체 내·외부 간의 연대사업 • 사회적경제 조직간 컨소시엄 등을 통한 공동사업 모색 등
신청자격	• 부문별 협의체는 서울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의 최소 5% 이상의 회원을 확보한 각 부문별 연대조직 • 업종별 협의체는 동일 업종 기업의 회원이 5개 기업 이상 •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프로젝트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신설 협동조합협의체 준비모임 포함
응모제한	• 회원이 개인으로만 이루어진 기관 •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 • 자치구단위 협의체 구축, 지역활성화 지원사업과 중복은 응모 제한 (단, 광역 수준으로 확대가능한 사업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부문별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5% 미만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체

초기(2013~2014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목표는 부문·업종단위의 공동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화 이전에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적경제 신생조직들을 연결해 연대·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공동사업과 네트워크로 도출된 의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화와 전략사업으로의 고도화 필요성, 업종·부문의 네트워크로 조직화 된 구성원의 조직화율을 제고하여 당사자 조직의 자립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에 2015년부터 두 가지 방향이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의제를 해결하는 전략사업으로 분리 운영되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원의 변화

	2013~2014	→	2015~2021
사업명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원사업		• 사회적경제 협동화 지원사업
목적	• 사회적경제 부문/업종별 네트워크 강화로 공동사업 활성화		• 부문/업종 협력사업 지원으로 연대와 협력 기반 확충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내용	• 부문/업종 컨소시엄 의제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 부문/업종 회원 조직화 확대 및 활동가 역량 강화
추진성과	• 부문/업종 컨소시엄 공동사업 28개/444개 기업 참여 • 기타 의제발굴 포럼 등 97회 3,378명 참여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협의체 지원 35회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
Thinking Globally, Acting Locally

서울에서 사회적경제를 정책적으로 적극 도입하기에 앞서, 사회적경제는 일찌감치 세계 여러 곳에서 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캐나다 퀘벡주,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볼로냐시가 대표적 인 예로, 자본주의가 가져온 양극화와 소외,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경제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였 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서로 배우고 정보를 교류하는 과정에서 세계의 민·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고, 2013년 국제네트워크 구축과 공동의 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시민 관심을 제고하고자 ‘GSEF 2013’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에 참여한 세계 도시들은 사회적경제를 더 많은 도시로 확산하기 위해 10개의 실천 방안을 담은 「서울선언」을 결 의하였다.

국제사회적경제협의회(GSEF) 서울선언문(2013) 10대 실천 방안

1. 각 지방정부는 공공-민간-공동체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한다. 2. 우리 모두는 시민 권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각 사회적경제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공동체 리더십을 지지한다. 3.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상이한 집단을 위해 적절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그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4.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를 진흥하기 위해 표준적인 교과서와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사회의 영향력과 역량을 증진 시킬 것이다. 5. 우리 모두는 사회혁신을 위해 우리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고, 인적 자원의 육성을 위하여 도시 간 사회적경제 인적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6. 우리 모두는 실시간으로 인터넷 및 기타 소통 수단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토론하고 공유한다. 각 도시정부는 이러한 정보에 입각해서 정책을 수시로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7.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발전모델을 개발한다. 정부의 공공정책은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 연합체와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조직 들이 사회적경제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고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 9. 우리 모두는 심각한 저개발과 빈곤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책임 의식을 공감하며 사회적경제 를 통해 빈곤 국가의 경제·사회·문화·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10. 우리 모두는 사회적경제의 글로벌 공동 행동을 추진하고, 사회적경제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의체 형성을 지원할 것이다. 여성 단체와 노동 단체, 환경 단체 등 사회적경제 운동 등 다양한 운동들도 이러한 과정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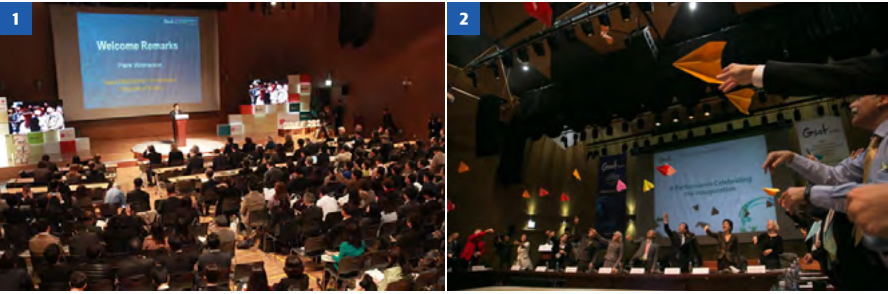
이후 거대한 흐름을 함께 만들어내기 위해 서울을 주축으로 2014년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A)를 구성하였고, 서울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2014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⁰⁴ 창립총회 운영을 준비하였다. 창립총회준비 서울조직위원회와 2013년 참여도시 및 국가 국제 자문단그룹 등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으로 공식 명칭을 GSEF로 확정하고 2014년 창립총회 포럼을 운영하였다.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역할 및 사업 내용



2014년 창립총회 이후 2년마다 국제포럼이 운영되고 있다. 2015년 서울시는 의장도시로서 GSEF 사무국을 설립하여 센터에서 진행해 온 국제네트워크 업무를 이관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에 사회적경제를 홍보하고 국제교류와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대륙별 정책대화 운영, 아시아청년사회혁신가국제포럼 등 다양한 국외 기관과 연대하였다. 이를 통해 각국의 민간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방정부의 공동 참여로 만들어진 최초·최대의 사회적경제 비영리 국제조직으로 자리를 잡았다. 서울시는 의장도시로서 2014~2021년까지 소임을 다하였으며, 2021년 프랑스 보르도(Bordeaux)시가 의장도시로 선출되면서 사무국 또한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04.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창립총회'는 GSEA(Global Social Economy Association)으로 추진되다가 나중에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으로 바뀌었다. GSEF의 설립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GSEF(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2014 백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 년도별 운영 국가 및 주제

2013.11.05.~07	대한민국 서울 	• 협동의 새로운 발견 • 서울선언문 발표
2014.11.17.~19	대한민국 서울 	• 창립총회 및 기념포럼 '변화를 위한 연대' • 서울시 초대 의장도시 선발, GSEF 사무국 서울 유치 • GSEF 현장 채택 및 배포
2016.09.07.~09	캐나다 몬트리올 	•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협력 • 지식공유플랫폼(C.I.T.I.E.S) 출범 •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연임
2018.10.01.~03	스페인 빌바오 	• 사회적경제 도시와 도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
2021.10.04.~08	멕시코 멕시코시티 	•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를 위한 공동협력 방안 • 프랑스 보르도(Bordeaux)시 의장도시 결정
2023.05.01.~06	세네갈 다카르 	• 사회연대경제와 지역: 지역사회를 위한 비공식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

2023년 4월 18일 UN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결의하였다. 사회적경제가 지난 10여 년간 국제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 OECD, ILO, UN으로 이어지는 국제기구의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었다. GSEF의 활동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한 지방정부 주도의 활동이었다. UN결의안으로 더욱 다양해질 지방정부의 정책을 기대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장경제와 공공경제 생태 및 사회적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각국 민·관 조직의 협력과 전 세계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물적 교류 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성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제안하는 GSEF의 창립 결의문을 되새겨본다.

1. 2013년 GSEF (서울)
2. 2014년 GSEF 창립총회 및 포럼(서울)
3. 2016년 GSEF (몬트리올)
4. 2018년 GSEF (빌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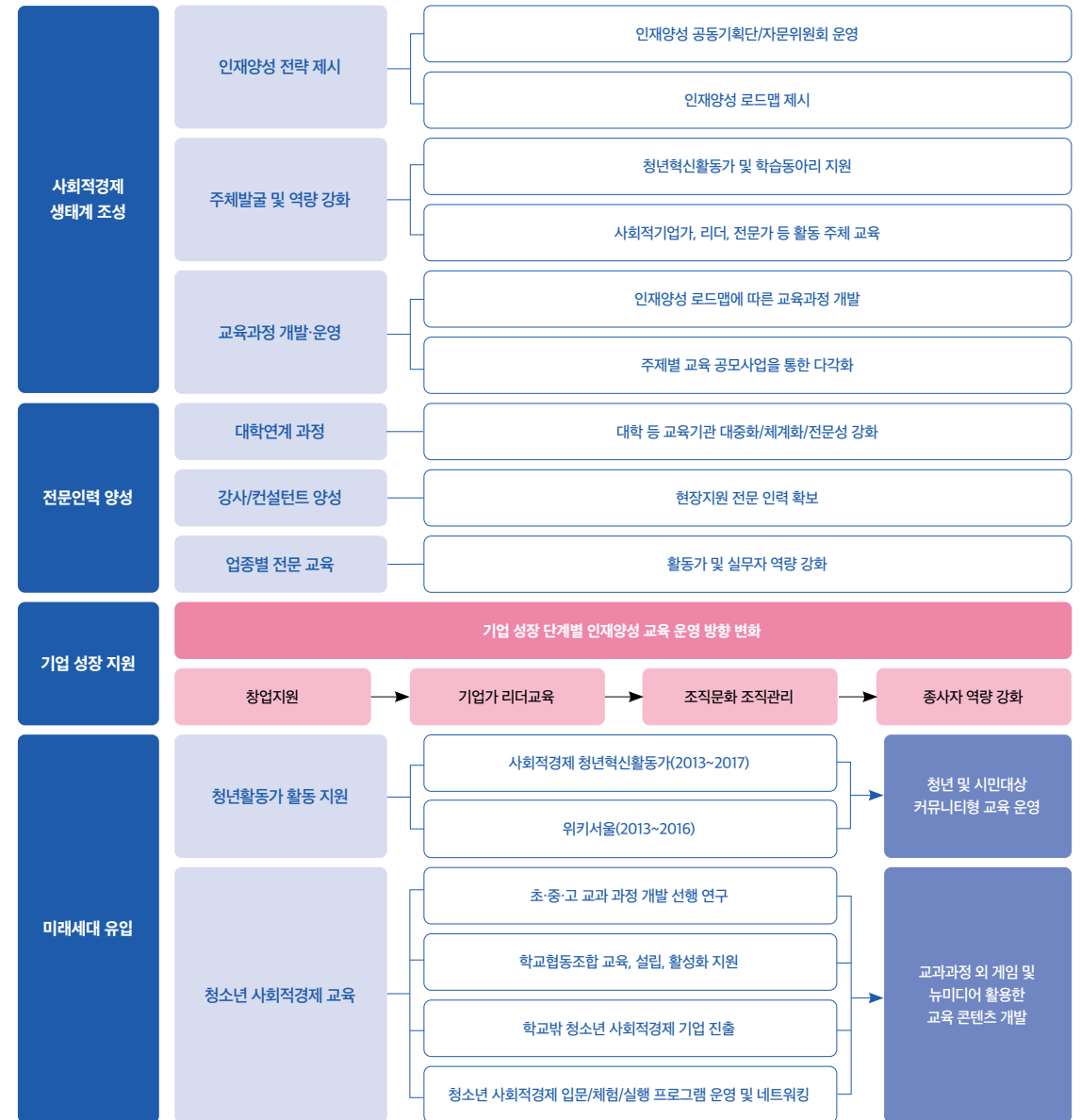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모으고 엮고 세우다

서울 사회적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과 체계를 재조직화하는 것이 거버넌스라면, 사회적경제 현장의 사람들을 모으고, 엮어내고 세우는 일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실현되었다. 사회적경제 인재풀을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것은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핵심 전략이다. 센터는 2013년 서울의 사회적경제 인재상 및 역량모델 수립으로 로드맵을 구축하고, 2013부터 2018년까지 증가한 수요에 맞춰 대상 맞춤형 교육, 현장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공모 및 운영, 전문가양성을 위한 대학원 연계 과정, 학습동아리 지원 등 전방위적인 교육사업 추진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교육이 확산되었다. 또 2015년 사회적경제 강사와 교육 정보가 모이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 프로그램과 인력 풀을 통합관리하고, 교육 수요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카데미 플랫폼은 2021년까지 운영되었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50개 교육과정, 668개 교육기관이 등록되었다.

1. 2015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교원연수과정
2. 2015년 대학연계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성공회대 AMP과정
3. 2015 몬드라곤 LEINN 워크숍



서울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추진 내용



또한 서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연계 과정을 운영하였다.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8년까지 7개 대학과 13회 전문가 양성과정이 운영되었으며, 이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학원 학위개설 및 AMP 과정 등으로 운영이 확대되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대학 연계 전문교육 과정 운영 내용

년도	교육과정	교육기관
2014	대학 연계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대학원 교육과정	성공회대학교
2015	대학 연계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 대학원 교육과정	성공회대학교
	동북4구 산·관·학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한신대학교
	여성 특화형 사회적기업 MBA 교육과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 사회적경제 협력프로젝트 활성화 시범사업	계원예술대/중앙대/서울대
2016	사회적경제 전문가양성 교육과정 운영	성공회대학교
	CEO 아카데미	한신대학교
	소상공인협동조합 현장교육 프로그램	
	협동조합 기획창업교육 프로그램	
	사회적경제 심화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사회적경제 심화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한양대학교
2017	성공회대 AMP 과정	성공회대학교
	동북4구 산·관·학 연계 리더 문제해결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한신대학교
2018	사회적경제 AMP 과정	성공회대학교

더불어 사회적경제 미래세대 인재양성에도 힘써왔다. 2014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에서는 초·중등 사회적경제 교과서 모델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및 연구를 진행했고, 2015년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을 통해 청소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자율공모에 있어서도 청소년 대상 청소년협동조합 교육 아카데미를 추진하였다.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주요 전략사업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학교협동조합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학교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등 미래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과 사업에도 힘을 쏟았다.

2016년부터 센터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회계·세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 일상 경영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자 경영지원의 일환으로 <서울시 세무과-서울시립대-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 MOU를 체결(2016. 2. 23)하였다. 현재까지 ‘찾아가는 회계·세무 서비스’를 통해 센터는 참여 대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소개하고, 사회적경제 기업과 매칭하는 역할로서 8년간 협력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회계·세무에 대한 컨설팅을, 협력기관 및 대학생에게는 사회적경제의 이해를 돕고 알리는 사업으로 꾸준히 운영 중이다.

이처럼 미래세대 유입과 사회적경제 관심자 및 일반 시민의 동기부여를 위해 뉴미디어 교육 콘텐츠 기획·제작(2020~2022년), 비대면 온라인 교육장 구축(2022년), 커뮤니티 기반의 문제해결형 워크숍 교육 등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사람들을 잇고, 엮고, 모으는데 따르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사회적경제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부여로 일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돕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적경제 뉴미디어 영상 교육 콘텐츠 목록

A screenshot from a video titled '심화편 사회적경제로 골든벨을 올려보자!' (Advanced Edition: Let's get on the Golden Bell with Social Economy). It shows a man and a woman in a studio setting.

• 사회적경제 골든벨 I, II
• N년째 스터디 중: 협동조합 소개
• 걸어서 사경속으로: 우리동네나눔반장, 같이살림, 주민기술학교 참여자 인터뷰
• 동상이몽 vs 이구동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 인터뷰
• 코로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전문가 토론

A screenshot from a video titled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신박한 해법 사플리' (New and Wonderful Solutions for a Better Daily Life). It shows five people sitting in a row, each in a separate frame.

• <기후위기> 2050 탄소중립, 정해진 미래를 살아가는 법
-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 <지역소멸> 지역과 동네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혁신가로 성장하기
- 홍순연 로컬바이로컬 대표
• <일자리> 청년에게 제안하는 매력적인 대안 일자리
- 노순호 동구발 대표
• <불평등> 고립과 불평등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건너야 할까?
-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사회적경제
- 강수들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2019년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을 발표하면서 서울 사회적경제는 또 한 번 전환기를 맞는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체감 향상과 사회적경제 참여 활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한 전략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또한 이에 맞춰 추진역량 제고와 지원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략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청년, 청소년) 유입에 집중하였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활동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센터의 교육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면활동 중단으로 인한 현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온라인 교육을 전면화하고 서울의 사회적경제 현장과 함께 세계적 팬데믹에 적극 대응하였다. 교육 또한 이에 맞춰 비대면 상황에서 새롭게 개발되고 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온라인 마케팅 통합 심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이 온라인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건인하였다.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방식 또한 많은 부분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지만,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점차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면서 종사자, 관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비대면으로도 각 주제별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적경제에 지속하여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2023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요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이달의 교육	사회적경제 종사자	- 현장 맞춤형 주제별 교육 진행 - 세무·재무, SNS 마케팅, 저작권법, 문서툴 사용 등 온·오프라인(실습형)교육 진행 - 교육 기획 전 설문조사를 통한 필요 역량을 파악하고 연간 교육 및 멘토링 지원
커뮤니케이션 교육	사회적경제 종사자	- 사회적경제 기업 및 중간지원조직 기관 종사자 소통 역량 강화 - 직급별 소통과 협력의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
커뮤니티형 교육	청년 및 종사자	-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방법론 및 사업 설계 코칭 - 커뮤니티 빌딩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고 사업 아이디어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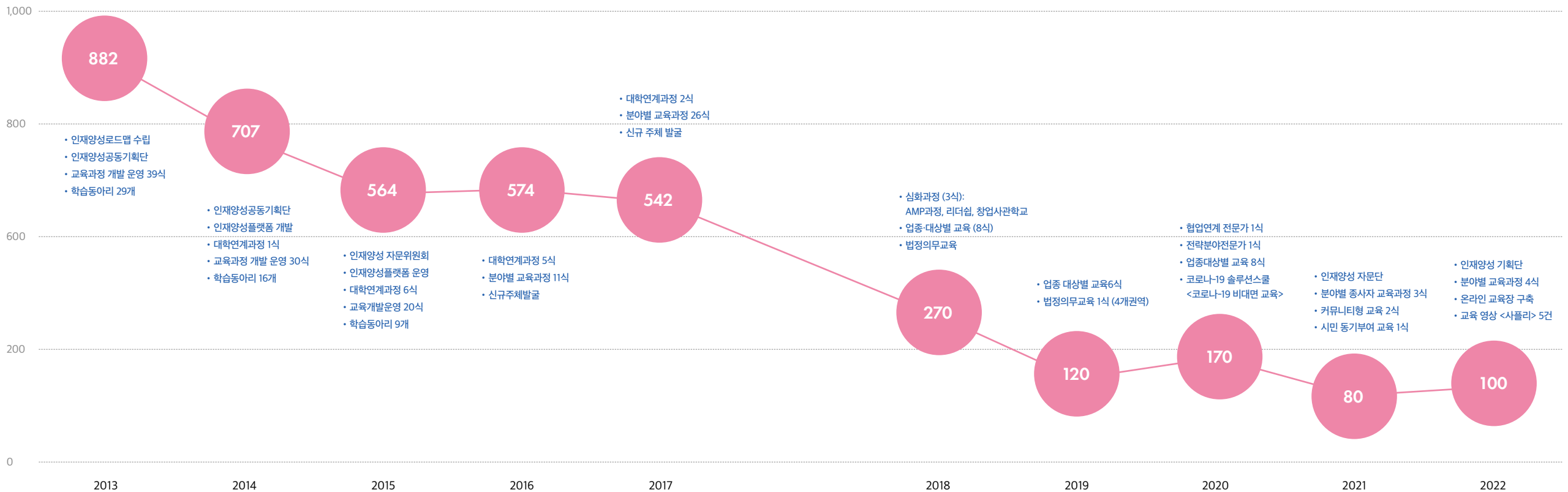
1. 2022년 커뮤니케이션 교육 '다수의 수다'
2. 2023년 이달의 교육 모습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성함에 있어 인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이다.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통해 많은 인재가 발굴되었고, 서울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통한 인재양성은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팀과 공동체까지 이어진다. 이에 보다 다양한 인재가 사회적경제를 통해 자기 역량을 펼치고, 이러한 인재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가 조직과 나아가 사회 전반에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속하여 인재를 찾고 연대해 나가는 노력을 하고자 한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교육 예산 및 추진현황 개요(2013~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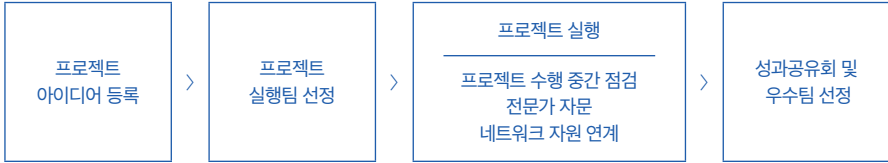
교육예산(백만원)



위키서울(WIKI SEOUL) 아이디어로 서울을 바꾼다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여럿이 함께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생활 속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이다. 사회적경제를 생활 속에서 만들어가며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서울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문제해결형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를 목표로 2012~2016년까지 5년간 열렸다.

위키서울 진행 과정



위키서울을 진행한 5년간 1,949개 시민 아이디어가 위키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되었고, 심사를 통해 IT/기술, 교육, 나눔기부, 돌봄·복지, 문화예술, 의료건강, 일자리, 제조, 환경 등의 주제로 195개 시민 의제를 선정하였다. 이 중 50개 기업을 우수 실행팀으로 선정하여 아이디어를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등록 아이디어	1,025	319	316	185	104	1,949
실행팀	42	47	30	47	29	195
우수 실행팀	9	10	11	10	10	50

1. 2013년 위키서울 성과공유회
2. 2015년 위키서울 성과공유회



사회적경제 해외연수 지원 열림과 연결의 지식공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내가 사는 도시와 공동체를 더 낮게 만들고, 나아가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움직임은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와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고 생태계 발전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연결되고자 힘써왔다. 서울이라는 경계를 넘어 도시와 삶을 바꾸기 위해 도전했던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경험을 나누는 과정이었던 해외연수는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자산이 되어 지역의제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공동체 지향의 기업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

기술연수: 주요 의제별 문제해결의 사례를 답사하고, 기술 교류를 목적으로 함

- 친환경, 도시재생, 지역자산화 등 공유경제 및 사회적경제의 결합
- 주민 참여형 돌봄, 장애인, 학교 협동조합 등 수범사례 교류
-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 적용 등 사례

정책/전략 기획연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및 전략사업 벤치마킹

- 캐나다 퀘벡시, 스페인 빌바오, 이탈리아 볼로냐 등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도시 정책 중심의 사례를 탐방
- 국제 사례 초청 및 수범사례 학습과 교류를 위한 국제컨퍼런스 운영 등

사회적경제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해외에 있는 사회적경제 사례 학습뿐만 아니라 국내에 이를 전파하기 위한 초청에도 적극적이었다. 해외 선진 사례 및 이슈에 대한 외부기관 초청 컨퍼런스와 대면하기 어려웠던 해외연사 초청 강연, 직접 방문한 해외연수 사례 공유회 및 보고서 발행 등 국내·외의 사회적경제 사례를 전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 2016년 전략기획연수
퀘벡/몬트리올
2. GSEF 2018 포럼 빌바오
사례발표
3. 2019년 전략기획연수
사회적경제 국제컨퍼런스
4. 한일 사회적기업 국제
심포지엄





글. 장중익
한신대 대학원
사회적경영학과
주임교수

기고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교육과정 평가와 향후 방향

서울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교육과정 회고

사회적경제의 학습 및 교육은 보통 시민사회섹터, 공교육섹터, 사회적경제섹터 등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민간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다양한 법인격의 자발적 시민사회조직이 지자체 및 중앙정부 혹은 일반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수행한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회적경제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주로 사회적경제 섹터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경제 부문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필요에 기반하고, 지역예의 재투자를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며, 민주적 참여와 호혜 및 연대의 원리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경제이기에 기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의 주체 양성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조직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즉, 보통 사람들의 협동 의지를 모으고 이타심을 고양하는데 필요한 기업가정신을 지닌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들을 발굴하고 배출하는 일이 공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운영원리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가족을 통하여 세대 간에 걸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가 전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영역과 행정영역의 파트너십에 의한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시민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있고, 지역사회의 시민사회조직이 1차로 관심을 가질 때 그 역량이 함양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은 지역사회의 시민사회조직 및 사회적경제 섹터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섹터에서 가장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한 주체 중의 하나다. 센터는 2013년에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다양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회적경제의 인재를 사회적기업가, 실무자, 코디네이터, 행정가, 전문가로 구분하고 이들이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과 업무실행역량을 정립한 후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크게 아카데미 운영, 인재양성 연수, 신규주체 발굴 육성으로 나누어진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사업 주요내용

아카데미 운영	인재양성 연수	신규주체 발굴 육성
• 대학연계 과정 • 심화교육 과정 • 공무원 워크숍 • 인재 육성 온라인플랫폼 운영 • 콘텐츠 개발	• 전략기획 연수 • 업종/분야별 기술 연수 • GSEF 2016 총회 참가 연수단 운영	•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 개최 • 청년혁신활동가 선발 및 지원

(출처: 2016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과보고서 내용 재정리)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심화 단계로 한신대·성공회대·한양대학교에서 위탁 수행하는 대학 연계 과정과 교육전문 협동조합이나 재단에서 진행하는 심화교육으로 나누어진다. 센터가 공무원 대상 교육이나 여성리더 교육, 청소년 사회적경제학교를 직접 운영하였다.

특히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시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플랫폼의 구축은 교육 프로그램과 인력 풀을 통합 관리하여 교육의 수요자가 자신의 역량과 필요에 맞추어 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서울의 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아이디어 대회 ‘위키서울’을 2012년부터 5년간 진행했다. 공모한 아이디어 중 195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멘토링과 교육을 진행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청년혁신활동가를 모집하여 사회적경제 현장에 매칭하고 교육과 활동을 지원한 사례는 신규주체 발굴 측면에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은 2018년 7월에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 의하여 더욱 확대되었다. 이 종합계획에서는 청년 및 시니어층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 유입을 위한 프로그램이 강조되었다. 서울시는 2019년 3월에 ‘서울시 사회적경제 2.0 활성화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의 유입은 물론 체계적 인적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청년, 신중년 등 다양한 계층의 사회적경제 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사회적경제 2.0 활성화계획과 이에 따른 업그레이드된 교육 프로그램의 실천은 2020년부터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향후 방향

2020년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회적경제 소개 차원의 단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경제 전문교육 수요 증가에도 정규교육의 틀 안에서 이 수요를 체계적으로 감당하고 전문성 있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 특별 프로그램이나 학위 과정을 개설하였으나 직업교육, 평생교육, 전문대학원 과정 등 생애 전반에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춘 다각화된 교육자원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서울사회적경제 포탈 ‘아카데미 in 서울’에서 진행해온 매칭 플랫폼을 점검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교육의 전문화 및 체계화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향후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에서는 개인 및 팀 역량 강화, 생태계 차원의 제도 시스템 역량 강화가 균형감 있게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많은 전문가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전문가와 현장 실천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의 세 가지의 실천 전략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일방적이고 피상적으로 알리기보다 지역의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을 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사회적경제 활동으로의 유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동안 마포, 성북, 완주 등에서 이루어져 왔던 지역 연계형 교육 프로그램의 사례처럼 교육이 아니라 지역사회 협업-공동학습-공동생산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혁신적인 교육방식의 확산을 위한 교육투자가 증대될 필요가 있다. 지식 전달로서 교육 관점 보다 학습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학습한 내용이 조직 안에서 실현되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론이다. 온라인 기반으로 협력, 비판적 사고·창의·소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100% 참여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소규모 토론형 세미나 프로그램인 ‘미네르바 스쿨’, 이와 유사한 ‘페다고지 프로그램’ 등 사회적경제 리더 및 중간관리자의 역량, 조직역량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 교육방식을 발굴하여 확산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은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에서 접근해야 한다. HBM사회적협동조합에서 추진해왔던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 프로그램처럼 아이템 중심 창업에서 사람 중심의 창업으로, 대표자(개인)가 중심인 창업에서 팀의 역량에 중심을 둔 창업 교육으로, 육성 단계에서의 조언과 관점도 투자 중심에서 협업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분야/내용 및 주체, 역량 수준을 고민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모듈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학점은행제 방식 등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 사이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기존의 학점은행 방식과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 (전문)학사 학위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이 중단된 서울시 사회적경제 교육 아카데미 플랫폼을 준비기간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운영을 재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동안 사회적경제 교육 아카데미 플랫폼은 기초적인 정보전달을 하는 역할에만 그쳤다. 축적된 자료와 향후 확장 가능성으로 볼 때 더 체계화된 정보전달의 잠재성은 충분하므로 전문가들이 결합하여 기존 프로그램 분석을 토대로 역량-교육을 체계화하고, 일정 시점 이후에 공고되는 프로그램에는 개발한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실험을 해 보는 식으로 최소 1년 정도 연구-시범 연계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체계화 모델 구축뿐 아니라 그 효과까지도 검증이 가능하다.

사회적경제 지역화의 도전

2016 서울시 사회적경제 자치구 지원조직 합동 워크숍

일시 | 2016년 12월 5일(월)~6일(화)

장소 | 파주홍원연수원

주최/주관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좌담

지역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

지역화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인프라

사회적경제 인적·물적 집적화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조성

기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로컬비즈니스

일반적으로 '생태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자연 생태계에서의 먹이사슬로 이해하기 쉽다. 인간사회의 해석 상 생태계는 여러 이해관계자를 가진 사람들의 복잡한 사회망이며 사회적경제는 공동체의 이익과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이에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관계망을 기초로 구성원들의 경쟁과 협조, 수평적 소통과 협력 속에서 민간의 역량과 다양성이 증대되는 사회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자본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지역사회 안에서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메트로폴리탄 규모의 도시 서울시는 2012년 이 일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사회에서부터 협력과 호혜의 경제를 통한 신뢰자본 구축과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몰두했고, 지역화의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역에 뿌리내린 사회적경제

일시

2023. 9. 4.(월)
16:00~18:00

참석자

박치득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장
(좌장)

박용수 전 광진구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장

정명훈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최근영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과 같은 작은 지역 단위의 사회적자본 형성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시는 일찍이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2년부터 자치구 단위에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조성사업단을 만들고 시민 생활권 안에서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이 외에도 자치구 단위의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과 시장조성, 지역 내 협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부터 자치구 단위 중간지원조직 설립에 힘써왔다. 이에 대한 과정을 돌아보고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에서 지원센터 설립까지 10년

박치득 — 오늘 좌담에는 서울 자치구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단부터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해 온 분들을 모셨습니다. 각자 소개와 더불어 서울 자치구 사회적경제의 지난 10년을 돌아봤으면 합니다.

저부터 인사드리면, 저는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장 박치득입니다. 은평센터도 올해 10주년이 되었어요. 10주년 성과보고회를 앞두고 성과공유집을 준비 중인데 이런 작업을 진행하며 다가올 10년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은평구 사회적경제기본계획도 수립하며 센터의 방향성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근 센터의 가장 큰 고민은 자치구 예산이 증액하면서 구의회의 간섭과 입김이 세졌다는 점이에요. 사회적경제에 대해 구의회와 행정의 이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성과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지 고민입니다.

박용수 — 광진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을 9년간 했어요. 생태계조성사업단 3년, 센터 6년 이렇게요. 지금은 광진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센터 설립 초기부터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사회적경제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워왔어요. 그 과정에서 생태계조성사업단의 설립 목적 또한 네트워크 구성이었기에 우리의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었죠. 다만 생태계조성사업단

에서 센터로 변하면서 우리의 정책목표와 불일치 하는 부분들이 생겨 갈등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도 민간의 힘으로 극복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명훈 —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8년 차예요. 저도 2012년 생태계조성사업단 활동을 3년하고 그 이후 센터 활동을 했습니다. 강북구는 IMF 이후 도시빈민의 일자리 문제를 주민조직 스스로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1999년부터 여러 활동이 이루어져 왔어요. 그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당시 강북구에서는 한국가사노동협회의 우령각시 등 작은 사업단 운영이 지역으로 확장되면 큰 변화를 일으키고 정치도 바꿀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2012년 사회적경제의 싹이 트기 시작했어요.

최근영 —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자 센터 모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동사경센터 이사장이기도 하고요. 10년 동안 광역과 자치구 센터들의 성과와 고민이 10년 백서에 잘 담겼으면 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이쪽 영역도 움직임이 활발해졌죠. 매주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광역 단위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모 법인으로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협동조합협의회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시민사회가 많이 약화했던 시기라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등 자본주의의 폐해를 보완하는 데 사회적경제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새로운 기대가 싹트기 시작했어

요. 저 또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며 여러 꿈을 꿔
던 것 같아요.

박치득 —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사회적’ 보다 ‘기업적’ 관점에서 출발했어요. 이윤 극대화,
노동 소외 등 자본주의가 가진 한계를 사회적경제가 일부 해결
하겠다는 기대 속에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처
음에는 자치구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당시에는 현장 기업들과의 밀착도가 그만큼 떨어졌던 거죠. 아
쉬운건 자치구 단위에서 은평구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난 지
금도 자치구 센터와 현장 기업 간의 밀착도가 높지 않다는 점
이에요. 또한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는 민관거버넌스를 만들 때, 사회적경제가
정책 파트너의 기능에만 너무 충실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당시에는 그렇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약
한 고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0년 전에는 사회적경제 대한
일정한 맥락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사회적경제로
다양한 혁신활동이 가능하다는 게
형성된 분위기에요.

최근영

최근영 — 10년 전에는 광역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려 해도
자치구를 생활권으로 하는 주민들에게까지 사회적경제의 영
향을 미칠 수 있고 호흡을 맞춰 일할 파트너 기관이 없었어요.
자치구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별로
없었고요. 그러다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 생태계사업단과 성
장한 자치구에서 센터 설립이 고민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해지
면서 지역도 술렁술렁했죠. 당시에는 외부 환경이 자치구 센터
설립에 큰 영향을 미친듯해요. 즉, 10년 전에는 사회적경제 대
한 일정한 맥락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지금은 사회적경제를 활
용한 다양한 혁신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형성된 분위기
예요.

주민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며 뿌리 내린 자치구 사회적경제

박치득 — 자치구별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
하고 있지만, 각자 주력하는 사업이 다를 듯합니다. 은평구는
지역민이 사회적경제를 공부하며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학
습비와 활동비를 지원하는 ‘소셜밥터디’ 프로그램을 19기째 진
행하고 있어요. 선정된 팀에는 최대 100만 원의 활동비와 교
육, 추후 센터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을 제공해요. 이 사업을 통
해 지금까지 마을기업 5개가 만들어졌어요. 주민들이 사회적
경제를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센
터의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 중 하나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적경제를 경험하고, 긍정적 인식을 만들어가는 성과가 있
었어요. 다만 최근에 프로그램 신청자 수가 급감해 방식의 전
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명훈 — 자치구 센터의 역할은 초등학교와 비슷하다고 보
요. 특화된 무언가를 찾기보다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
는 의제가 많죠. 강북구는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노령인구가
많고, 주요 산업이 특정되지 않아 사회안전망 형성을 목적으
로 하는 사회적경제가 이들을 보호해주는 주요한 방식이 된다
고 생각해요. 사회적경제라는 플랫폼을 통해 취약계층이 새로
운 사회생활의 기회를 얻거나 확장되는 성과가 있었어요. 이후
어떻게 지속할지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
혁신교육,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의제들이 사회적경
제와 접목해 지역에 뿌리내리고자 했어요. 지난 10년간 다양
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가 언급되고 주민의 일상에 녹아드는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사회적경제특구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지역 돌봄서비스
통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협동사회경제
클러스터사업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박용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창업 이전부터 기업들과 고민을 이어가며 사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드는데 주력한다고 생각해요.

박치득

박용수 — 광진구는 사회적경제특구사업을 돌봄 영역으로 설정했어요.

사회적경제특구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지역 돌봄서비스 통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협동사회경제 클러스터사업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특구추진단은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주축으로 구성되었는데, 도우누리, 복지유니온, 인스케어코어, 국악아동협회 등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 수발돌봄, 영양돌봄, 위생돌봄, 정서돌봄 등을 결합해 전인적 돌봄 사업을 진행했어요.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금은 지역 돌봄 규모가 확대되고 제도까지 만들어졌어요. 또 최근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건강 상태 변화까지 책정하고 이를 상품화하는 등 통합상품서비스 고도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치득 — 광진구는 네트워크 전체가 지역 돌봄사업을 한다면, 은평구는 개별 기업인 살림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방문의료, 재택의료 등의 활동으로 지역돌봄을 강화해왔습니다. 여기에 센터가 힘을 실어주고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죠. 재택치료의 경우 광역센터에서 돌봄사업비를 지원받아 시범사업을 펼쳤고, 그 성과를 토대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마을강화스테이션사업과 연결해 사업을 진행했어요. 은평구 센터는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이러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며 지역돌봄을 강화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최근영 — 지난 10년간 동대문구뿐만 아니라 서울지역 전체에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해요. 주민들 속에서도 ‘협동조합 한번 해볼까’라는 분위기가 확산했고 실제 많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편복지, 선별복지 논란 속에서 사회적경제가 보완제 역할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참여도 촉진시켰습니다. 더불어 초기에는 기업 성장에만 주력했던 센터들도 여러 갈등을 통해 다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변화해 간 것도 하나의 성과라 봅니다.

지역사회에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숙제기도 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커뮤니티케어,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 등 돌봄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서울의 사회적경제 기업들도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뮤니티의 힘으로 자치구 단위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보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지역 내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노력이 그것이다.

자치구 지원센터, 지역사회와 밀착해 지역문제 해결함으로써 차별성 가져야

박치득 — 자치구 단위 사회적경제의 10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 몇 해 사이에 각 자치구에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많이 생겼어요. 자치구 단위나 일반시민들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할 것 같아요. ‘모두 창업지원하는 곳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지역 내 유사 중간지원조직과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에 있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또 차별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일반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에 의지를 가진 사업체를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창업 이전부터 기업들과 고민을 이어가며 사회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를 만드는데 주력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지역 변화를 가져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역할을 하기에 일반 창업지원센터에 비해 더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정명훈 — 우리 자치구에도 창업지원센터가 작년에 개소했는데요. 지역 활동에 기반한 운영기관이 아니기에 초기에는 괴리감이 느껴지고, 강북구민의 창업이 과연 어느정도 이루어질지 우려가 지역에서 있었어요. 타 자치구에서 아이템만 가져오고 지원에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기업을 양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용수 — 저희는 네트워크 중심의 사업을 해오다 보니 많아 야 연간 4개 기업 정도만 창업지원을 해요. 회원을 확대하기 위해 시작한 창업지원이기에 창업하면 무조건 네트워크 회원사로 가입을 하게 하고,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요청하는,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만 창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요. 즉, 단순히 창업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회원으로 함께 연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느냐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이 이루어지기에 일반 창업지원센터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활성화하려면 결국 각 주체의
필요해 기반했을 때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루어지기 마련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경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기관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해요.

정명훈

로컬비즈니스, 취약한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정명훈 ____ 제 활동의 토대가 노동운동과 실업극복이다 보니, 사회적경제는 취약한 환경에 놓인 주민들에게 사회적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활동 초기부터 생각했어요. 특히 제가 있는 강북구는 그러한 부분에서 취약한 지표를 가지고 있기에, 가까운 거리인 로컬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로 생계와 사회적돌봄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왔어요. 바로 강북구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로컬비즈니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박치득 ____ 공감합니다. 그런 점에서 로컬비즈니스의 주체로 적합한 곳이 사회적경제기업이죠. 사회적경제는 자본도, 기술도, 경영역량도 일반 기업에 비해 취약하기에 돌봄사업과 같이 노동집약적 사업에 적합해요. 특히 돌봄사업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지역 내에서 가능하기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에 적합하고, 돌봄사업이 확대되면 그에 따른 파생 사업도 많아지기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유효해요. 무엇보다 시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그런 점을 고려해 사회적경제가 돌봄 영역에 대한 더 깊이있는 고민이 있었으면 합니다.

정명훈 ____ 여러 모델들이 있겠지만 지역돌봄사업이 사회적경제 주체로 추진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에는 동의해요. 하지만 강북구의 경우 의료사회적협동조합도 없고 지역 단위들이 개별적으로만 돌봄사업을 진행하거나 자기 단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길 바라는 분위기예요. 통합했을 때 시너지가 더 커진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협력 구조를 가질지가 고민이에요. 한 단위가 독점하지 않게 경계하면서도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도록 다양한 지원 전략과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영 ____ 사회적경제가 거버넌스 형성을 잘하려면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런 영역 중 대표적인 게 앞서 말한 돌봄영역이죠.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의 사회서비스에 편입되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과 그 사업을 담당하는 주체를 만들어 지역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모두 사회적경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과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설정해야

박치득 ____ 마지막으로 자치구 센터에서 앞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면 좋을듯한데요. 앞으로 센터가 처한 외부환경이 달라지기에 센터장 중심의 협력이나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영 ____ 현재 상황에서 점차 중간지원조직이 축소되면 민간의 네트워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죠. 그럴수록 지역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부각 될 거라 봐요. 문제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단위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동대문구의 경우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보기술 분야를 적극 활용하고, 사회적경제를 넘어 다양한 지역사회 단위들과의 협력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후 10년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거버넌스에서 지역사회가 필요한 서비스를 사회적경제와 함께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후 10년은 자치구마다 다른 형태로 사회적경제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용수 ____ 자치구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집중하는 부분들이 다를 듯한데요. 광진구의 경우 지역기금 형성과 판로개척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가지는 것이예요. 우선 기금 측면에서는 상호거래와 공제부금사업을 통해 자체 기금을 마련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기업들의 사업을 지원하기가 어려워요. 이에 지역에 신흥 설립을 준비했는데 금감위에서 인허가가 검토되지 않아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금융의 중요성은 큼니다. 또 우리 지역에서 기업들이 함께 공동 입주 건물을 매입해왔어요. 지금까지 3개를 매입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금을 모으는 속도에 비해 공간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 수요에 맞춰 매입하려면 더 비용이 필요해요. 어떻게 기금을 마련할지가 고민이에요. 이러한 지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근거해 사회적금융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판로에 대한 부분인데요. 광진구의 경우 초기부터 회원 기업 간 상호거래와 연대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해왔습니다. 그 규모가 연간 5억 원 1,200건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더 확대하는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전략으로 세운 것이 회원사 구성원을 합치면 6,000명에 달하는데, 그 구성원이 우리 회원사들의 상품을 구매해주는 보호된 시장을 만들자는 거

예요. 이를 위해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만들고 홍보하고 있지만 회원사나 시민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간간 서울시의 지원으로 지역단위에서 고민했던 일들을 실현할 수 있었고, 속도를 높여주는 마중물로서 역할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속도는 이전에 비해 더디겠지만 방법을 찾아나갈 계획입니다.

정명훈 ____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활성화하려면 결국 각 주체의 필요해 기반했을 때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루어지기 마련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경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기관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해요. 그러려면 지원기관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겠죠. 지원조직의 안정화는 결국 정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당을 넘어서 어떻게 당사자조직이 지역 안에서 영향력을 가질지 고민해야 해요. 예를 들어 각 정당에 사회적경제위원회만 만든다면 특정 정당이 당선된다고 해서 사회적경제 정책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겠죠. 그런 점에서 지원기관과 행정의 안정화가 중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고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하여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년부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예산이 대폭 축소되어 사회적경제 지원이 위축되어지고, 서울시 사회적경제 자치구 통합지원센터의 지원 종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자치구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난 기간 각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성숙도와 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설계와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등의 과제를 남겼지만, 자치구 범위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며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 지역화를 추진해왔던 점에서 자치구 센터가 남긴 성과 또한 적지 않아 자치구 센터가 사라진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어떤 변화를 보일지, 위기를 어떻게 다시 기회로 만들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지역사회에 뿌리내린다

서울시는 2012년 4월 「서울시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생태계 조성으로의 방향 전환을 기조로 시민사회 중심의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추진 전략으로 주체들 간의 연결을 기반으로 혁신적 사회적기업 발굴, 성장기 사회적기업 지원, 체계적인 중간지원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소비 시장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역사회 중심, 지역단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은 사회적경제가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시민 주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여 빈곤과 소외 극복 등과 같은 사회 가치 실현이 시민의 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다양한 주체들의 생산과 소비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자 서울시가 심혈을 기울여 온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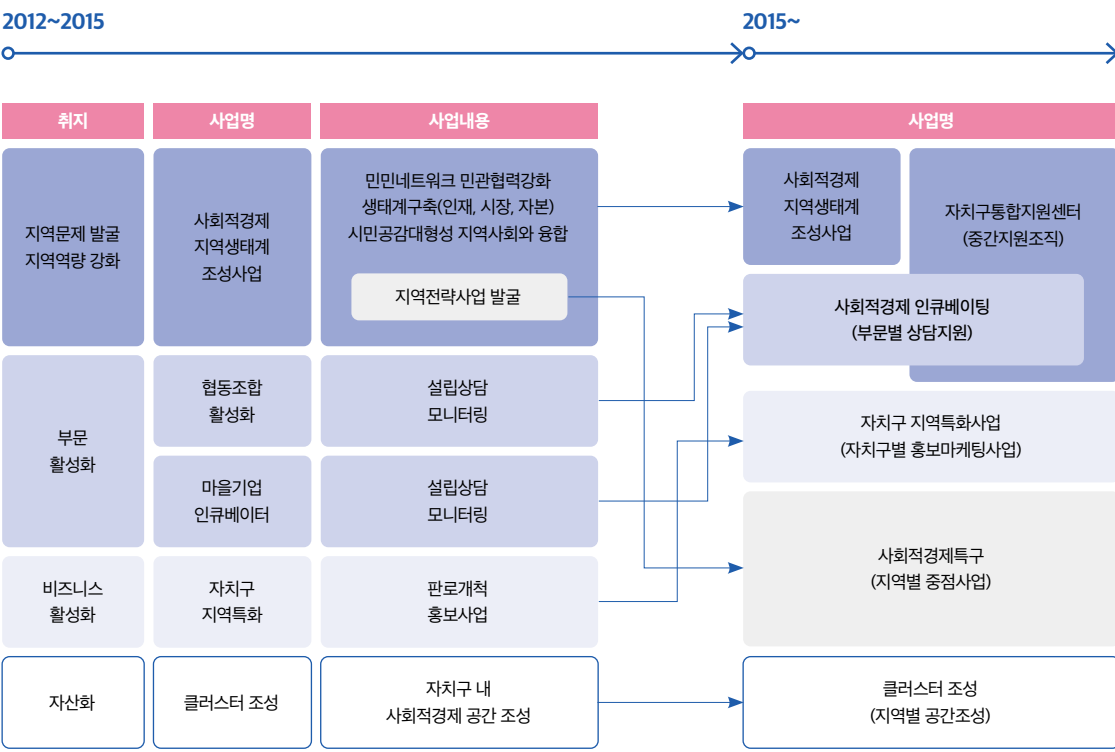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 추진 경과

2012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 사업> 공모 - 지역특화 사업단 1차 선정 :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성북구, 은평구 - 지역특화 사업단 2차 선정 : 강북구, 구로구, 노원구, 성동구	서울산업진흥원(SBA) 서울시
2013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1월) -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3차 선정 : 강동구, 마포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2014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선정 : 광진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동대문구	
2015	-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 1차 사업단 통합지원센터 전환 - 자치구 민간경상보조사업(민간위탁)으로 전환	서울시자치구(센터)
2016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용산구, 강서구, 종로구, 서초구	
2018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중구	
2019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강남구	
2020	자치구 직영 생태계 사업단 및 통합지원센터: 서대문구, 동작구	
2021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중랑구	
2022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일몰제 적용 - 연차별 순차적으로 지원 종료 - 2025년까지	

2012년 4월 발표된 종합계획에 따라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산업진흥원(SBA)과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였다. 1, 2차에 걸친 모집으로 9개 자치구(관악, 금천, 도봉, 성북, 은평, 강북, 구로, 노원, 성동)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주요 의제, 산업 형태, 주민 구성, 사회적경제 관련 자원 파악 등 자치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013년 4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이관하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4년까지 16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단을 지원하였고, 자치구 단위의 사회적경제 민-민,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자치구 사회적경제 의제 중심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 순환경제의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동종·이업종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지역 필요에 맞는 의제 맞춤형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역주민 일상에 더욱 가까운 사회적경제로 인지도와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더불어 공동체와 연대 기반이 약한 서울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문제해결을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자 하였다. 이에 자치구 생태계 조성사업단은 자치구 생태계의 요소인 제도적·물적 기반 조성, 민민/민관 네트워크와 협력, 인재양성과 성장지원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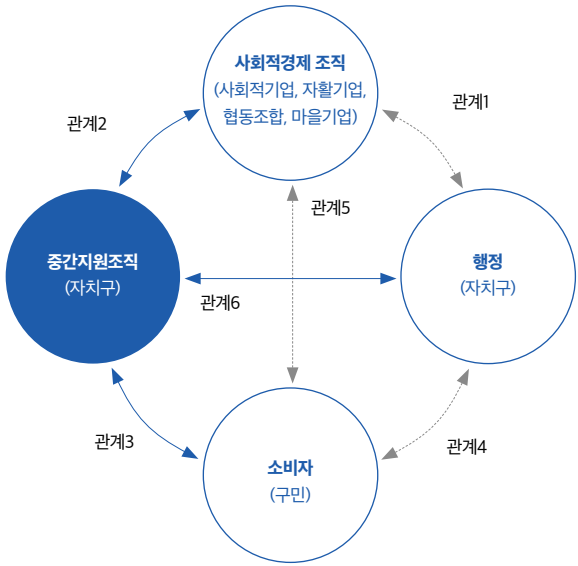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정책 설계 방향



(출처: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의 의의와 성과, 2015.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5년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단의 네트워크 구축과 발굴된 의제를 사업화하여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3년차 종료 지역 대상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자치구 단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설립 지원으로 기존의 네트워크와 의제 발굴을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상담, 기업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 수요에 맞춘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에 서울시 직접지원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면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자치구 통합지원센터와 전략사업 실행을 위한 협력의 파트너로 역할을 전환하였다. 2018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자치구 지원센터는 23개 구로 확대하였고,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 센터 및 기업 입주 공간 운영 등 물적·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민민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자치구 단위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 나갔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주체 간 관계도



- ① 기업-행정 : 기업환경 조성, 공공구매 등을 통한 판로지원
- ② 중간지원조직-기업 : 인큐베이팅, 기업 역량 강화, 부문간 협동화
- ③ 중간지원조직-소비자 : 사회적경제 개념 및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마케팅
- ④ 행정-소비자 : 사회적경제 정책에 대한 인지도 확산
- ⑤ 기업-소비자 :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
- ⑥ 중간지원조직-행정 :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출처: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의 의의와 성과, 2015.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9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을 발표하며, 지역사회에서 시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감과 참여를 높이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았다. 이에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주민기술학교,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 등 지역주민을 조직화하고, 필요를 찾아 지역 내 사회적경제 자원과 주민을 연결하여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지역 밀착형 지원의 주체가 되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인 초기 자원발굴과 네트워크로 주민의 생활권인 자치구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공동생산과 소비로 주체적 참여를 독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서울시와 자치구 정책 사업을 견인하고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넓히는 주요 전략의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자치구 생태계 조성 성과

민-관 협력을 통한 제도적·물적 인프라 조성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25개 자치구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와 시행규칙, <사회적경제 기업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였다. 이 조례들에는 민간이 참여한 사회적경제위원회 및 센터 설립, 우선 구매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독립공간을 가진 자치구 단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설립이 명시되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등 설치 현황

조례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자치구	송파구	종로구 광진구 중랑구 강북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	도봉구 은평구 양천구 동작구 동대문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중구	성북구 강서구 금천구	마포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년 서울시가 진행한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5개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중 9개 센터가 사무공간, 코워킹스페이스 등 사회적경제 지원의 일환으로 공간을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공유공간 운영 현황

자치구	개수	운영 주체	공간 활용 내용
강동구	3	자치구 직영	사무실, 도서관 커뮤니티홀, 서고
강북구	1	센터 및 네트워크 위탁	센터사무실, 입주기업사무실, 인큐베이팅룸, 회의실 등
관악구	1	센터 및 네트워크 위탁	사회적경제 조직 교육, 회의, 제품 홍보
광진구	1	센터 및 네트워크 위탁	센터 사무실, 입주기업, 교육, 회의실
금천구	1	센터 및 네트워크 위탁	세미나실, 공유주방, 사무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노원구	2	센터 위탁 및 자치구 직영	1관(위탁) 사무실, 교육실, 회의실, 사회적경제 입주 공간 2관(직영) 도시락 제조, 배달 사업 등 사무실, 작업공간, 창고 등 3관(위탁) 예비창업자 사무실, 교육실, 사회적경제 조직 입주 공간
도봉구	1	센터 및 네트워크 위탁	입주사무실, 코워킹 공간, 인큐베이팅 공간
동대문구	2	자치구 직영	사무실, 코워킹 공간, 인큐베이팅 공간
성동구	1	센터 및 네트워크 위탁	교육실, 회의실, 입주기업, 센터 사무실
성북구	2	센터 및 네트워크 위탁	입주기업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홀
양천구	1	자치구 직영	상담 및 행정업무
영등포구	1	자치구 직영	센터 사무실, 입주기업, 예비 창업 공간, 교육실 등
은평구	1	센터 및 네트워크 위탁	입주기업 사무실, 공유플랫폼, 센터 사무실, 교육 및 네트워크

(출처: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보고서」 2021)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위한 자원연계

서울시의 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 외에도 자치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을 연계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진행하였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투자 및 용자 운용을 위한 별도 기금을 마련하거나, 민간 차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자조금융을 형성하고, 자산화에 투자하거나 지역 소상공인을 연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현황

자치구	연도	조성금액(누계, 원)	기금명	주요 내용
강동구	2017-2018	200,000,000	사회적경제투자기금	사회적경제 기업 기금 지원
	2019-2020	300,000,000		
성동구	2017	263,000,000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 용자 (신제품 개발 및 시설비, 사업개발비 등)
	2018	263,000,000		
	2019	583,000,000		
	2020	1,183,000,000		
은평구	2016	300,000,000	은평구 사회적경제활성화 기금	사회적경제 기업 용자 사업 운용
	2017	3,650,000,000		
	2018	3,650,000,000		
	2019	3,650,000,000		
	2020	3,650,000,000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의 용자 및 투자 지원을 위한 자치구 기금 조성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자조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그 예로 광진구의 광진협동기금은 사회적경제 공동체의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협동자본을 축적함으로써 광진구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과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은평구의 공동체 화폐 ‘평화’는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지역 모바일 화폐로, 은평구 내 소상공인과 함께 지역상품과 서비스가 교환되고 지역경제에서의 선순환 경제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지자체 차원의 자치구 특성이 반영된 정책의 시도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동사업과 의제활동의 시도와 도전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사업과 활동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지역의 실제 필요와 욕구를 가진 주체를 발굴하고, 성장을 밀착 지원하여 주민을 생산-소비의 경제 주체로 등장시킨다. 또한 지역의 문제에 대해 비즈니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판로를 개척(지역 장터, 오프라인 매장 등 마케팅 지원 포함)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와 고용 활성화에 기여한다. 자치구 생태계 조성의 중요 성과는 생활권에서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문제의 해결사로서 다양한 공동사업과 협업을 추진함으로써 네트워크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다.⁰⁶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의 전초기지로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협력의 기반은 이러한 성과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06.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수립. 2021. 사회투자지원재단

자치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 사업
이웃의 경제, 커뮤니티 경제의 울타리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서울이라는 지역에서의 선순환 경제로 공동생산과 소비, 고용이 발생하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자치구를 거점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는 실제 지역의 필요를 발굴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시민사회·자치구의 실제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신뢰 자본을 형성하고,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와 협력, 지역 맞춤 자원조사와 의제발굴 및 네트워크에 대한 실행력을 갖추고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단부터 통합지원사업 운영 지원으로 지역의 사회·경제 환경분석과 수요조사를 통한 의제발굴, 사회적경제 자원발굴 및 네트워크로 협력 체계 구축, 자치구별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조례 제정 등 제도와 물적 기반 조성을 지원하였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연차별로 시의 지원을 점차 줄여가며 자치구 매칭비율을 늘려 시의 지원 종료 후에도 자치구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3년,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6년간 지원되어 25개 자치구에서 참여하였으며, 6년차부터 순차적으로 시의 매칭 지원 없이 자치구 직접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다.

서울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 지원 개요

(단위:백만원)

통합지원 체계육성	사회적경제 생태계 사업단 운영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시 지원예산	100	150	200	150	140	140	100	90	80
자치구 매칭비율	구비 매칭 조건 없음			15% 이상	15% 이상	20% 이상	50% 이상	70% 이상	100% 이상
사업내용	- 지역자원조사 및 의제발굴 - 사회적경제 주체 발굴 및 조직화 - 시범사업 추진, 인큐베이팅 - 시민/민관 네트워킹 및 협업 강화 등			- 자치구 사회적경제 전략 수립, 모니터링 - 공공구매, 상호거래 지원 - 기초교육 및 컨설팅 - 광역 전략사업 연계, 자치구 기획사업 등					

서울시 지원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자치구가 생겨남에 따라, 자치구별 거버넌스와 내·외부의 협력 및 연대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10년간의 서울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에서 주요한 사업이었던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사업을 단순히 자치구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설립 지원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경제는 일반의 창업지원과는 달리, 지역 안에서 공동생산과 소비, 고용, 역량 강화까지 이르는 선순환 경제로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으로 자치구 사회적경제는 생활권 내 공공과 민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우리 이웃과 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지역의 자원을 모으고 이어가는 일에 힘써왔다. 즉,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의 성과와 의미는 지역주민, 공무원, 사회적경제 기업가, 자치구별 유관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만들며 함께 연대하고 쌓아온 경험과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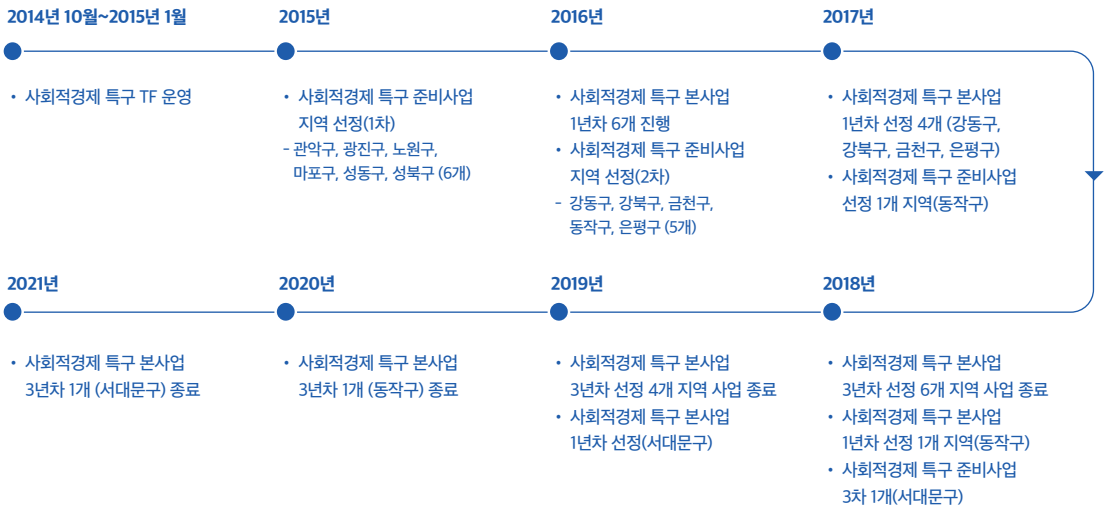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인적·물적 집적화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생산-소비-고용의 경제순환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따라 물적·인적자원의 집적화와 네트워크로 지역 기반 산업의 규모화와 외연을 확대하고, 지역문제 해결 및 고용 촉진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체감을 높이고자 추진하였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경제·사회 환경에 따른 의제 및 산업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화 사회적경제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태계 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내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고, 서울형 사회적경제 대표 분야 및 산업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에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별 인구 현황, 산업 구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2014년 10월 사회적경제 특구 TF 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 1차로 관악구, 광진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성북구 총 6개 자치구가 준비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 경과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지역자원 조사, 주체 형성,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가진 후 본 사업 심사를 진행하여 3년간 지원한다. 본 사업은 매년 지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본사업 참여 자치구의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2014년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사회적경제 특구 2018년까지 12개 육성”이라는 목표로 2015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12개 지역을 선정 완료하였고, 2021년 서대문구를 끝으로 사업을 순차적으로 종료하였다.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지역의 자원조사와 네트워크의 역량을 총망라하여 준비사업(6개월)-본사업(3년)으로 기존의 단기적인 사업 지원이 아닌 연차별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사회적경제 특구 추진단계

사회적경제 특구 준비사업	▶ 사회적경제 특구 본사업
• 사업계획 수립: 6개월 • 대상: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사업단 추진 중 또는 완료한 지역, 사회적경제 특구 민관협력 추진단을 구성한 지역 • 지역자원 조사, 주체 형성, 본사업 계획 수립	• 사업실행: 3년
※ 평가 후 본사업 지원	※ 매년 지원 평가 실시

서울시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그동안의 지원 방식에서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지역이라는 범위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의 생산과 고용으로 생활 양식을 바꾸는 도전이었다. 그 예로 관악 서로돌봄은 아이돌봄을 넘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 더 넓은 지역돌봄을 실현해가고 있다.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준비사업 6개월, 본사업 3년으로 약 5억 원이라는 예산 규모로 진행이 된다. 한 지역에 산업특구를 조성함에 있어 5억 원이라는 예산규모는 사회적경제 인적·물적 자원이 집약되고, 규모화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특구’라는 이름이 가진 위상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우선 의제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에서 시민이 경제의 주체로 참여토록 하는 등 서울 사회적경제가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주축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가진다.

자치구별 사회적경제 특구 운영 내용

선정차수	자치구	주요의제	사업 내용
1차	관악구	아이돌봄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서로돌봄 사업
	광진구	생애주기 돌봄	돌봄서비스 기반 협동사회경제 클러스터
	노원구	자원순환	되살림 사업연합을 통한 자원순환 네트워크
	마포구	문화·예술	홍대 앞 문화예술관광 비즈니스모델 구축
	성동구	봉제산업(패션)	지역 산업 현장 기반 소셜패션 생태계 구축
	성북구	지역재생	장위동 지역관리 기업 설립
2차	강동구	봉제산업(가죽)	가족패션 산업 협업체계 구축
	강북구	지역청년	강북청년 로컬비즈니스 클러스터
	금천구	교육	학교 기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구축
	은평구	지역재생	불광동 도시재생 지역관리 협동조합 구축
	동작구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형 마을관리 협동조합 (※본사업 변경)
3차	서대문구	문화·예술	로컬벤처 육성 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조성 협업과 교류의 지역 거점 열린 공간

2013년 4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혁신파크에 개소하며 ‘은평 협동허브’를 조성하였다. ‘은평 협동허브’는 센터의 사무공간으로서 의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제와 산업, 지식과 정보가 교류하고 인적·물적 자원이 집적되는 거점 공간이었다. 사회적경제 기업 사무실 입주, 사회적경제 제품 판매장과 같은 기능적 공간 외에도 다양한 주체의 네트워크, 교육, 강연, 토론회 등이 진행되는 공유공간을 조성하여 사람들이 모이고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왔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기업과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추진의 통합적인 접근과 협력은 더욱 긴밀해졌고,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연대하고 협업할 수 있는 집합적 거점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센터의 공간은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은평 협동허브 (2013~2023)

- 공간구성**
- 위치: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혁신파크
 - 공간구성: 입주기업 사무실, 사회적경제 전시공간, 휴식공간 및 네트워크, 교육 및 강의장, 센터 사무실



- 조성목적**
- 다양한 공용 공간을 조성하여 교류 행사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회적경제에 대한 진입 창구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주체 발굴 및 양성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 서울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일상적인 네트워크 공간을 제시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순환 촉진

- 사업추진 내용**
- 공간 기반 파트너십 : 사회적경제 기업 및 협의회 입주 사무실 지원, 교육장, 사회적경제 매장 운영 등 공용 공간을 이용하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지식과 인적 교류의 활성화를 촉진
 - 개방형 운영 :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전문 서비스 제공, 의제 공급, 혁신 가치 창출력 배양 등을 목적으로 교육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협력의 구심점 다양화



이 외에도 2014년부터 거점지역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에 생활기술융합 마포 문화비축기지, 소셜디자인 기술혁신랩과 같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공간지원을 위한 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하였다. 공동작업장 공간조성을 통해 공간이 필요한 기업에게 입주 지원을 함으로써 공간을 통한 집적 효과와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및 자연스러운 협업을 이끌었다. 마포 상암소셜박스에 입주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마포문화비축기지를 외부에 알리고 시민 공간으로 활성화되도록 지역주민들을 초대하여 기업 서비스 체험 행사(B-side) 운영 등 시민참여형 공간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세운상가는 소셜디자인 혁신랩을 통해 1980년대 메이커인 세운상가 기술장인과 21세기 청년개발자의 협업을 촉진하고, 기술·제조 기반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동작업장으로 자리를 잡았다.

마포 상암소셜박스(2014~2020)

- 공간구성**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661
 - 공간구성 : 작업장(목공, 철공, 직물 등 3~4개 분야 작업장과 자재 창고), 워크숍 공간(소규모 강의, 워크숍 등 진행이 가능한 교육장 및 카페테리아)



- 조성목적**
- 목공, 철공, 직물 등 마포 인근 생활 자원을 활용하는 창의적인 제작 노동자들 간 협력 촉진
 - 마포 인근 지역 사회적경제 주체의 협업 창출 및 제작 역량강화와 문화비축기지 시민참여형 공원 활성화에 기여

- 사업추진 내용**
- 입주기업 홍보 및 협업을 촉진하는 공간 활성화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필요에 따른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적기업 참여로 서울시민 대상 사회적경제 공간 관심도 향상 및 저변 확대



소셜디자인 기술혁신랩(2014~2020)

공간구성

- 위치 : 혁신파크 → 세운상가 내 아시아전자상가
- 공간구성 :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이 구비된 작업장, 교육장



조성목적

- 공동작업장 내 기술 간 융합, 사업 접목을 통한 이중 간 협동사업 활성화
- 지역 기술장인, 소셜벤처 등과 협업과 공동작업 활성화

사업추진

내용

- 3D프린터, CNC, 레이저커팅기 등을 활용한 시제품 개발 및 기획으로 기술-제조 기반 사회적경제 기업 역량 및 제품력 강화
- 혁신 기술 장비 및 R&D 기초 인프라 지원으로 제품 개발 비용 절감과 공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홍보 및 이용율 제고



2021년에는 가락 먹거리클러스터와 개봉 비대면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공간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과의 협력과 기술 교류의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힘썼다. 코로나-19 시기에 맞물려 비즈니스 모델 개선과 기업의 성과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회의실을 지원하였으며, 가락 청과물 시장 내 위치한 가락 먹거리 클러스터는 먹거리 산업 및 상품개발을 위한 공유주방 운영 등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였다.

가락 먹거리 산업 클러스터(2021~2023)

공간구성

- 위치: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 청과시장 내)
- 공간구성: 회의실, 입주기업사무실, 공용공간, 대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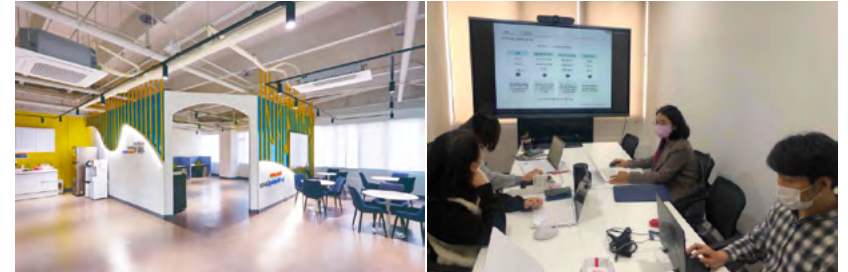
조성목적

- 가락물은 식품 산업의 집적지로 사회적경제 식품 관련 산업 육성
- 식품 및 먹거리 관련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시제품 개발 지원

사업추진

내용

- 입주기업 간담회, 교육 등 네트워크 활성화
-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 사업 기획 및 운영: 판로 개척, 홍보, 공유주방 시범 운영 등



개봉 비대면 산업 클러스터(2021~2022)

공간구성

- 위치 : 서울시 구로구 개봉로 23길 10, 개봉소공인드림창작소 내 5, 6층
- 공간구성 : 스마트 회의실, 스튜디오룸, 입주기업 사무실, 교육장 및 커뮤니티 홀

조성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경제 기업의 비대면 커머스를 위한 멀티미디어 구성 및 활용 지원
- 비대면 기술교육,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추진

내용

- 입주기업 간담회, 교육 등 네트워크 활성화
-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 사업 기획 및 운영: 판로 개척, 홍보, 공유주방 시범 운영 등



공간은 수많은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과도 같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마련하고, 아름답게 조성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머무는지,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따라 공간이 활성화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물리적 공간을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 자체가 공간인 셈이라 사람이 머무르지 않는 공간은 무의미해진다. 서울시 사회적경제가 주요 거점으로 형성한 공간은 단순히 인적·물적 자원의 집적을 넘어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협력과 연대의 현장으로 사회적경제 공간조성과 지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글. 임경수
협동조합 이장 대표/
브랜드북 COO

기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로컬비즈니스

로컬비즈니스의 개념

로컬비즈니스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 우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회적경제 지역화 사업에서 이야기하는 ‘로컬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흔히 로컬비즈니스는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는 인터넷 공간의 플랫폼사업이 특정 국가나 한정된 공간에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거나 국가나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지역에서의 청년창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같은 말을 쓰고 있는데, 이는 개인 상점이나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뿌리를 둔 점포형 비즈니스 혹은 동네나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⁰¹

이러한 로컬비즈니스와 사회적경제 지역화 사업의 로컬비즈니스는 조금 다른 듯하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로컬비즈니스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사회적자본 형성, 지역경제순환 등 용어를 그 목적이나 내용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커뮤니티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와 가깝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로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의 당면문제를 지속가능한 형태로 해결하려는 사업이다.⁰² 1981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Community Business Scotland’가 이 용어를 사용하며 영국에서 활성화되었고, 1990년대 일본에서도 이 개념을 받아들여 여러 사례를 만들었다.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정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역 유휴인력의 고용

01.
[미트마켓터 김박사의 미트리터러시
아웃집 사진](#)

02.
[네이버국어사전](#) 최근 이 말을 창업 분야
에서 동네나 지역에서 충성도가 높은 고객
을 만드는 비즈니스로 사용하기도 한다.

창출, 지역주민의 생산과 소비에 의한 지역경제순환,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고취, 공동체 기반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수익 창출로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사회적경제 지역화 사업의 로컬비즈니스와 유사하다.

물론 커뮤니티비즈니스는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적 가치의 실현, 의사결정과 수익배분에 있어 민주적 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와도 유사하다. 사회적경제의 사업 주체는 법인격을 가져야 하고 인증, 허가, 승인의 과정이 엄격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이 쉽지 않고, 사회적경제의 범주 안에는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국적 사업, 더 나아가 글로벌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적경제 지역화 사업의 로컬비즈니스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되 추후 사회적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주체를 양성하고 이러한 주민 활동이나 사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략적인 사업이라 볼 수 있다.

로컬비즈니스의 전략과 사례

로컬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는데 세 가지 전략이 있다.

첫 번째는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방법이다.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정석이라 할 수 있다. 완주군 고산면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아이들의 취미나 특기를 만들기에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지원을 바탕으로 고산폴뿌리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역 내 학교를 연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지역의 수요를 확인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 홍성군 홍동면에 젊은 귀농·귀촌인과 아이들이 많아져 빵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학부모들이 모여 제빵사를 구해 제빵점을 시작했다. 무인 가게도 시작한 이 가게는 농산물도 팔면서 로컬푸드 매장, 주민 쉼터로 자리 잡았다.

세 번째 방법은 내가 잘하는 것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지 상상하는 것이다. 완주군 고산면의 귀촌한 전직 신문기자는 마을사무장을 하면서 자기 경력을 활용해 좋은 소식만 신는 월간지 <완두콩>을 창간했다. 초기에는 수익을 내지 못해 자원봉사 동아리처럼 신문만 만들던 이 협동조합은 이후 단행본도 만들고 완주미디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로컬비즈니스가 지역사회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려면 추가적인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첫 번째 전략은 지역의 작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비즈니스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다. 춘천 시니어클럽의 콩나물사업단은 적정수익을 기반에 둔 생산 규모를 정한 후 이를 팔기 위해 큰돈을 쓰며 홍보하지 않았다. 인근의 마트에서 하루에 팔릴 수 있는 콩나물의 수요를 하나씩 확인하며 그에 맞추어 공장의 생산을 확대했다. 그렇게 지역의 작은 수요에 맞추어 비용을 절감하며 자리를 잡았다.

두 번째 전략은 ‘빈 고리 채우기’이다. 서천에서는 자연산 생선이 많이 잡히는 5월에 ‘깡어도다리축제’를 한다. 횡집이 모여 부스를 만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회를 팔았다. 그런데 식사 끝에 나오는 매뉴인 매운탕에 들어가는 미나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곳이 지역에 없어 매년 다른 지역에서 미나리를 공급해오곤 했다. 서천의 자활센터는 이러한 빈자리

를 인식하고 미나리를 생산해 지역경제에 비어있던 고리를 채웠다.
세 번째 전략은 ‘알까기’이다. 한가지 로컬비즈니스가 자리를 잡으면 연계된 분야의 비즈니스를 자회사 만들 듯 연결하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춘천의 시니어클럽은 콩나물공장이 자리를 잡자, 콩 농장을 만들고 콩나물 밥집을 만들었다. 콩 생산, 콩 음식점으로 콩나물공장의 전후방을 연결한 것이다.

로컬비즈니스의 필요성

지역사회에 로컬비즈니스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일할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산업적 자리는 정해진 근로 시간과 딱딱한 근로조건을 제시한다. 이에 적응할 수 없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 경력이 단절된 여성, 아이와 가정을 돌봐야 하는 홀로 가장, 다양한 삶의 의미를 찾고 있는 청년들에게 적절한 일자리가 아니다. 로컬비즈니스는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 지역의 사업영역이었던 두부, 콩나물 등의 식품 가공, 생활필수품의 유통, 작은 외식업 등도 대형마트가 흡수하고 프랜차이즈로 기업화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러한 특성을 가진 일자리는 더 많이 없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공공의 실패, 시장의 실패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의 수요가 많아졌다. 공공이 추진하기에는 전문성이 없거나 효율이 생기지 않고 기업에 맡기기에는 수익성이 부족한 분야에서 지역주민의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마을에서 혹은 공동체 방식으로 그 필요를 스스로 해결했지만, 마을과 공동체의 역할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교육, 복지, 문화예술, 환경 등의 분야뿐 아니라 식량, 주거, 의료 등 생존과 관련된 분야까지 공공의 실패, 시장의 실패는 일어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의 순환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우위에 의해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이식한 지역경제는 그 산업에서 생산한 것을 팔아 돈을 벌지만, 지역에 필요한 것을 다른 지역에서 사는 구조가 만들어져 국가 경제에 예속되었다. 그래서 지역경제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 영향을 받고 지역에 이식되었던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 큰 타격을 입는 등 취약해졌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를 감당하는 작은 산업과 비즈니스를 통해 자본의 유출을 막고 산업간 연계, 비즈니스 사이의 연결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돈이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 순환하는 경제가 만들어지면 순환하는 돈이 불어나는 승수효과까지 있으며 대기업에 자본이 집중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네 번째로 노동과 삶이 분리되고 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라 했지만 현대에 있어 노동은 자본이 돈을 불리는 일을 하는 위치라 할 수 있다. 노동을 통해 자아를 확인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며 보람과 행복을 찾기 어려워졌다. 그래서인지 일과 삶의 균형이라도 찾으려 한다. 로컬비즈니스는 친숙한 이웃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 사업을 하므로 일을 통해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로컬비즈니스를 품은 지역의 유연함은 전문성이 부족하더라도 일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며 로컬비즈니스의 다양한 근무 형태는 다른 분야의 탐색과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서울의 로컬비즈니스 활성화 방안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지역화 사업으로 추진한 로컬비즈니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체계적으로 이어진 주민발굴, 교육, 조직, 창업, 모니터링, 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창업을 중심으로 이전 단계를 전방 시스템, 이후 단계를 후방 시스템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후방 시스템에 관심이 적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도 그러하다. 서울시 로컬비즈니스의 후방 시스템의 하나는 사회적경제와의 연계인데 사회적경제로 성장하지 않는 로컬비즈니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적경제 기업을 원하지 않거나 될 수 없는 동아리와 비슷한 사업도 그 나름의 역할을 한다. 또한 전후방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칸막이를 넘나들며 지원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적절한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로컬비즈니스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지원의 명분은 충분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대부분이 기업의 성장이 J-커브를 그리는데 자본력과 시장 대응력이 일반 기업에 못 미치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로컬비즈니스는 J-커브의 밑바닥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그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공조달의 연결, 기업과 상품에 대한 공공의 보증, 저금리 혹은 무이자 대출 등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부동산 비용을 고려, 창업 초기 저렴한 임대료의 공간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J-커브의 골짜기 깊이를 낮추어 빠른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셋째, 민간에서는 사회적자본을 늘려야 한다. 모든 비즈니스는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듯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반 비즈니스도 그에 맞는 생태계가 있다. 로컬비즈니스의 바탕은 지역사회의 건강성이다. 지역주민이 다양한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이를 통해서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마을에서,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 로컬비즈니스에 도전할 때 이 일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를 응원할 수 있어야 한다.

각자도생하기도 힘든 시민들과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끝으로 제안하자면 시민들이 행복한 마을, 건강한 동네, 바람직한 지역사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하자. 여러 경험상 누가 모이든 어떤 방식으로 모이든 다수가 모여 내린 결론은 비슷했다. 로컬비즈니스를 통해 시민이 스스로 그린 마을, 지역사회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시작이 될 것이다.

경계에서 자라다

시장은 재화·서비스(용역)가 거래되고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물론, 자원의 교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장소이다.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 상황, 세대 등 사회·환경에 따라 소비문화는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가치소비가 대표적인 소비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가치소비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격이나 만족도 등을 세밀히 따져 소비하는 성향을 일컫는다. 가치소비가 확산한 데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 소비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의 세대교체, 사회·환경의 위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문화가 형성하기 전부터 민간시장에서 소외된 문제와 공공 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민간과 공공의 경계 속에서 그 자리를 곳곳이 지켜왔다. 서울은 사회적경제라는 가치 아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간과 노력, 새로운 시도들로 가치와 임팩트 중심의 교환과 거래가 일어나는 시장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시장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역량을 개발하며 자원을 조달하고 연계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좌담	사회적경제 경계를 넘어 자라나다
기업성장	사회적경제 기업성장 간접지원체계 구축 신규 사업모델 발굴 및 전략사업 지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시장형성	사회적경제 가치소비 활성화 공공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활성화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확대와 역량 강화
기고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목적'과 '균형'에 주목하라
자원연계	사회투자기금 조성 서울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
기고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서 사회투자기금이 갖는 의의

사회적경제 경계를 넘어 자라나다

일시

2023. 8. 30.(수) 15:00~17:00

참석자

최희진 (췌어스맨 대표(좌장))

김정식 세상에없는세상 대표

노정은 도시마을협동조합 대표

신윤예 (췌)공공공간 대표



2011년 말 서울시와 시민사회는 사회적경제를 고용 창출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양적 확충 정책에서 벗어나자고 합의하며 '서울 시민의 행복도 제고와 경제민주화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서울의 사회적경제 지원은 매년 진화해왔다. 개별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중심에서 자생력과 지속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으로 사회적경제 정책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것은 물론, 기업 중심 생태계 조성에서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로 한 걸음씩 나가면서 서울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엔진 역할을 해왔다. 매해 경계를 넘으며 진화했던 센터의 지원사업이 10년을 맞았다. 이에 다년간 센터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파트너십을 맺어온 사회적경제 기업들과 함께 지난 지원사업에 대해 평가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적·재무적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 방향을 이야기 나눠 보았다.

최희진 — 저는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회사생활에 재미를 붙이지 못하다 우연히 공정무역을 알게 되었어요. 재미와 의미를 중요시하는 내가 가장 나답게 할 수 있는 일이 공정무역이라는 걸 깨닫고 2011년 공정무역 기업인 어스맨을 시작했죠. 어스맨은 파키스탄 소작농들이 공정무역 방식으로 재배한 건과일과 라오스 수공예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재미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기에 돈과 상관없이 10년 넘게 즐겁게 일해왔고, 그 과정에서 좋은 파트너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김정식 — 세상에없는세상은 올해로 설립 9년차 기업입니다. 가치소비 시장의 확장을 위해 지금까지 공정여행, 공정무역, 친환경 제품 브랜드 론칭 및 플랫폼 운영 등 11개 소셜브랜드를 만들어왔어요.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건 주주에게만 이로운 기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 직원들에게도 이로운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했기 때문이죠. 기업 내부에서부터 사회적기업가를 배출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창업을 도우며 내부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이 외부로 확산되도록 도왔습니다.

신윤예 — 저희는 2011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1기로 시작했어요. 공공공간은 지역 기반의 소상공인들과 창작자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디자인하는 비즈니스모델로 시작하여 지금은 이를 기반으로 제로웨이스트 패션 브랜드, 굿즈 플랫폼 등을 아우르는 종합디자인 회사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창업 후 10년이 넘으면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이 무엇일까 돌아보면, 처음 해보는 사업에도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기회를 잘 포착했던 게 그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업 속에서도 제로웨이스트와 소상공인 협력과 같은 중요한 가치는 어떤 프로젝트에든 녹여내려고 노력했던 지점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중요한 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정은 — 도시마을협동조합은 2014년 설립된 마을기업이에요. 동네에서 은퇴 없는 회사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강서구에서 도시해충방역사업으로 시작했어요. 마을기업을 바라볼 때 '주민들이 모여 만든 마을 기업 상품은 질이 떨어진다'든지 '지원사업에만 의존해 자생이 어려운 기업'이라는 시선에 자존심이 상했던 적이 많아요. 그래서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가능한 성공 모델을 만들어 기존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자는 목표를 세웠죠.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연간 1,000여 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당장 매출에 도움 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사업의 기회라 생각하고 센터 지원사업 등 여러 사업에 참여했던 것도 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 기업에 성장 동력 되어준 서울시 지원사업

최희진 — 소개를 들어보니 모두 오랜 기간 기업을 운영한 분들이네요. 사회적경제 기업을 운영하며 기업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의 도움도 받았을 듯한데요.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지원사업은 무엇인지 얘기해봤으면 합니다.

신윤예 — 저는 센터에서 진행한 컨설팅사업들이 기억에 남아요. 2022년 공공판로 컨설팅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시간이었거든요. 기존에 저희 공공공간의 경우 B2B 사업만 했는데, 이 컨설팅에 참여하면서 공공판로지원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좋은 사업인데 생각보다 기업들이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까웠죠. 공공공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창업 초기 참여했던 2015년 핸드메이드페어 사회적경제 팝업스토어 지원사업도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접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어요.

센터에서 진행한
마을기업 대상 지원사업이
기업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어요.

노정은

노정은 — 도시마을협동조합은 센터가 마을기업지원기관으로 있었기에 조금 케이스가 다를 것 같은데요, 센터에서 진행한 마을기업 대상 지원사업이 기업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되었어요. 기업 매출 측면에서는 공공판로지원사업의 일환이었던 공공구매 상담회가, 기업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데는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제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공동체 형성이 어려운 도시에서 마을기업으로써 커뮤니티 기반의 사업 분야를 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행히 센터의 지역의제 사업을 통해 타업종의 기업들과 지역의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고 논의하면서 새로운 사업 분야를 고민하고 실험할 수 있었어요. 청소방역위생 서비스로 시작했지만 이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비즈니즈모델을 기반으로 해충방제 제품 개발생산, 환경교육, 컨설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어요.

공공판로지원사업도 큰 도움이 된 사업이에요. 자치구와 같은 공공기관은 진입장벽 자체가 높아서 작은 기업의 경우 초기 시작이 어렵죠. 센터에서 진행한 공공구매 상담회가 이런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해줬어요. 공공구매 상담회에 참여해 사회적기업으로 공공기관들과 한 차례 만남 후 방문했을 때 훨씬 신뢰도가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실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곳도 꽤 있고요. 코로나-19 확산 후에는 온라인상담회로 바뀌었지만 그것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은 교육사업으로 변경되어 아쉬워요.

김정식 — 세상에없는세상이 외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 센터 지원사업은 유통채널 육성사업(소셜밴더)이었어요. 초기 친환경·제로웨이스트 유통 플랫폼을 런칭했을 때 40여 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사회적경제 기업과 120여 개 상품을 유통했어요. 코로나-19로 온라인 판매플랫폼이 늘기도 했고, 오픈 초기였기에 당시에는 기업들이 입점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센터의 유통채널 지원사업을 통해 프로모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며 입점 기업이 150여 개로 확대되고, 제품군도 350개로 늘었어요. 그 결과 매출도 2배나 증가해 사업 확장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통사의 매출 증가는 자연스럽게 입점한 사회적경제 기업의 매출 증대로도 이어지는 성과를 낳았죠.

유통채널 육성사업이 기업의 외적 성장에 도움을 주었다면, 작년에 참여한 마케팅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은 내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광고 효율화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이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지원기관에서 진행하는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진행했던 컨설팅은 그런 우려를 한 번에 불식시켰어요. 6명 직원이 같이 5회에 걸쳐 받았는데, 8년 창업 이래 가장 내부 역량이 쌓인 시간이라 자부합니다. 심지어 한 직원은 자신의 진로까지 온라인 마케팅 분야로 변경할 정도로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어요.

최희진 — 저희도 2019년에 컨설팅을 받아 많은 도움이 있었어요. 사회적경제 현장과 현업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주는 컨설팅은 기업에도 큰 도움이 되는 듯해요. 컨설팅사업이 성공하려면 좋은 컨설턴트 풀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기업들도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 시너지가 난다고 봅니다. 컨설팅은 기업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아쉬운 점은 컨설팅 후에는 구체적인 필요에 대한 만족도나 수요 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업 초기에 센터에서 진행한 민간시장 판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유통채널 입점 지원을 받았던 게 기억에 남아요. 사회적경제 기업과 같이 상품은 있지만 규모가 작은 기업은 대형 유통채널의 MD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당시 그런 현상의 어려움을 반영해 센터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상품 품평회 및 유통채널 입점 지원을 했는데, 그때 연결된 전문 MD에게 제품에 대한 평가를 듣고 수정하고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맺어진 관계망의 도움으로 식품 사업을 시작한지 2년 차에 백화점, 유기농 매장 등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고, 3년 차에는 대중적인 유통채널 진입에 성공했어요.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진출하고 물꼬를 트는데 지원사업의 역할이 컸던 셈이죠.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진출하고
물꼬를 트는데 지원사업의
역할이 컸던 셈이죠.

최희진

이날 좌담에 참여한 4개 기업은 모두 서울시에서 10년 전후로 기업을 운영하며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자원이 없어 고군분투했던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어떻게 매출을 늘릴지, 판로는 어떻게 확대해갈지, 조직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던 그때, 판로지원, 컨설팅, 경영지원 등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지원사업이 큰 힘이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날 좌담 참여자들은 비슷한 시기 기업을 창업하고 어려운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온 터라, 서로 공감대가 많았다. 각자가 경험했던 위기와 이를 극복했던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공감의 꼬덕임을, 기업 운영 과정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공유할 때는 존경을 담은 눈빛과 스스럼없는 박수를 보내며 서로를 격려했다.

기업 성장의 주체는 ‘사람’, 사람에 투자하는 지원 기대

신윤예 — 지원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의 비즈니스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 또 하나는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지원사



업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창업자의 네트워크 확장을 돕는 사업에서 많은 힘을 받았어요. 특히 기업에 닥친 위기로 사업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런 네트워크에서 만난 동료 기업들이 큰 위로와 함께 사업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줬어요. 센터 사업은 아니지만 기억에 남는 기업가 지원사업은 프랑스 기업인 까르띠에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할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전 세계적으로 진행해온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까르띠에 여성 창업 이니셔티브’예요. 여성 리더가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하고 서로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시간이 제게는 무척 뜻깊었어요. 한국에도 비슷한 형태의 지원들이 있지만 네트워크 파티라는 이름의 이벤트 행사로 끝난다는 게 아쉬워요.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가고 발전적인 사업과 정책으로 변화하길 바랍니다. 10년이 된 센터도 이곳을 거쳐 간 많은 사람을 어떻게 네트워크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인 듯해요.

창업자의
네트워크 확장을 돕는
사업에서 많은 힘을
받았어요.
신윤예



노정은 — 앞서 얘기하신 부분 크게 공감합니다. 마을기업 컨설팅에 저희는 선배 마을기업 대표님을 멘토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같은 경험을 가진 분이 컨설팅하거나 조언했을 때 더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으니까요. 작년에 마을기업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발표회를 하면서 멘토링 사업의 사례 공유를 넘어 어느새 사업 이야기로 확장되고 협업의 기회가 생겼어요. 그런 자리들이 정기적으로 있으면 좋겠고, 네트워크가 생산적이면서도 사업의 새로운 기회가 되는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최희진 — 맞아요. 특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기업들은 선배 기업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큰 도움이 돼요. 저는 서울혁신파크에서 진행한 분야별 네트워크가 기억에 남아요. 같은 분야다 보니 공감대도 크고, 새로운 곳과 협업 기회도 생겨서 좋았어요. 서로 밥만 먹는 수준이 아니라 더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리여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향후 네트워크 모임을 준비할 때 사람들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모임 내에서 각 참여자의 역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심하고, 실제적인 필요와 논의가 가능하도록 기획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민간은 자생력 높이고, 행정은 사회적경제 인식 변화에 앞장서야

최희진 —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에서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로 전환하면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로 서울 시민의 생활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을 제시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이 지속가능하고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펼쳐야 할지 얘기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공정무역을 얘기할 때 시민들이 너무 무겁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좀 안타까워요. 물론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현장의 어려움에 기반해 있지만 그곳 또한 주민 삶의 현장이자, 인류로서 존재로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여전히 시민사회 활동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는 듯해 공정무역 1세대로서 반성이 듭니다.

신윤예 — 저는 사회적경제 방식을 취하는 기업이나 기업 가치에 대해 프레임이 생긴데는 미디어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그런 관점으로 기사가 한번 나가면 계속 그런 분위기의 기사들이 양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에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최근 정부와 언론이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마치 세금 낭비 사업으로 규정하는데도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워요. 사회적경제에 덧씌워진 부정적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으면 해요. 또한 자아실현, 미닝아웃과 같이 가치소비에 관심 있는 젊은 세대에 맞게 hip하면서도 옛지있는 채널들과 함께 긍정적인 여론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노정은 — 저는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기업 인증이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야 한다고 봐요. 사회적경제 기업답게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인증이나 지정이 취소되는 것이 당연시되어야 기업들도 자기 검열을 강화하고, 건강한 기업을 만드는데 더 노력할 거라 봅니다.

김정식 —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기업들 스스로가 자기반성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사 제품의 차별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보다, 정부의 우산 속에서만 생존하려 하진 않았는지?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에 머물고 있진 않은지? 그런 자기반성이 없다 보니 외부에서 볼 때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은 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생긴 거라 봐요. 소비자가 제품 및 서비스가 좋아서 사용하다 보니 그게 사회적기업이고 공정무역이라는 인식이 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도 사회적경제에 스타기업이 없다는 건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최희진 — 맞습니다. 파타고니아처럼 건강하고 탄탄한 기업이 강력한 브랜드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브랜드 자체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으면 전환이 더 빠르겠죠.

신윤예 — 주목받던 기업들이 어느 순간 사회적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내려놓는 걸 많이 봤어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스타기업이 없는 이유가 사회적경제에 대해 ‘세금 잡아먹는 기업들’과 같은 부정적 프레임이 씌워졌을 때 공공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나 그러면 사회적기업 안 할래, 소셜벤처 할래’라며 떠나는 거죠. 그런 부정적 프레임을 긍정적 프레임으로 바꾸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앞서 최희진 대표가 “컨설팅사업이 성공하려면 좋은 컨설턴트 풀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 기업들도 우리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시너지가 난다.”고 말한 바 있다.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행정과 지원조직이 사회적경제 기업과의 관계를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뛰는 협력(파트너) 관계로 만들어간다면 지원사업의 효과 또한 두배, 세배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사회적경제에
스타기업이 없다는 건
우리 스스로 반성해 볼 지점이라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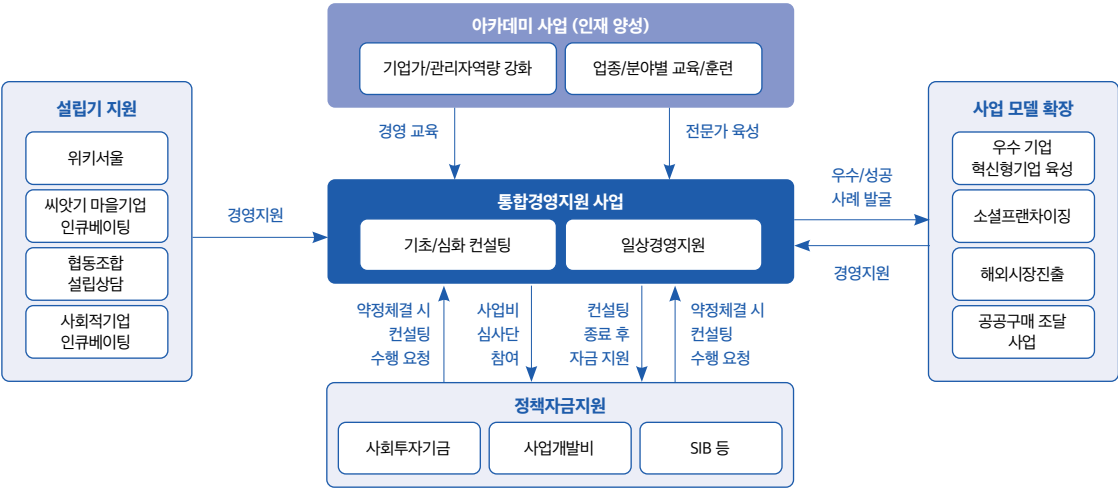
김정식



사회적경제 기업성장 간접지원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돕다

2011년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설치 후, 서울시의 초기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사회적기업 창업에 집중되었다.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지원을 정책적 기조로 삼은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업의 특성(재무적·비재무적 성과 창출)을 고려하지 않은 성장 지원의 부재는 여러 문제를 낳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3년 센터를 개소하고, 부문별 인증 및 육성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창업 이후 기업 성장과 비즈니스 모델의 안착을 위한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을 위한 간접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업 이후부터 성장기까지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 필요에 맞는 사업개발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립을 견인하고자 함이었다.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애주기별 지원사업



(출처: 2011-2015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5년 성과 및 향후 과제)

이를 위해 2014년 통합 경영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단계를 <준비기-창업기-성장기-성숙기>로 설정하고 부문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로 진행한 컨설팅과 회계·법률 일상 경영지원을 성장단계나 기업 수준을 중심으로 한 통합 컨설팅 체계로 재구성하여, 현장 기업의 성장 시기별 필요에 맞는 양질의 경영지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업 경영 준비 및 창업단계의 기초과정에 필요한 컨설팅,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성장기 기업 대상 전문·심화 컨설팅 진행으로 이어졌으며, 그 외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회계·법률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상 경영지원과 멘토링을 추진하였다. 또한 컨설팅 사업에 분야별 전문가가 매칭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사회적경제 컨설턴트 및 멘토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연도별 사회적경제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내용

구분	세부내용	성장단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컨설팅	부문별 컨설팅	-											
	심화/전문 컨설팅	성장기/성숙기											
	기초 컨설팅/경영 멘토링	설립단계/창업기											
일상 경영 지원	회계지원	창업기											
	법률지원	창업기/성장기/성숙기											
	IT지원	창업기/성장기/성숙기											

2019년 이후 컨설팅 사업은 기업 성장을 위한 심화·전문 컨설팅으로, 성장기와 성숙기의 기업 맞춤 역량 강화로 집중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개선 및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으로 변화, 다양한 판로개척을 위한 맞춤형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 체감도 향상과 사회적경제의 문제해결력 강화를 위한 전략분야 육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임팩트 확산을 위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와 성장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였다.

2022년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내용

1. 경영전략	
1-1. 임팩트 비즈니스모델 전략 수립 1-2. 기업분석/경영전략/재산권(특허권 외) 1-3. 청년 커뮤니티 기반 사업기획	1-4.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 개발 1-5. 신규사업(서비스) 개발 1-6. 사회적 가치 측정 및 관리체계
2. 경영관리	
2-1. 회계 2-2. 세무	2-3. 재무분석 및 개선 2-4. 사회적금융(자금) 연계
3. 마케팅/홍보관리	
3-1. 마케팅전략 3-2. SNS/디지털마케팅 3-3. 미디어콘텐츠 제작(미디어/그래픽) 3-4. 온라인 콘텐츠(상세페이지) 제작	3-5. 상품 브랜딩(패키징 개선) 3-6. VMD(Visual Merchandiser) 3-7. 그로스해킹 3-8. 판매/판로개척 3-9. 클라우드편딩
4. 공공시장 및 서비스 업종 특화	
4-1. 공공조달 진입 및 확대 전략 4-2. 문화·예술·관광 분야 사업 전략 4-3. 스포츠 분야 사업 전략	4-4. 의료·보건 분야 사업 전략 4-5. 돌봄 분야 사업 전략 4-6. 교육 분야 사업 전략
5. 특수분야	
5-1. R&D 5-2. 인증(ISO, 벤처 인증, 식품 인증 등) 5-3. 먹거리 비즈니스모델 개발	5-4. HACCP 인증 5-5. 먹거리 레시피 개발 5-6. 그 외 분야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에 있어 컨설턴트단을 구성하는 것은 컨설팅 사업의 만족도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에 분야별 컨설턴트 공모로 컨설턴트단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을 우선으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단계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하고 실제 기업이 신청한 컨설팅의 필요성과 문제에 대해 사전진단을 진행하여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상의 필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컨설팅으로 연계한다. 컨설팅 수진기업 선정 후 컨설턴트와 매칭이 진행되며, 컨설턴트는 사전 미팅으로 수진기업의 컨설팅 목표와 성과지표를 협의하여 컨설팅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센터는 실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센터-수진기업-컨설턴트 간의 협약을 진행하는데, 이로써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회적경제 컨설팅 운영 절차 및 주체별 역할

	컨설턴트 모집 및 선정	▶	컨설팅 수진조직 모집 및 사전 진단	▶	컨설팅 수진조직 선정 및 기초계획 수립
센터	• 모집 및 컨설턴트 심사·선정 • 선정 컨설턴트 대상 컨설팅 안내		•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사전 진단 (대면·비대면)		• 컨설팅 수진조직 심사·선정 • 컨설턴트 매칭 및 기초계획서 수립 • 수진조직 대상 컨설팅 안내
수진조직	-		•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컨설팅 사전 진단 협조
컨설턴트	•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

	컨설팅 실행계획 수립·논의 확정, 협약	▶	컨설팅 실행 및 모니터링, 중간보고	▶	최종보고·평가
센터	• 컨설팅 매칭 및 절차 안내 • 컨설팅 실행계획서 검토 • (필요시) 자문단 운영 • 실행계획서 확정 및 협약		• 현장 모니터링 • (해당 시) 중간보고 점검		• 최종보고 검토·평가 • 만족도 조사 • 우수사례 발굴·활용 • (필요시) 자문단 운영
수진조직	• 컨설팅 실행계획 확인		• 컨설팅 중간보고(해당시)		• 만족도 조사 • (필요 시) 우수사례 인터뷰
컨설턴트	• 매칭 수진조직 사전 미팅 • 컨설팅 실행 계획 수립·제출 • 성과지표 협의 및 협약		• 컨설팅 실행 • (해당 시) 중간보고		• 최종 결과보고 • 비용 지급 서류 제출

서울시 사회적경제 경영지원원은 초기 통합경영지원으로, 창업기·성장기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상시적인 사회적경제 경영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바로 파악하고 대응하여 창업기·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경감시켰다. 이후 사회적경제 기업이 가진 임팩트 확산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선, 판로 확대를 위한 자체 역량강화 컨설팅 등 구체적이고 실무에 필요한 컨설팅 역량 강화가 가능하도록 매칭하고자 수진기업 사전진단시스템 구축 및 운영, 컨설팅 만족도 조사 등으로 매년 컨설팅에 참여하는 기업과 컨설턴트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규 사업모델 발굴 및 전략사업 지원
사회문제, 한발 앞서 읽고 대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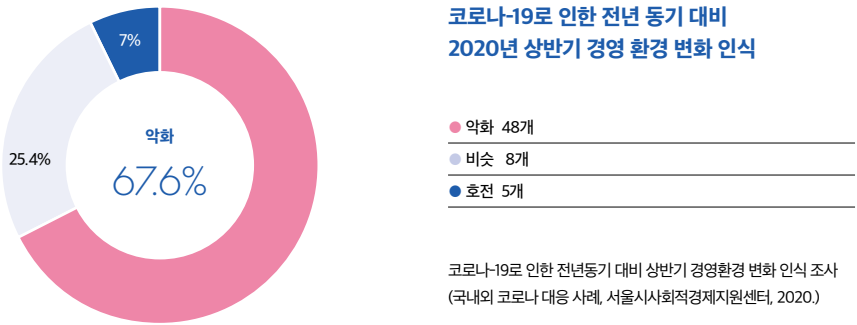
사회적경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는 다양한 필요와 욕구가 연결되어있고, 다분야의 유기적인 연결로써 사회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개선과 신규사업 모델 발굴을 통한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이종·동종 간 협력사업으로 시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정책과 연결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임팩트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고 비즈니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동돌봄, 노인돌봄, 공공급식 등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앙정부의 정책에 앞서 해당 업종의 기업들이 준비할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욕구가 시민의 필요와 결합하여 시민공제라는 새로운 정책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전략사업 추진 내용 (2015~2018)

년도	전략분야	주요내용
2015	아동돌봄	• 사회적경제 방식 아동돌봄 보육 모델 제시 • 지역사회 신뢰 기반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행복중심동북생협(노원구), 한살림서울(강동구)
	노인돌봄	• 노인돌봄 설립모델 설립 및 자치구 단위별 민간추진단 조직 • 자치구별 데이케어센터 설립을 위한 자치구 교섭 및 공간확보 방안 마련
	주거/도시재생	• 사회적경제 통한 사회주택 공급역량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 사회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 서울시-사회주택협회-4대생협(아이쿵, 한살림, 행복중심, 두레), 도시재생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식아동 공공급식	• 결식아동 도시락 생산·배송 사업모델 개발 및 인프라 구축: 자치구 기반 시범사업 5곳 추진 (구로구+서대문구+은평구/성동구+중구)
	패션봉제	• 2017년 동대문 패션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한 사회적경제 참여 모델 개발
2016	도시재생	• 세운상가 사회적경제 도심제조 협력모델 구축: 기술 기반 사회적경제 공동작업장 및 세운상가 옥상공간 사회적경제 운영방안 수립
	사회적금융	• 사회적경제 기업 공제사업 수요조사 및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및 모델 개발
	클러스터	•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클러스터’ 시범모델 및 추진계획 수립
	지역돌봄	• 돌봄사업 예비특구(성북구, 광진구) 지역 기반 노인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시범운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협력)
2017	규모화	• 마을 기반 프랜차이징 확산 지원 사업: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먹거리 프랜차이즈 전략모델 확산체계 구축
	비즈니스 고도화	• 사회적경제 협동비즈니스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기업 간 교류협력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비즈니스 지원
	지역돌봄	• 사회적경제 통합돌봄서비스 확산 인프라 구축: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노인통합 돌봄서비스 시범사업
	지역경제	• 서울시 특화거리 조성 연계 사회적경제 주민참여 모델 개발 • 사업지역/분야 : 석촌동 고분군 일대 / 한성백제 관련 역사문화 상품 개발
	전략발굴	• 사회적경제 신규 사업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수립 -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 자금 수요조사를 통한 사회적금융 발전방안 수립 - 민관협력 공공임대형 코워킹커뮤니티 시설 조성 및 운영사업 계획 수립

년도	전략분야	주요내용
2018	지역돌봄	• ‘돌봄SOS센터’의 사회적경제 연계 모델(사업명: 우리동네 나눔반장) 개발
	소상공인 지역경제	• 서울 도심제조업 사회적경제 협업 모델 발굴: 성동구(수제화), 중구(인쇄), 중랑구(패션봉제)
	사회적 금융	• 사회적경제 공유자산 형성 공제금융 모델 개발 • 시민주도·시민 편익 중심의 보험 및 공제 모델 개발 기초연구 진행
	도시재생	• 생활서비스·지역관리 경제 모델: 생활권 단위 스몰비즈니스 및 공간 자립 운영 지원 •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 2018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온동네 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 8개 마을 대상 전문가(멘토) 매칭 및 컨설팅 지원
	노동	• 사회적경제 노동연대 및 일자리 연계 모델 개발사업 - 노동통합형 신사업 분야 및 사업모델 개발: 장애인 노동통합형 신사업모델 개발 - 봉제·이동노동-사회적경제 협력사업 : 불안정 노동자를 위한 공제모델 개발 - 플랫폼 경제·노동 집중 간담회 : 플랫폼협동주의(플랫폼협동조합)에 근거한 사회적경제 대안 모색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발표 이후, 정책 간 연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임팩트 확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의 정책 사업을 견인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주민 주도의 고용 촉진으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대면 비즈니스 중심의 사회적경제 기업 활동에 위기가 닥쳤다. 모임과 활동이 금지되어 오프라인 중심의 판로가 막히고, 비즈니스모델의 운영이 어려워졌으며, 온라인 시장으로 빠른 전환이 필요함에도 일반 시장에 비해 온라인 기술력과 정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대부분의 수익모델이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 중심의 사회적경제 기업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이에 코로나로 야기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코로나 대응 비즈니스모델 및 전략 개발을 지원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로 기후문제와 글로벌화,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한 소외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비대면 사회에 적합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한 예로, 시민액션플랜은 시민들의 생활 고충과 어려움을 청취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를 해결하는 기업과의 매칭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민과의 접점을 넓히고, 시민들은 사회적경제 방식의 문제해결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전략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노동, 불평등, 취약계층의 위기에 대해 협동과 호혜, 연대의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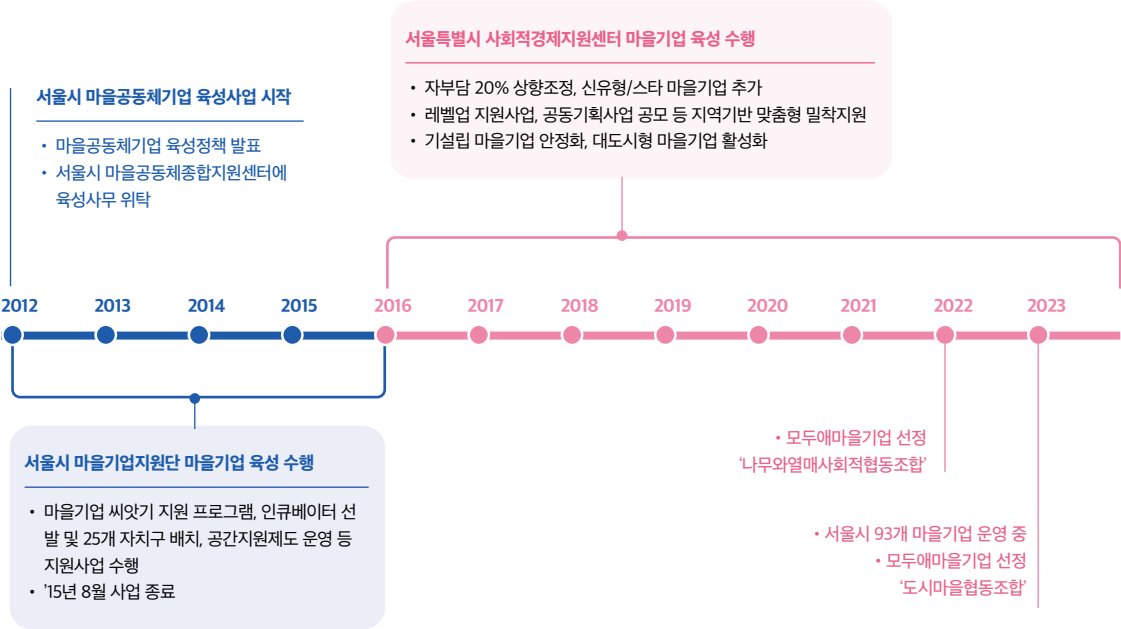
년도	전략분야	주요 내용
2019	규모화	• 사회적기업 간 사업연합 활성화로 문제해결력 강화 및 규모화 • 10개 협업모델 지원: 도시재생, 인쇄제조, 테크, 도시양봉, 지역경제, 시민공제 등
	도시재생	• 도시재생기업(CRC)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 대상지: 천연충현마을협동조합, (사)강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 사회적경제 및 지역순환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교육
	지역돌봄	• 커뮤니티케어 사회적경제 시범사업 • 우리동네나눔반장 선행/실증사업 지원: 5개 자치구(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 • 우리동네나눔반장 표준실행모델 개발연구
	사회문제 해결	•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제안 및 실행 • 자립지원(은둔형외톨이), 식품 물류 효율화, 장애·비장애 통합, 고령화
	소상공인 협업	• 도시제조업 협업 활성화 추진단 운영: 봉제, 수제화, 인쇄출판업 등 도시제조업 협업 촉진
2020	규모화	• 사회적경제 기업 스케일업 지원 : 사회문제 해결 혁신 아이디어 실행 및 성장 지원 • 주요 지원내용: 기술융합 노인인지 개선 , 공정무역 상품개발, 공유미용실 플랫폼 개발 , 폐자원 활용, 취약층 청소년 외식창업 콘텐츠 개발, 암 환자 동행 서비스
	코로나	• 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임팩트 확장 • 주요 지원내용: 국내 여행, 커뮤니티케어, 코로나 극복 협업프로젝트
	비즈니스 개발	• 코로나 극복 비즈니스 전환 및 사업개발 지원
	신규사업 개발	• 지역통합돌봄 신규 전략 개발: 하악노인 지역 기반 바른 먹거리 제공 •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정책기획단 운영,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 • 통합돌봄 사회적경제 플랫폼 운영
2021	돌봄	• 하악노인 의료·영양 중재 시범사업 :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 노인 의료·영양·신체·정서지원 등 복합중재 서비스 제공 및 생활 습관 개선 등 능동적 건강관리 비즈니스모델 개발
	코로나	• 포스트코로나 대응 사회적경제 정책연구 및 디지털 아카이빙 • 자원순환 체계 구축, 폐기물 제로 솔루션 비즈니스 활성화, 공동주거 기반 제로웨이스트 인프라 도입, 생태적 집수리 모델 및 문화 확산, 기후위기 대응 책임 생산과 소비 활성화, 지역 기반 돌봄 비즈니스의 생태적 전환, 그린 모빌리티 인센티브 통합설계 등
	신규전략	• 사회문제 해결 신규 전략 모델 시범사업 •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서울 사회적경제 기업의 신규비즈니스 및 비즈니스 고도화 지원
	시민참여	• 시민액션플랜 및 의제대응 지원 • 시민이 제안한 생활문제 해결을 주제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선정으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청년	• 청년이 만드는 사회적경제 혁신사업 모델 지원 • 청년·여성 대상 역량 강화 및 동기부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경제 신규 주체 진입 방안 모색
	기후위기	• 지역자원 상생 교류 네트워크 허브 구축 및 시범운영 •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식문화 네트워크 전략 수립 • 기후위기 대응 먹거리 사슬 전환모델 지원 ‘사회적경제 그린 브릿지’
	임팩트	• 임팩트 전략사업 지원: 코로나-19 이후 구조적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서울 사회적경제 임팩트 제고 • 노동 및 일자리 문제 해결 프로젝트 임팩트 컨설팅 및 보고서 발간

사회적경제 전략사업 지원은 기업의 비즈니스 개발과 개선을 위한 전략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정책 제안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며 현장의 필요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시작점이 되었다. 사회문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공공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자원이 투입되기 어려운 곳에서,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선제 대응을 펼쳐왔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이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회와 공익을 지향하는 기업이다. 이에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 사회적 가치도 창출한다. 사회적 책임 경영, ESG 등이 대두되는 요즘 사회적경제 기업을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로서, 가치지향적 성장과 혁신적인 비즈니스에 도전해 간다면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넘어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서울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지름길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비즈니스모델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생산과 고용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는 등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마을기업은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동체성, 지역공헌 및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성, 지역을 근거로 생산·소비·교환·분배가 이루어지는 선순환구조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성, 시장경쟁력과 매출 및 수익 창출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업성이라는 4대 원칙을 추구한다.

서울시 마을기업 연도별 육성 현황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의 2009년 희망근로 프로젝트 실시 후 후속사업의 일환인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마을기업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2010년 12월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본격 추진하였다.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업무는 2012년 10월부터 3년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였으며, 2015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업무가 이관되었다.

목적에 따른 마을기업 유형 구분 및 기준

구분	유형 구분 기준
청년 마을기업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 청년이 마을기업 회원의 50% 이상 참여하는 마을기업
재도약 마을기업	기업성이 약화하였으나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유지되고 마을기업 운영 의지가 있는 육성형 마을기업 중 특별히 정책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 보완 및 환경변화가 가능한 마을기업으로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을기업
우수 마을기업	마을기업 4대 운영원칙을 모두 갖추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
모두앳 마을기업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이 다른 마을기업과 비교하여 우수하며, 특히 기업성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비교하여도 시장 경쟁력이 뛰어난 마을기업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모두앳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마을기업에 한하여 '모두앳 마을기업'으로 지정함
신유형 마을기업	지역의 당면한 사회변화, 시민 생활 변화, 정책 변화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마을기업 *유형: 지역특화형 마을기업, 도시재생형 마을기업, 커뮤니티케어형 마을기업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마을기업을 발굴·교육·컨설팅·판로 확대 등 성장 지원 및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네트워크 등 마을기업 육성 및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설립한 지 2년 이상 된 마을기업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마을기업의 가치를 보유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마을기업'과 '모두앳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 마을기업 중 [2022년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 \(발달장애 아동 돌봄\)](#), [2023년에는 도시마을 협동조합](#)(청소·방역)이 모두앳 마을기업에 선정되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의 강력한 연결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의 형태이다. 서울에서의 마을기업은 여러모로 많은 제약이 있다. 자연 자원의 형태, 인적·공간적 자원에서도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주거 불안정성이 높아 지역 정주성이 낮고, 공동체와 마을의 개념을 이해하는데도 차이가 있으며,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은 물적 지역자원의 활용이 마을기업 지정의 핵심인 데 반해, 돌봄, 유통 등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서울시는 그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책적 한계도 있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 특성을 떠나서 개인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마을기업은 생활권 안에서 지속가능하고 소외되지 않는 생산·소비·고용의 선순환으로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고 고립과 공동체 해체로 일어나는 사회비용을 감소해나가는 긍정적 기대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마을기업의 순기능을 위해 센터는 지역지원기관으로서 마을기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이종·동종 간의 협력을 독려하며 커뮤니티 기반의 비즈니스 개발

07.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은 서울의 대표적 마을기업이다. 장애아 부모 모임에서 시작한 작은 마을기업이지만, 현재는 매출 112억 원, 비상근 활동보조 교사까지 포함해 직원 380명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출처]“아낌없이 ‘열매’를 나누는 나무처럼” 마을기업 나무와열매 김경예 대표 인터뷰|작성자 서울SE센터, 2022.

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원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서울의 도시환경에 적합하면서도 공공과 민간의 손이 닿지 않아 지역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이 될 돌봄·보건·교육 등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발 및 육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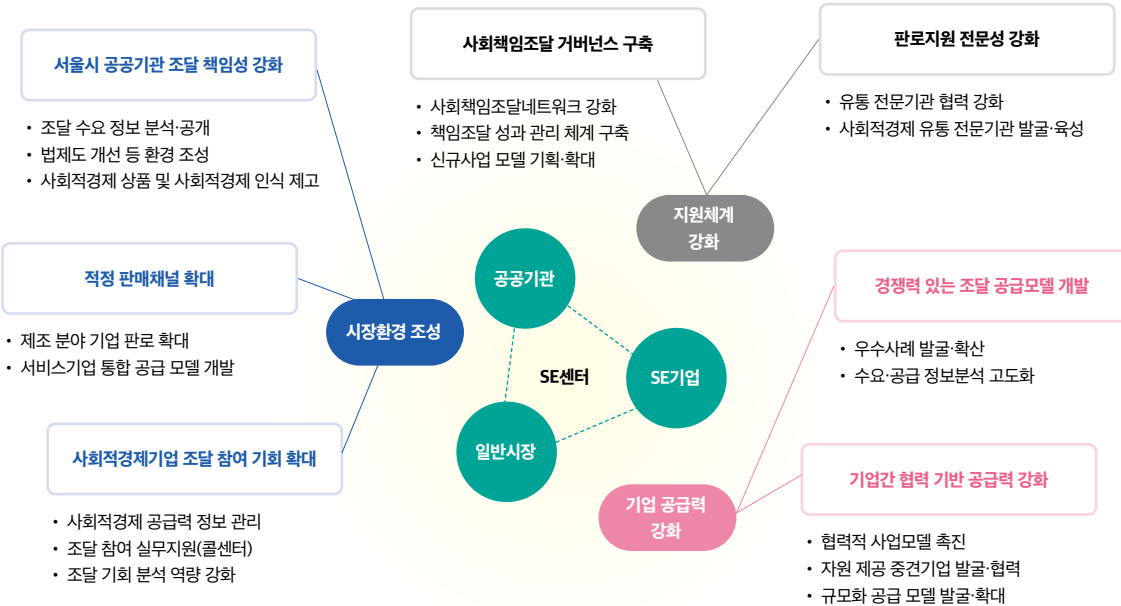
서울에서 마을기업의 가능성은 나무와열매사회적협동조합, 도시마을협동조합과 같은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주민의 필요를 기반으로 당사자가 참여하여 공급역량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발하며, 지역 내 생산과 고용을 통해 공동체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이라는 4대 원칙에 부합하는 마을기업 발굴과 지역사회의 고령자·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양성·고용으로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하고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한다⁰⁶.



사회적경제 가치소비 활성화 이윤보다 가치, 우호적 시장 조성

시장에서는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교환된다. 이러한 시장의 활성화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선택받고 인정받을 때 그 확산력도 향상된다. 그러나 선택과 더불어 호의적인 반응은 단번에 형성되지 않는다.(스스로 물건을 구매할 때의 여정을 생각해 보라.) 제품과 서비스를 다양한 채널에 꾸준히 노출하면서 존재를 알리고, 선택받기 위한 설득의 과정을 설계하며, 선택된 후에는 질로서 소비자에게 만족과 신뢰를 제공하여 재구매를 일으켜야 한다. 이후 소비자 간의 입소문과 긍정적 후기의 재확산은 다시 제품과 서비스가 노출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

사회적경제 시장 조성 전략(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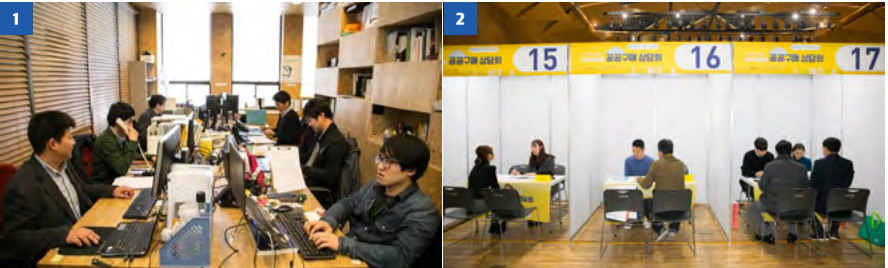
서울 사회적경제는 기업의 시장진출과 확대를 위해 공공시장과 민간시장에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호적 시장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서울시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자치구·투자출현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구매영업을 운영하며 사회적책임조달 확대에 힘을 기울였다. 공공시장의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민간시장에서의 사회적경제 가치소비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전략도 추진하였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조합원과 책임소비에 대한 인식을 가진 소비자 및 기관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 및 서비스 우선 구매와 상호거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유통채널과 업무제휴 등 민간시장 또한 확장해 나갔다.

구분	세부사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공 시장	공공판로 온라인설명회 및 상담											
	공공구매영업단 운영											
	온라인 쇼핑물 함께누리											
민간 시장	오프라인 마켓(시민장터)											
	유통매장(생협 등) 입점지원											
	온라인 기획판매전											
	온라인 마케팅 지원											

공공판로 확대와 공공구매 활성화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사회적경제로 견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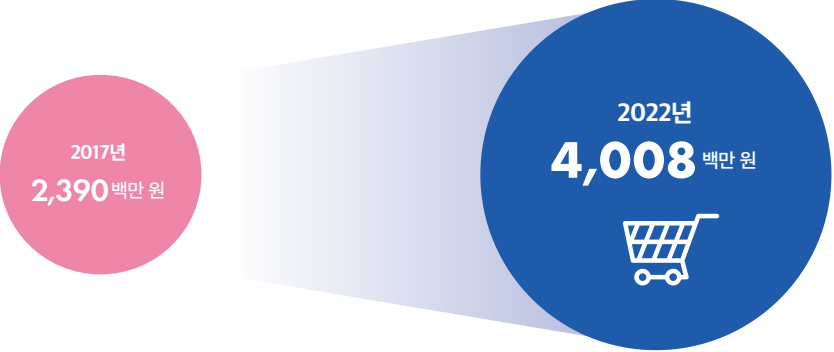
공공조달에서 사회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지속하여 혁신해왔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영업을 운영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구매 교육, 상담, 설명회 및 박람회 등을 주도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공공기관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장을 마련하여 기업에는 수익 창출을, 공공기관에는 경영에서 사회적 책임을 높였다.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설치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일상적인 영업 지원뿐만 아니라 공공구매 정보 수집·분석, 공공구매 수요 개발 및 전략 품목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1. 공공구매 영업단 운영
2. 공공구매 상담회



2020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영업단 운영은 종료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 조달과 가치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의 구매수요와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급역량을 지속하여 연계하고자 하였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센터에서 직접 공공구매 관련 맞춤형 상담 및 구매지원과 자치구 및 기관 교육 등을 추진하였다. 공공구매를 위한 전략 품목개발, 협력기관 확대를 위한 대외협력에도 힘을 쓰고 있다. 그 결과 한국환경공단,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와 더불어 서울시 소재의 부처기관과 투자출연 기관과의 협력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원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또 이러한 공공시장 진입을 위한 수요 맞춤 공급력 향상과 비즈니스모델 개선 및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지원하여 공공구매 시장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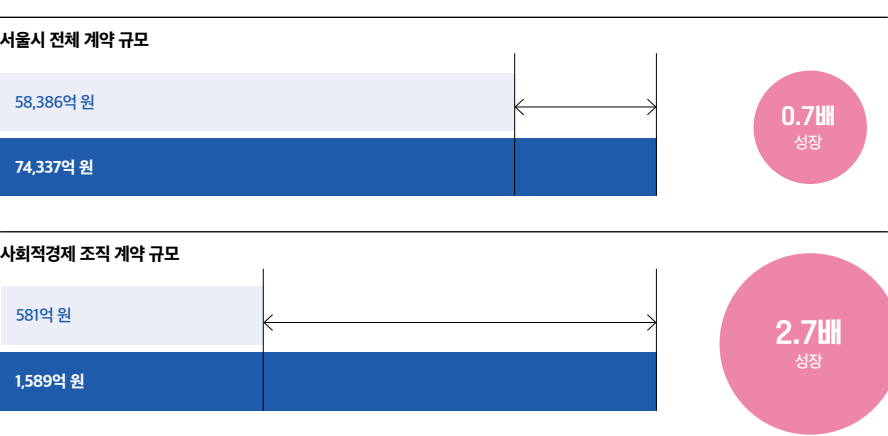
함께누리 매출 비교(2017~2022)



2014년 9월 오픈한 공공기관 전용 사회적경제 쇼핑몰 함께누리(www.hknuri.co.kr)몰을 통한 온라인 공공구매 활성화도 함께 진행하였다. 함께누리는 공공기관 전용 온라인 쇼핑몰로 기획하여 2014년 오픈하였다. 공공구매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용 대량 견적 및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로 구축되어 데이터 축적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정보 분석 및 희망 품목 수요조사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웹사이트의 노후화와 서울 사회적경제 온라인 쇼핑몰로서 인지도 향상을 위해 2년간(2021~2022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을 위탁하며 쇼핑몰 운영 고도화를 추진했다. 웹사이트 기능 업그레이드로 사용자 중심의 UX/UI를 개선하고, 입점기업 및 회원의 이용 편의성 향상과 매출 및 재이용 촉진을 위한 결제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고 등 누구나 이용가능한 온라인 사회적경제 쇼핑몰로 기능 개선을 진행하였다. 기능 개선 이후, 2022년부터는 일반 시민의 이용 비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쇼핑몰의 고객 대상층이 넓어진 만큼 함께누리 입점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품 홍보·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실적은 사회적경제 기업 우선구매 조례 제정과 활성화 지원으로 2013년 581억 원에서 2022년 1,589억 원으로 점차 그 규모는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 공공기관 계약 규모에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에 우선되는 공공구매는 약 1~2% 내외로 턱없이 부족하며 그 품목과 업종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 서울시 공공기관의 계약 대비 사회적경제 기업의 규모를 늘려감으로서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 경영을 견인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공시장 확장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 공공기관 계약 현황



사회적경제 민간시장 확대와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민간시장에서 파도타기

2013~2015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시행 초기 민간시장 확대 공약 대상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비영리활동 등으로 사회적기업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본 시민들을 통한 구매시장 조성과 상호거래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였다. 더불어 상권이 발달한 거점지역(신촌 연세로, 잠실 지하광장), 아파트 단지, 학교 등 장소 맞춤형 기획장터를 운영하여 대시민 대상 시장을 조성해 나갔다. 기획장터 운영은 공간을 방문하는 주 대상에게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나, 유동성이 높고 지속적인 매출로 이어지지 않아 안정성이 높지 않았다. 이에 2015년 이후 안정적인 공간에서 지속적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과 과의 협력으로 '우리동네 협동가게'를 운영하여 상품입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온·오프라인 유통형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다루는 매장을 다양화시켰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매장에서 꾸준히 소비자를 만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해가는 기업의 노력과 민간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가치뿐만 아니라 상품의 질 향상과 가격 경쟁력 또한 갖춰갔다.

- 1. 우리동네 협동가게
- 2. 유통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JDC제주면세점)



그러나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오프라인 매장 중심의 구매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한 전환이 일어났다.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제조업보다 교육·문화·체육·보건·복지와 같은 대면 서비스 분야에 많이 포진⁰⁷되어 있어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이 컸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대두된 사회문제와 SNS의 발달은 착한소비를 넘어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 및 견해를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표현하고 소비를 이끄는 미닝아웃⁰⁸문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가져왔다. 착한소비를 넘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가치소비 문화가 확산되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데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했다. 이에 센터는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온라인 시장으로 비즈니스를 전환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역량 강화로 질 좋은 사회적경제 상품을 합리적 소비로 안내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롯데홈쇼핑-아름다운가게-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3자 협약으로 롯데홈쇼핑 비대면 판매를 진행하였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에는 대표적인 온라인 커머스 11번가와 함께 기획전을 시범 운영하였다. 온라인 마켓 기획전은 1일 방문객 수가 높은 온라인 커머스 기업과 업무제휴로 이루어졌다. 운영 기간 동안 서울시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을 한 번에 모아 보여주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인지도와 매출 증가를 견인하였다. 온라인 커머스에서 안정적인 판매로 각인된 브랜드는 자사몰 판매로 연결되거나 생필품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일정 기간 안정적 온라인 판매처를 유지하는 것은 소비자 관점에서 사회적경제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낮출 수 있어 향후 기업의 매출 촉진에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커머스 운영 결과(2021~2023)

년도	2021	2022	2023
업무제휴			
참여기업 수	29개 기업	46개 기업	68개 기업
매출	104백만 원	127백만 원	581백만 원

민간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 강화는 빠른 트렌드 변화와 그에 맞는 마케팅 방향 수립을 요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제작에서부터 유통, 가격의 결정 과정 전반에 스토리를 담고 있다. 이런 긴 이야기와 품고 있는 가치를 일반 제품과 비교하였을 때 차별성을 간명하고,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은 인력과 조직 운영이 영세하고, 제품과 사회적 가치를 모두 다뤄야 하다 보니 마케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향후 소비권력층이 될 MZ세대를 타겟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의 가치소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2021년 가치소비 플랫폼 ‘캐빈마켓’을 구축했다. 캐빈마켓은 단순히 콘텐츠로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 SNS와 웹사이트를 통해 소개된 상품과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마케팅을 운영하고 있다. 기존 사회적경제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자를 확대하고,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를 기본으로 참여자가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생산 과정을 간접 경험하며 기업과 소비자의 접점을 넓히고, 그 후기를 소비자가 확산하도록 견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쌓고, 기업 또한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얻는다. 기업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시장 맞춤형 마케팅 운영으로 참여자의 충위를 다양하게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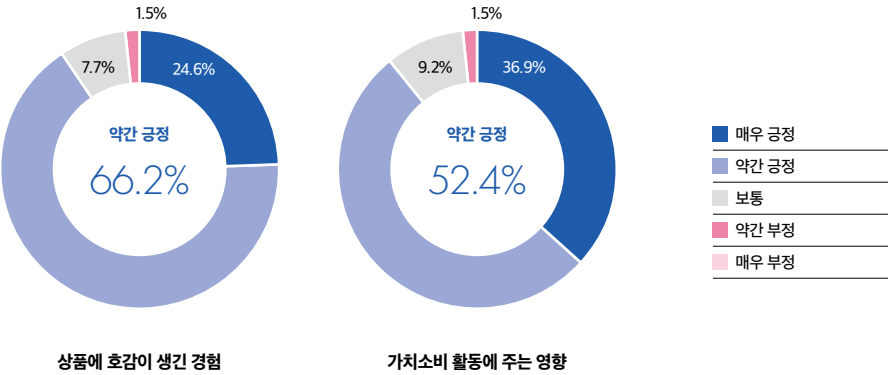
08. 2019년 사회적경제 조직 업종 현황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구분하면 ‘(G)도매 및 소매업’ 18.29% > ‘(P)교육 서비스업’ 18.14% > ‘(C)제조업’ 9.41% >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 순으로 나타난다. (출처: 2019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조직 현황 분석 및 주요 성과 연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09. 의미를 뜻하는 ‘Meaning’과 드러낸다는 의미의 ‘Comming out’을 합성한 조어. 소비활동을 통해 개인의 신념 및 가치관을 표현한다는 의미와 신념,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를 일컫음

캐빈마켓 발행 콘텐츠



캐빈마켓 이용자의 사회적경제 인식변화 기여도



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비즈니스모델로 구체화하여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과 지지로 다시 상품 및 서비스의 질 개선과 개발로 투자되는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자생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판로 확대와 상품 및 서비스의 질 개선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더욱이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성과를 추구하는 동시에 재무적 성과로 기업을 유지·경영해야한다.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성과 중 하나에만 집중해도 성공이 어려운 미션임은 모두가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변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와 임팩트 창출에 있어 멈춤이 없기에 사회 환경과 소비문화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시의성 있게 변화에 대응하도록 기업 성장과 판로 확장을 지원하고 있다.

- 1. 사회적경제 상호거래 활성화, 하루마켓
- 2. 2023 비건페스타





클. 정유진
트리플라잇 공동대표
(Chief Purpose Officer)

기고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목적’과 ‘균형’에 주목하라

지난 1월 말, 다보스 포럼의 주요 어젠다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였다.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 전체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이뤄갈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자본주의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창한 다보스포럼 설립자 클라우스 슈바프(Klaus Schwab) 회장을 비롯해 수많은 글로벌 리더들이 미래를 향한 기업의 새로운 시각을 강조했다.

이처럼 기업을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요구가 커지면서, 최근 국내 산업계 전반에는 ‘ESG boom’이 한창이다. ESG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업의 전략 및 운영에 통합해야 하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ment)’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ESG 전담 부서를 신설 및 통합하고, ESG 전문가를 사외이사 및 임원으로 영입하기 시작했다.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ESG 등 비재무 정보까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커뮤니케이션해야 하는 숙제가 더해진 것이다.

임팩트, 재정의 필요하다

사회공헌, CSR, CSV, 지속가능경영, 기업시민, ESG 등 다양한 개념과 혼재된 정의 속에서 성장과 후퇴를 거듭해온 국내 기업들은 이제 재정의된 ‘임팩트’에 주목해야 한다. 임팩트는 경제·사회·환경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의 총합을 말한다. 기업이 내리는 수많은 결정과 행동들이 우리의 경제·사회·환경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지금

까지 대다수 기업은 ‘사회공헌’처럼 긍정적 영향을 높이는 활동에 집중해왔다. 한편으로는 지속가능경영, ESG를 리스크에 대응하고 기업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낮추는 것으로 좁게 해석 및 대응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지속가능경영 및 ESG에 대한 글로벌 기준 및 표준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을 세분화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총합이 0을 넘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팩트는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의 ‘균형’에서 출발한다.

위싱(Washing)을 경계하라

1. 세계 최대 석유기업인 ‘엑슨모빌(Exxon Mobile)’은 오래전부터 기후변화 위험성을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을 개발 및 확산해왔다. 엑슨모빌이 기후변화를 부정하기 위해 지출한 로비자금은 연평균 485억 원인 반면, 기후변화를 위한 브랜딩 비용은 연평균 664억 원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온실가스를 72억MT 배출한 반면, 환경 기술 개발을 위해 62조 원을 투자했다.
2. 지난해 7월, 호주 청소년들이 삼성전자 불매운동을 벌였다. 호주 퀸즈랜드에서 개발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채굴 항만시설에 추가 투자를 추진해온 삼성증권에 향한 비판이 삼성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것. 비슷한 시점에 삼성전자는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친환경 가전 개발 및 출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다.
3. 최근 노르웨이 소비자 당국(CA)은 H&M의 마케팅 전략을 비판했다. H&M이 다른 의류보다 오염이 더 적은 이유에 대해 적절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도한다는 것이다. 제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없이 ‘지속가능하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H&M은 2030년까지 재활용 또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소재만을 사용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친환경 패션 산업으로의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CSR Washing’, ‘ESG Washing’, ‘Impact Washing’ 키워드가 떠오르고 있다. 관련 논문 및 저널 게시 수가 10년간 5배 이상 증가했고, 뉴욕타임즈 등 관련 키워드의 언론보도 횟수도 10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기업의 이야기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시선(Skepticism·회의주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사회공헌 등 긍정적 활동 소식을 접해도 ‘포장하거나 부정적 이슈를 덮기 위한 액션(Washing)’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포터노벨리(Porter Novelli)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의 75%가 ‘현재 기업의 액션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겠다’고 했고, 73%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기업의 나쁜 의사결정을 기억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트리플라잇이 사회공헌센터와 함께 진행한 국내 설문조사(2020 사회공헌 백서: Social Gap Report)에서도 국민은 기업의 코로나 관련 사회공헌 진정성 점수를 3.01점(5점 만점)으로 매겼고, ‘코로나 팬데믹 동안 기업의 사회적책임 관련 의사결정과 활동의 현재와 미래 임팩트를 지켜보겠다’는 이들도 66.9%에 달했다.

임팩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그렇다면 기업은 자사의 임팩트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해야 할까.

임팩트 커뮤니케이션이란 기업 및 조직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며 긍정적인 영향력을 최대화하려는 명확한 목적과 액션의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고 균형 있게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구찌·입생로랑·발렌시아가 등 럭셔리 브랜드를 소유한 케어링그룹(Kering Group)과 노보노디스크, 바스크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CSR·ESG 통합관리를 통해 부정적·긍정적인 영향력을 측정 및 평가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발을 판매하기까지 물·공기·토양 등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측정하고 이를 화폐화한 뒤 해당 금액 이상의 긍정적 영향을 사회 및 환경에 돌려주기 위한 R&D 투자가나 사회공헌을 지속한다. 사건 사고가 터지면 매년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을 과학자 및 전문가들과 분석하고 공개한다.

이렇게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측정 및 평가하려면 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 및 이슈를 발굴하고 모니터링하는 전략이 선행되어야 한다. 모든 임팩트는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회 이슈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2020 인식조사&이슈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보다 미래 임팩트가 커지는 사회문제는 ‘노인 빈곤 심화 및 불안정한 노후생활’, ‘미세먼지 증가’, ‘소득양극화 심화(부익부 빈익빈)’로 꼽혔다.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제와 정부 및 민간의 자원 투입이 우선돼야 하는 이슈 모니터링을 통해, 이와 관련된 기업의 부정적 영향을 낮추고 긍정적 영향을 높이기 위한 액션이 연결돼야 한다. 또한 기업의 현 수준과 이해관계자의 니즈 간 ‘갭(Gap) 분석’을 통해 간극을 메우는 노력도 필요하다. 실제로 국민이 먼저 바라고 있지만 기업이 주목하지 않는 사회공헌으로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Gap -96점)’이 꼽혔고, 반대로 국민의 니즈보다 기업의 집중도가 높은 사회공헌으로는 ‘임직원 급여 일정액 후원 및 봉사를 통한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이 꼽혔다(2020 사회공헌백서: Social Gap Report).

“인생의 균형이 깨지면, 인간은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 온갖 세력과 맞섭니다. 인류가 이야기를 통해 수천 년간 설명하고 납득시켜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되돌리고자 하는지에 관한 것이죠.”

-이야기의 대가, 시나리오 닥터 ‘로버트 맥기’

임팩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은 ‘목적’과 ‘균형’에 있다. 우리 기업 및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Why), 즉 ‘목적’의 명확한 설정을 통해 주목해야 하는 사회문제와 이슈를 찾고, 이러한 이슈와 연계되는 자사의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지속하여 측정 및 관리하면서, 균형 있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자에게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뢰와 진정성에 기반한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시급한 시점이다.



자원연계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투자

기업활동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본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은행의 문턱은 턱없이 높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게 자본조달로 기업의 비즈니스모델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4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설치하여 서울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선도적으로 500억 원을 출연하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운영하였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사업개발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하는 대출업무와 기부금 모금, 매칭 사업 등 민간 사회투자 네트워크 형식으로 사회적금융 전반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시장 경제의 금융 결핍을 메우는 활동이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확대될수록 사회적금융의 필요성과 중요성 또한 커졌으며, 이를 토대로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 4개 자치구에서 사회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을 조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조성 조례 현황

-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7조(사회투자기금)」
-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제26조(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관리 조례, 제23조(사회적경제투자기금)」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2013년 300억 원에서 점차 규모가 축소하여 2018년에는 약 88억 원으로 조성액이 가장 적었다. 이후 점차 증가하여 2021년 기준 조성액 27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1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집행이 이루어졌다. 서울의 경우 2020년 일반 융자사업과 함께 코로나-19 피해입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 자금지원사업과 민간자 산클러스터 지원 융자를 진행하였다. 2021년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및 사회적경제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 융자를 진행하며 사회 곳곳에서 대안적 금융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연도별 사회적경제 투자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전년도 말 조성액	당해연도			당해말 조성액
		계	조성액	사용액	
2013	20	37,954	50,336	12,381	37,974
2014	37,974	△5,216	3,543	8,760	32,757
2015	32,757	△9,901	5,701	15,602	22,856
2016	22,856	△12,930	8,823	21,754	9,925
2017	9,925	2,595	12,691	10,096	12,520
2018	12,520	△3,639	9,725	13,364	8,881
2019	8,881	4,335	22,006	17,670	13,216
2020	13,216	2,525	26,393	23,868	15,741
2021	15,741	11,464	29,028	17,564	27,206

(출처: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사회투자지원재단, 2022)

서울시는 2016년 11월 사회투자기금 종합 개편 계획을 발표하며 사회투자기금의 장기 비전으로 “단순 자금 지원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관계금융, 인내자본 역할 수행”인 점을 밝히며 이에 대해 관계 금융을 금융기관과 기업이 장기 신뢰 관계를 통하여 장기 대출, 지분투자 외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것, 인내자본을 초기 손실이 나더라도 성과가 나기까지 10년 이상 장기간 지원하는 투자로 정의하였다. 기업의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 중개기관과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견인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창출하는 임팩트에 대해 장기적 안목과 투자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협력해 나가야 한다.

캐나다 퀘백의 RISQ

캐나다 퀘백의 퀘백사회적경제투자네트워크(RISQ)는 20년 간 400여 개 작은 사회적기업에 투자했는데, 일반적 인 스타트업 기업들의 생존율은 20%인 반면, 이 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의 평균 생존율은 90% 이상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금의 특징은 투자자본의 ‘수익률 극대화’라는 목표보다 ‘시장수익률 이하의 배당’과 ‘사회적 목적 달성’이라는 혼합된 가치창출에 집중하는 ‘사회투자자본’이라는 점과 무담보 장기대출의 ‘인내자본’이라는 것이다. 이 기금은 상환기간이 무려 15년인데,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여 커뮤니티 관계를 맺는 경우 어려움이 있어도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전문가 간담회
사회적경제 기업 투·융자 활성화하려면
운영기관 안정화·민관 공동책임제 도입해야

서울시, 국내 최초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회적경제 기업이 성장하고 지속할 수 있으려면 경영지원,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금융지원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기업에 실질적인 날개를 달아준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같은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2018년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사회가치연대 기금 설립 지원,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Certification)제도 도입, 보증 지원, 투자펀드 확대, 사회적 금융협의회 출범 등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졌다.

정부보다 앞서, 사회적금융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 곳이 바로 서울시다. 서울시는 2012년 국내 최초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2022년까지 857건, 1,46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집행하였다.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시중 대출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구매를 지속 확대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 임팩트 투자펀드 운영을 통한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회투자기관과 공동으로 조합 결성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 노력에도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다. 더욱이 사회적경제 기업 재정에 숨통을 틔워줬던 사회적금융 생태계도 최근 난관에 부딪히면서 사회투자기금 등 서울시의 금융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6월 13일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투·융자 사업 운용사로 역할을 해온 전문기관들과 함께 ‘서울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재단법인 밴드 하정은 이사장, 신나는조합 최솔비 사회적금융팀장, 한국사회투자 이경일 복합금융팀 매니저, 한국사회혁신금융 변시연 기금운용팀장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울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및 투·융자 확대 방안과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용 개선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리스크 높은 투·융자 사업, 운용사 부담 너무 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4개 기관은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의 투·융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을 ‘사회적경제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리스크’로 꼽았다. 변시연 한국사회혁신금융 팀장은 “아무래도 일반 제도권 금융에서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는 영세기업의 비중이 크다 보니 상환에 대한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반 기업에 비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상황 리스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나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는 해당 지원기금의 담보 설정이 어렵다. 이러한 부분도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한국사회투자 이경일 매니저는 “담보를 설정하지 않을 시 미상환 기업의 리스크가 커지기에 수행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더욱 큰 문제는 미상환 기업이 늘고 연체율이 높아질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모두 운용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자율만으로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현실에서 채권 손실에 대한 부담까지 운용사들이 지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 참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매출 하락 등의 어려움으로 채권 손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운용사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경우 민간지원기관이 서울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형태로, 대위 변제 발생 시 100% 민간지원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최솔비 신나는조합 팀장은 “대표자 사망, 파산 등과 같이 부득이한 환경적 요인이 발생할 때는 운용사도 사전에 조정이 어려운데, 그런 리스크까지 민간이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운영비 확보·민관 공동책임 등 제도 개선 필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참여자들은 운용사가 일부 책임을 지더라도 재원처에서 리스크를 함께 분담하는 안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정은 재단법인밴드 이사장은 “재대출 결손에 대한 공동책임을 재원처가 지거나, 기대출 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지원사업을 운용사가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조성되는 지역기금의 경우 지자체와 민간이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운용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자들은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투·융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인 운용이 이뤄지려면 운용사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술비 신나는조합 팀장은 “현재 융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저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운영비를 통해 운영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운용사의 안정화가 결국 사회적경제 기업의 안정화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서울 사회적금융 생태계, 민관 협력으로 질적 도약해야

서울시는 2012년에 조례를 만들고 2013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10년 차에 접어든 사회투자기금은 다른 곳보다 융자 한도가 크고 낮은 이자율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회적경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사회적경제가 규모있게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이제, 사회투자기금 등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의 투·융자 사업도 한 단계 도약이 필요한 시기다. 서울시는 올해 기존의 사회투자기금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으로 통합하여, 기존 수행기관이 사회적경제 기업에 기금을 재융자하는 방식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기업 대상 기금 집행의 축소와 민간 주체들 간의 협력이 퇴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제 서울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날 참여자들은 사회적경제 기업은 보조금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달성을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의 역할로는 제도적 기반 재확충,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지원, 사회적경제 종사자 육성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더불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공공기관의 (가)사회적경제기금 조성, 민간 차원의 자조기금 조성 등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 생태계의 성장은 민간, 공공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았을 때 성과도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투자기금이 현재 봉착한 어려움 또한 민관이 함께 손을 잡고 헤쳐 나가길 바란다.



글.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기고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서 사회투자기금이 갖는 의의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하 사투기금)은 사회투자자를 목적으로 조성(2012년)한 지방정부 최초의 기금이다. 사회투자란 사회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일하는 회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사투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 이탈주민, 비영리단체 등에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정부가 사회적금융 정책을 도입(2018년)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 지원을 도모해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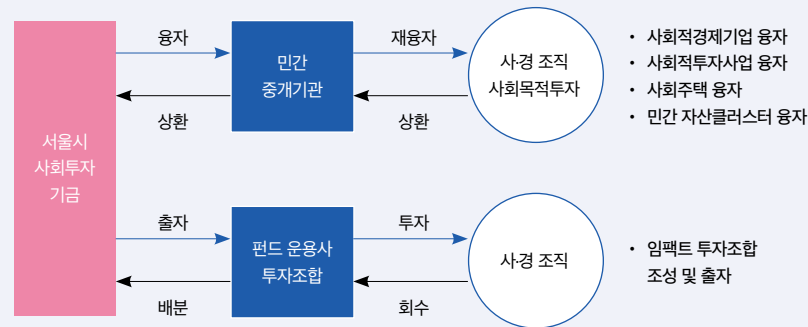
사회적금융(social finance)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 취약계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가 시장 금융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융 시장은 ‘신용’을 매개로 움직인다. 신용 점수가 높으면 좋은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지만, 점수가 낮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나아가 일정 점수 이하는 금융을 활용할 기회가 아예 박탈되는데, 이런 현상을 금융 결핍(financial lack)이라고 부른다. 사회적금융은 이 ‘결핍’을 메우기 위한 금융시스템 및 질서라 할 수 있다.

영국이 사회투자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적금융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미국이 낙후된 지역에도 돈이 흐를 수 있도록 대형 은행들의 지역 투자를 의무화하는 등 시장 실패에 따른 금융 공백을 메우는 데 앞장서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정부는 이 결핍을 메우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다. 금융 회사가 공백을 해소하기는커녕 ‘이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

회화하는’ 질서 속에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해도 이를 자연법칙처럼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며, 정부가 이 흐름을 방치하는 건 직무 유기로 봐야 한다. 금융은 공원이나 고속도로처럼 모든 시민이 최소한의 편익을 누려야 하는 준공공재(quasi-public goods)이기 때문이다. 금융은 사회와 환경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돕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있는’ 사람의 돈을 불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없는’ 사람의 고통을 해소해주는 것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금융의 본령이다.

시장 금융이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 점수가 낮은 개인 및 조직을 무임승차자(free-rider)로 바라보고 빚장을 걸어두는 상황에서 이들은 어떻게 필요한 돈을 조달할 수 있을까? 금전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누군가가 나서서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 그 대표적 공급자가 정부다. 공익을 도모하는 것이 곧 정부의 일이므로 이는 당연한 책임이며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금융 지원 생태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그런 맥락에서, 중앙정보보다 앞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사회적금융을 실행한 서울시 사투기금의 역사적 의의는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법률·제도적 지원 없이도 혁신적인 사회투자 정책을 펼 수 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있고 단체장의 의지가 굳건하다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포함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정부가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운영 구조



실제로 사투기금은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주택, 고용 취약 노동자, 민간 자산 클러스터 등 4개 영역에 걸쳐 용자 사업을 진행하여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857건에 약 1,46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시 기금과 민간의 매칭 금액을 합한 수치다. 공공과 민간 자금의 매칭 비율은 약 70:30 수준이다. 통상적인 매칭 사업 비율(50:50)보다 공공 분담률이 훨씬 높다. 사업 참여자들의 어려운 자금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용자 이외 투자 사업을 병행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 투자조합을 만들어 시가 출자한 후,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사회적 프로젝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은 공개 모집 방식으로 선정되며, 투자 기간은 총 8년이다. 용자보다 투자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을 위해 별도의 트랙을 만든 것으로, 지방정부가 기금을 재원으로 투자 사업에 직접 참여한 경우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지방기금을 규율하는 현행 법률(지방기금법)하에서, 투자를 실행하기란 여간해서 쉬운 일이 아니다. 공적기금의 경직된 구조와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으로 인해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경로 의존이란 과거에 형성된 제도와 규칙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원금 회수’ 기준을 들 수 있다. 지방기금은 연구개발(R&D) 기금처럼 회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수도 있고, 용자기금처럼 원금상환을 전제로 운용할 수도 있다.

사투기금은 후자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그런데 사투기금의 용자는 중개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대출(re-lending) 방식이고, 지원 대상은 상대적으로 회수 위험이 큰 집단이다. 따라서 만일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단체·기업의 원금상환이 지연되거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중개기관이 책임을 떠맡게 된다. 중개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을 감수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 기준을 높이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중개기관이 손실을 줄이려면 진입장벽을 높여 자금 회수 가능성이 큰 대상을 ‘선별’하는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곳만 지원받고 그렇지 못한 곳은 탈락하는 일이 벌어진다. 사투기금을 만든 목적이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힘든 개인·단체·기업을 돕기 위함인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몇몇 중개기관은 기금 용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용자 사업 설계 시, 중개기관에 위험을 넘기는 대신 기금 내에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손실 위험을 흡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면 훨씬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는 사투기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지방기금이 가진 한계라고 봐야 한다. 사회투자를 촉진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조례만으로 사회적금융을 실행하기란 제약이 크기 때문이다.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새로운 법률 제정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 생태계는 원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요는 넘치지만 공급은 현저히 부족하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서의 시장(market)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수요자’란 담보 부족,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필요한 돈을 공급받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개인이나 기업을 말한다. ‘공급자’란 채무불이행 위험을 안고, 이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뜻한다.

사회적금융 생태계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기관(intermediary)은 꼭 필요한 존재다. 빈곤계층의 자립을 돕고(포용 금융), 자조 자립의 공동체를 건설하며(호혜 금융), 혁신기업에 투자하고(임팩트 금융), 낙후된 지역을 살리는(지역 금융) 전문기관이 많이 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이들이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투기금은 그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뜻깊은 실험이 진화·발전해 전국적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소망한다.

일상에서 열매 맺다

상에서 재감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 시민 자주 기반 형성 지원, 지속 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판로 개척, 혁신 인재 양성, 1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시민체감형 지역 순환 경제 구축입니다.

좌담	시민, 사회적경제 주체로의 등장
시민체감	시민체감형 지역순환경제 구축
기고	'시민경제'로의 '사회적경제' 개념의 해체·재구성
홍보확산	사회적경제 홍보와 확산
연구	사회적경제 연구 사업 서울형 사회가치지표(S-SVI) 개발과 측정
기고	현장을 연결하는 브릿지, 사회적경제 연구

경제는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라고 정의한다. 그렇지만 그동안 경제는 성장에만 집중하여 숫자의 모습으로만 우리 삶에 존재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지는 못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의 기본 정의 아래 구성원 간의 상호 호혜와 신뢰, 소통과 연대를 통해 사람과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시도이다.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 관계는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과정에서 맺어지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이, 더 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1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대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시민, 사회적경제 주체로의 등장

일시

2023. 8. 31.(목) 15:00~17:00

참석자

홍진주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장
(좌장)

구명숙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이사

안아름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사무국장

유한나 한신대학교 교수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 혁신을 주도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막상 시민들이 느끼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 사회적경제를 고용 창출의 수단으로 여기고 양적 확충에 치중할 결과다. 이에 서울시는 2019년부터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 2.0(2019~2022)'을 발표하고, 공공지원이나 기업 중심의 생태계 지원을 넘어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로 정책 전환을 꾀했다. 시민의 일상 속 문제를 협동과 호혜, 연대와 같은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시민 체감형 사업의 확대가 그것이다. 지역에 뿌리를 내려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현장, 학계 전문가에게 사회적경제가 이웃의 경제로 지속가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홍진주 —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일-복지-사회적경제를 연결하는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고요, 10년 전 마포구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사업단부터 시작해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함께 했고, 현재 마포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신분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구명숙 — 저는 관악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지냈고,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과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관악뿌리재단 이사로 활동하고 있어요. 같이살림 프로젝트 준비과정부터 추진위원으로 참여하며 프로젝트 협력파트너로 함께 하였고, 2018년 시범사업, 1차년 2019년과 2차년도인 2020년까지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유한나 — 현재 한신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일반대학원 사회적경영 전공에서 사회적가치와 기업가정신, 사회적기업 비즈니스모델 등을 강의하고 있어요. 센터의 각종 사업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했고, 신진연구단에서 3년을 함께 연구했어요. 사회적경제 연구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현장의 이슈를 발굴해 연구하는 데 센터가 많은 역할을 해주셨어요.

안아름 —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사무국장 안아름입니다. 함께강동은 강동지역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풀뿌리시민단체, 마을공동체, 사회혁신 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만든 협의체예요. 강동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지역 네트워크법인이기도 해서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센터 위·수탁을 비롯해 조합원이 협업할 수 있는 공모 영역 사업을 진행해왔어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는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주민기술학교와 같은 사회적경제 시민 참여 사업을 지역에서 매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시민 체감형 사업, 사회적경제·시민 함께 성장하는 계기

홍진주 — 사회적경제 영역이 확장되면서 시민들의 삶과 지역을 변화시키는데 사회적경제가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부적 성찰과 외부적 질문이 많았죠. 저는 ‘기업’으로만 사회적경제가 인식되어왔던 게 안타까웠던 터라,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를 강조하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가 반가웠어요.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 방식이 아니라 삶의 양식이기도 하니까요. 처음 정책이 변하고 현장에서 혼란도 있었지만 자치구 센터들도 그 과정에서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구명숙 —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사업 후 서울시와 자치구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시민들의 공감을 넘어 참여가 늘고, 시민의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과 공동체의 생활영역에서 사회적경제를 접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경험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어요.

그러한 고민이 모여 서울시 시민체감형 정책사업이 탄생했죠. 그 출발이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예요.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지원조직, 시민, 입주민협의회, 역량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자기 사업모델을 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경험이 되었고, 시민들도 지역의 사회적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죠. 다만, 3단계 사업에 있어 마지막 성과로 참여주민들이 사회적경제 기업을 만드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여부 평가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에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하며 소비자로서 주민들은 자신의 소비영역에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은 자신의 서비스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를 경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사업에서는 주민 참여의 수준은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민 참여의 수준은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구명숙

안아름 —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강동에서도 진행했는데요. 주요 사업 내용은 기록사업을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결합해 아파트 역사와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었어요. 주민들에게 새로운 추억거리를 만들어주는 등 시민참여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여러 기업이 협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경제 기업을 설립하고, 로컬랩 사업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를 연계해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어내기도 했어요.

그 외 강동구 주민으로서 주민기술학교는 수강생으로 참여했는데, 보건소나 평생교육관 등 기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과 사회적경제가 운영하는 수업 사이에 큰 차별성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서두에 수업을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 사회적경제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있으면 또 달랐을 것이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홍진주 — 마포구에서는 주민기술학교 인기가 폭발적이었어요. 주민 생활에 밀접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민기술학교의 컨셉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수요를 주민 스스로 배워서 채워가는 기회를 제공한다’인데, 내가 하는 활동이 지역 사회와 연결되고 창업으로 연결되니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구명숙 — 동의해요.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한정된 주제, 아파트 단지라는 한계로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한발 더 나아간 필요나 비즈니스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사업기간 안에 보유하지 않는 한,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기가 어려웠어요. 반면 주민기술학교는 일자리로 연결되거나 창업 욕구를 가지고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 넓은 범주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접근한 사업이라 가치와 실리, 두 가지 포인트를 모두 살릴 수 있었어요.

홍진주 — 시민 체감형 또 다른 사업 중 하나가 ‘우리동네 나눔반장’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서비스 공백이 발생하면서 돌봄SOS센터 내 일상 편의 서비스(식사, 이동지원 등)를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해보자는 결의 속에서 시작한 사회적경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플랫폼 사업이죠. 강동구도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가 궁금합니다.

안아름 — 강동구에서는 협동조합 두 곳이 식사 지원 서비스를 다른 협동조합 두 곳이 주거 지원 서비스를 함께 했는데요. 단순히 주문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돌봄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서 스스로 아이디어도 제시하고 더욱 공익성을 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어요. 기존의 경제시스템에서는 동종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 사업을 통해 서비스 제공 기업끼리 관계할 기회를 가지면서 레시피를 공유하고 배송을 대신해주고,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공익적인 서로의 행보를 응원하는 등 보완, 협업, 지지가 가능해지면서 지역 안에서 상생하는 방법을 꾀해보았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홍진주 — 센터와 서울시의 지원은 끝났지만, 이 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마포구도 4년째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을 진행 중이에요. 그 중에서도 일상 편의 서비스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사업단을 구성해서 같이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걸 계기로 사업자연대조직도 만들었죠.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역사회의 돌봄 공급자이자 수요자로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시민 체감형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적극적인 지역의 활동가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시민의 사회적경제 주체화’가
아닐까 해요.

안아름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려면
거창한 이론이나 구호보다
사회적경제가 내 삶에
밀접한 방식이라는 것을
한 가지라도 느낄 수 있으면
된다고 봐요.

유한나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도 기억에 남는데요. 코로나-19 초기 사회적거리두기로 지역상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강동구와 마포구가 초기 참여했어요. 마포구의 경우 골목 소상공인들의 협업을 지원하면서 실제 연남동 1인 여성 창업자들이 함께 ‘연남동 끝자락길’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사업을 하기도 했죠. 강동구도 좋은 사례가 있지 않나요?

안아름 — 강동구도 이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곳이 ‘시장이반 찬협동조합’이에요. 코로나-19로 힘들 때 전통시장 상인들이 돌봄 도시락을 만들어 공급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협업을 넘어서 협동조합으로 발전한 모델이에요. 각자의 가게 운영을 통한 수입 외에 도시락 수입까지 생기고, 시장에서 파는 재료를 도시락에 활용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금은 공공센터를 넘어서 병원, 교회 등 일반인 대상으로도 도시락을 제공하고 온라인 정기 도시락, 반찬 구독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을 통해서 돌봄의 주체로 거듭나

섰던 배달 기사님들, 사회적경제 기업들, 이 사업을 통해서 협동해서 위기를 해결해보고, 돌봄 도시락을 제공하게 된 전통시장 상인분들 등 이러한 시민 체감형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적극적인 지역의 활동가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시민의 사회적경제 주체화’가 아닐까 해요. 사회문제를 직접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 해결하는 ‘민주시민’으로 거듭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서울시의 대표적인 시민 체감형 사업은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다. 공동주택 단지 내 생활문제를 주민들이 사회적경제와 협력해 풀어가는 3년 연속 프로젝트로, 사업 첫해인 2019년에는 11개 자치구 22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주민기술학교, 우리동네 나눔반장, 골목경제 활성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서울시는 사회적경제가 내 생활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회적경제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시민 체감형 지역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노력을 하였다.

사회적경제 가치 인식하고 참여 의지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

유한나 — 앞서 시민 체감형 사업을 직접 경험한 분들의 사례를 들었다면, 저는 신진연구단에 속해 수행한 서울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인식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적경제 2.0 사업은 시민들이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여 일상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체감도를 높이는 작업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사업의 성과 향상과 효과적인 시민 그룹으로의 접근을 위해 시민들의 사회적경제 참여 경험에 따른 인식 수준이 진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연구를 하였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경제에 대해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개념 인식과 사회적경제가 내 삶과 연관되어 있고 도움이 된다는 가치 인식으로 구분하였고, 사회적경제 참여 경험은 활동 경험, 소비 경험, 근무 경험으로 구분해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하였어요. 서울시민 1,300명의 설문 응답 결과를 분석해보니, 신기하게도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한 번이라도 소비, 근무, 활동 등 참여한 경험은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켰어요. 그리고 한 번이라도 활동 경험이나 소비 경험을 가지고, 개념과 가치를 높게 인식하는 시민일수록 이후에도 사회적경제를 더 알고자 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결과는 여성 집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참여 경험과 인식이 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높았어요. 여성은 기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주체이자, 가정에서는 살림과 돌봄의 역할을 하며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욕구를 충족하는 대안경제를 고민하는 주체이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실제 사회적경제가 시민과 만나는 접점은 특정 기업에의 소비뿐 아니라 활동, 교육, 봉사, 기부, 투자 등으로 다양한데 지금까지는 다양한 접점에서의 만남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지 못했어요. 즉, 시민은 단순히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한 소비자로, 혹은 동원되어야 하는 자원봉사자로 객체화될 뿐, 민주사회의 주체적인 동력으로서 특정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주요 파트너로 인식되지 못했죠. 다양한 접점으로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또 다른 활동에 참여하여 적극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노력은 부족했어요. 사회적경제는 근본적

인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기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가로 성장하고 이후 한 부문의 리더가 되거나 특정 조직의 창업가가 되는 것처럼, 사회적경제가 다양한 욕구와 역량을 가진 시민과의 접점을 관리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려면 거창한 이론이나 구호보다 사회적경제가 내 삶에 밀접한 방식이라는 것을 한 가지라도 느낄 수 있으면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장애가 있다면 생산요소시장의 노동력 공급과 활용에 대한 기존 방식을 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한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대안을 간절히 찾게 될 것이고, 내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면 환경이나 음식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고 생산물시장에서 재화의 생산과 판매, 소비에 대한 기존 방식을 환경적 영향을 고려한 방향으로 재조정하게 될 텐데, 그런 시민들에게 강력한 해결방식으로 사회적경제의 대안적 특성이 인식되고 사회적경제 영역 내에서 같은 욕구를 가진 시민들과 결합한다면 시민 체감도도 자연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대상 집단을 명확히 하고 그 대상에 맞는 언어와 접근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구명숙 — 얘기를 들으며 한가지 현장 사례가 생각났어요. 우리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가치를 쉽게 전달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며 참여기업들이 고민하고 만들어 낸 것 중 같이살림 프로젝트의 홍보 분야를 맡아 진행하던 ‘마을과 고양’이라는 기업에서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사회적경제 이야기를 웹툰으로 만들었어요. 다음 해 관악구 민관협치사업으로 ‘가치 있고 재미있는 사회적경제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회적경제를 웹툰 영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게 되었어요.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교육이나 정책적인 홍보만 있는 게 아니라 작가들의 작품으로도 연계될 수 있다고 느낀 과정이었죠. 생활에 밀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 방식이나 과정들이 곧 사회적경제 방식에 대한 공동의 경험이자, 시민 체감형 사업이지 않나 생각해요. 최근 정책이 바뀌면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가 달라졌다고 걱정하지만, 이런 경험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아요. 앞서 교수님이 얘기하셨듯, 단 한 번의 좋은 소비 경험이 그 다음 소비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런 경험들이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삶을 바꾸는 토대가 될 거라 봅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참여경제, 다양한 주체들의 힘 모여야

홍진주 ____ 앞서 여러분들이 생활권에서의 사회적경제 참여 의미에 대해 얘기해주셨는데요. 기존에는 주민들을 소비자로만 보거나, 여러 과정을 뛰어넘어 창업하는 식이었다면, 지역 단위에서 그 사이를 연결하는 촘촘한 과정이 우리가 했던 주민 기술학교나 같이살림 프로젝트 등이라 생각해요. 향후 10년을 어떻게 연결해야 풀뿌리로부터 생기는 시민 중심의 참여경제가 만들어질까 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 봤으면 합니다.

안아름 ____ 사회적경제는 일종의 사고방식이자 생활양식이예요. 자신의 문제, 사회문제의 해결을 '직접 참여해서 함께 해결한다'는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가 바로 사회적경제 방식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는 지금의 사회를 바꾸는 경제적 민주주의 운동이기도 해요. 향후 10년, 시민의 사회적경제 주체화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를 이런 광의의 가치로 재인식하고, 민주국가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역할을 알려야 해요. 협동조합이라는 기업 형태의 가장 큰 사회적 기여는 구성원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킨다는 점이에요. 일반복지와 사회적경제 방식 지원의 차이는 '자금심', '자존감'을 준다는 거죠. 수혜자를 넘어서 일하고 봉사하고 참여하는 주체로 만들고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돕는 관계를 만들어주면서요. 사회적경제의 의의와 가치를 우리 스스로 다시 이해하고 알려 사회에 바른 입지를 구축해야 해요.

다양한 시민과 사회적경제와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넓게, 가까이, 매력적으로 접근하는 기제가 필요해요.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를 자립과 협동의 원리로 넓게 이해해서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사회공헌부서, 여러 소관의 지원사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외 자원들과도 활발하게 네트워킹하고 연계하면서 사업과 활동을 펼치는 융통성이 필요해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서비스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공익성을 강조하면서도 요즘 감각에 맞게 마케팅하는 역량 지원도 필요하고요. 또 사회적경제 조직 내에서는 사무실·공유 공간 지원, 바우처나 문화생활 지원, 지역 내 네트워크·관계 자원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혁신적이고 민주적인 사내문화 등 좋은 근무조건을 제공해서 좋은 인적자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고민해야 해요. 더불어 사회적경제를 한국 사회가 규정하는 협소한 이해, 일자리 정책으로서의

이해를 넘어서 앞서 말한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새로 규정해가는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논의 테이블, 사회 이슈, 영역별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공유·참조·협업하는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의 논의 테이블 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한나 ____ 연구자로서 제안하면, 사회적경제가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정체성을 일관성 있게 제품과 서비스에 녹여낸다면 또 다른 시민참여와 시민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매출 향상을 위한 마케팅과 고객 관리가 아니라 사회적 미션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시민과의 관계 형성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의 극대화를 위한 조직 운영관리와 인사관리가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차별적인 기업 운영 방식 등이 결국 해당 사회문제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공감하고 추가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동인이 되거든요. 결국은 정체성과 진정성의 문제인 셈이죠.

덧붙여서, 규모가 영세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민들의 삶에 밀접히 다가가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기술·노하우나 자원,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법·제도적, 정책적, 조직적 노력이 필요해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정성 있는 활동을 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 및 이해관계자 집단과 신뢰와 존중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미션을 중심으로 내·외부의 역량을 결집한다면 사회적경제가 어느새 내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걸 시민들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구명숙 ____ 사회적경제가 시민과 더 가까워지려면 지역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우선 교육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이 유년시절부터 일상 교육으로 자리 잡아야 해요. 정책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가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 과정에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경제 기업도 시민들의 생활문제를 협동의 방식으로 해결해가는 주체 중 일부라 생각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가 우리 일상에 공존하는 경제조직이며, 소상공인과 더불어 지역사회에 좋은 생활경제를 만들어가는 주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경우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하고 포용하는 정책과 예산 집행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논의 테이블도 만들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영압박 등 현실 문제에 숨통이 트여야 해요.

홍진주 ____ 저는 얘기하신 문제들을 해결하기 좋은 환경이 지역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지역에서도 우리 스스로 활동의 구획을 나누고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 해요. 특히 시민 체감형 사업을 하는 지역기업들이 그 경계를 넓힐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해요. 시민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가치 있는 경제조직이라는 정체성은 공고히 하되, 고객과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은 다양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 광역과 부처를 넘나드는 협업과 사례가 필요하겠죠.

시민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가치 있는 경제조직이라는
정체성은 공고히 하되,
고객과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은
다양하게 세워야 합니다.

홍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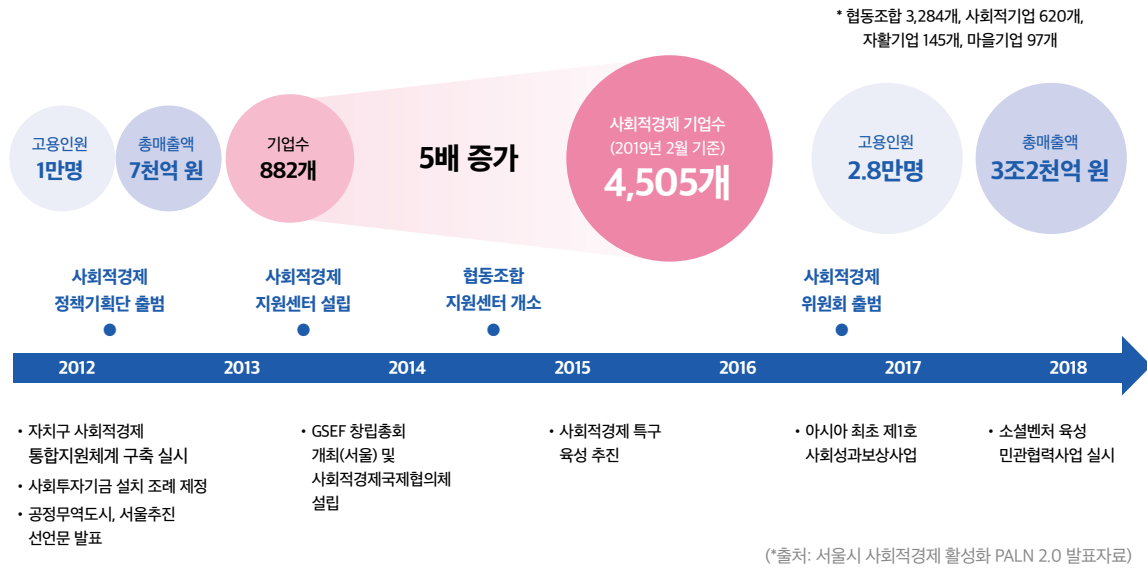




시민체감형 지역순환경제 구축 생활 속 사회적경제 온도 1도 높이기

서울시는 2012년 4월 사회적경제종합지원계획 수립에 따라 기업 성장지원 정책에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운영하고,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며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기획과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으로 글로벌 네트워크에 앞장서며 명실상부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도시로 발전하였다. 또한 기업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과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 시장과 민간시장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는 8년간 큰 변화를 만들어 냈다.

서울 사회적경제 종합지원계획 (2013~2019)이 일궜은 변화



제도적·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서울 시민들에게 사회적경제 인지도와 체감도는 여전히 저조했다. 사회적경제는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만 아는 정책이라는 인식이 높았으며, 제공되는 서비스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사회적경제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체감도가 낮았다. 2013년 이후 서울 시민사회의 역량이 향상되고 응집력이 강해지면서 시민이 사회적경제의 생산-소비-배분의 주체로 참여하고,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생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1.0 계획이 일궜 온 변화와 사업 경험과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시민체감형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핵심 추진과제로 세우고, 공동주택, 지역돌봄, 주민기술 기반 지역관리기업 육성을 중심으로 시민의 생활권에서 시민참여로 생산과 배분의 선순환을 위한 전략사업을 추진하였다.

시민체감형 사업1.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서울시는 인구 과밀화에 따른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중심의 주택 계획을 펼쳐왔으며, 공동주택은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되었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주택 내 갈등 해결과 신뢰 사회 구축을 위해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또한 2016년 중앙정부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관련한 정책지원의 증가로 공동주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고, 건물·시설물의 안전, 관리비 절감에 대한 솔루션 제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단지별 입주자 대표회의 등 자치기구 구성이 확대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 사업이 시행되었다.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의 활발한 공급으로 주거의 안정성을 갖게 되면서 주거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많은 가구가 집약적으로 모여있는 공동주택은 공동생활에 따른 다양한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공동주택 관리, 육아 지원, 노인 및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거주자에 따른 주거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주거서비스의 질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 구매와 생활의 질과도 직결되어있어 이에 주거서비스는 무분별한 이윤추구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다뤄지기보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 주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주거서비스의 가치를 확보하는 게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서울시는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이 사회적경제의 소비자, 투자자, 기업가로 참여할 수 있는 경로 개발을 통해 시민참여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에서 생산-소비-배분의 선순환 경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동주택 단지 내 사회적경제 신규 주체 발굴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연차별 사업 추진 개요

	1년차	2년차	3년차
목표	• SE소비공동체 형성	• SE경제공동체 형성	• 선순환 체계 구축
주요내용	• 아파트 필요서비스 발굴 • 아파트 특화서비스 설계 • 다양한 소비모임 형성	• 구매 상품서비스 확대 • 자치구 SE기업 연계 • 아파트형 마을기업 설립	• 추가 복합 서비스 개발 • 골목 상권 참여 연계 • 아파트 마을기업 활성화
주요서비스 (예)	• 우선수요 및 공간 기반 서비스 - 주민건강서비스(헬스케어) - 아이돌봄서비스 - 먹거리(조식·석식·도시락)	• 1년차 서비스 + 개별가정 및 생활재 서비스 - 노인돌봄 서비스 - 청소·가사 서비스 - 농산물 직거래 서비스	• 12년차 서비스 + 단지 통합 및 복합 서비스 - 아파트 장터 - 공용공간 시설관리 (청소, 조경, 경비 등)
기대효과	• 생활 불편요소 해결 • 사회적경제 인지도 증가	• 사회적경제 소비 확대 • 단지 내 주민 일자리 창출	• 골목경제 활성화 • 지속가능한 시스템 안착

시민체감형 사업2. 주민기술학교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과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며 주민공동체 기반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주민 참여와 지역문제 해결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에 맞춰 서울시는 돌봄사회로 전환에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며, 지역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방식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의 창출을 위해 주민기술학교를 설립하여 지역순환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였다. 주민기술학교는 주민 거주 지역에서의 다양한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인력양성을 통해 사회적비용 발생을 낮추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시범사업을 공모로 진행했으며 강동구, 마포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총 4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주거관리 분야(집수리교육), 일상편의서비스 분야(지역돌봄 전문가 양성)로 나누어 운영하였다. 2020년 21개 자치구를 선정하면서 3단계 추진과정에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원을 종료하였다. 지역을 연계한 현장형 교육 및 실습을 병행하는 주민기술학교는 장기적으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육성하고, 지역관리기업의 모델을 창출해가는 것으로 지역단위 공공서비스와 지역 일자리사업 등 공공·민간 서비스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주민조직의 수익구조를 형성하고 자립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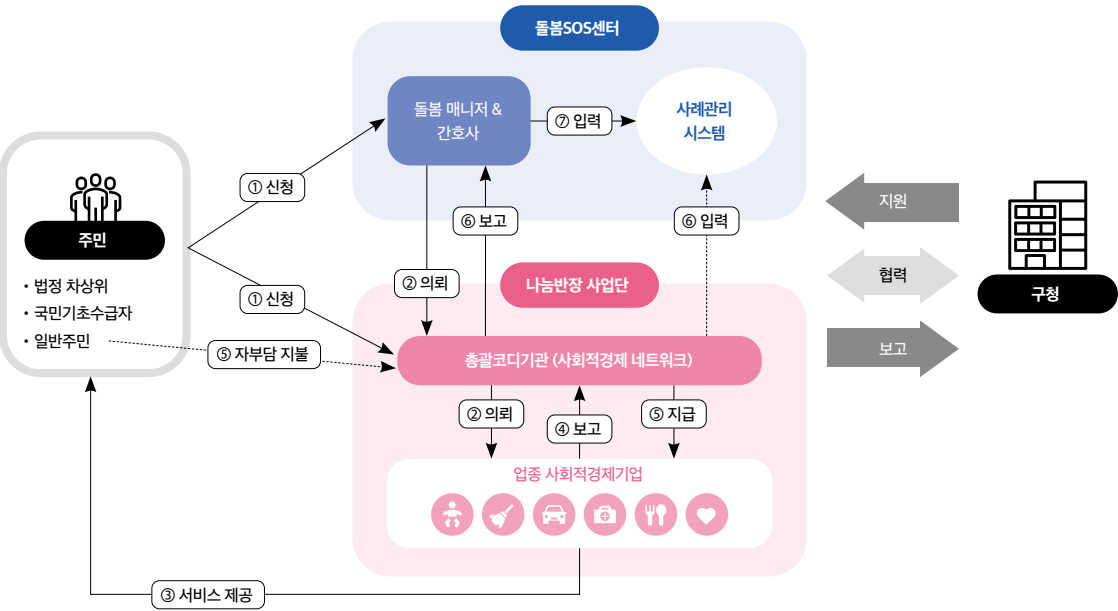
주민기술학교 단계별 추진 내용

1단계 주민기술학교 설립 및 운영	2단계 지역관리기업 설립·운영 지원	3단계 지역관리기업 통합본부 운영
- 주민수요에 의한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 마을과 학교를 연결한 마·학 현장형 교육 실행	- 주민학교 졸업생이 지역관리기업(협동조합) 설립 - 지역 공공서비스를 지역관리기업에 위탁 지원	- 각 지역관리기업의 자립을 위한 통합적 연구 및 기획 - 주민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

시민체감형 사업3. 우리동네 나눔반장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 등 사회보험 지출에 따른 복지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존의 병원과 시설 중심의 돌봄은 개인의 욕구와 개별화된 특징을 반영하며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급격한 가족 형태의 변화로 가족 구성원 내에서 돌봄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돌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가족이나 시설 중심의 돌봄이 아닌 지역사회 내 관계와 자원에 기반한 커뮤니티케어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10월, 서울시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9년 7월부터 5개 시범사업 지역(강서구, 노원구, 마포구, 성동구, 은평구)을 대상으로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을 추진하였다.

우리동네 나눔반장 동 단위 실무 프로세스



이에 서울시 사회적경제는 돌봄SOS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지역사회 내 돌봄 자원과 서비스 제공에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역공동체가 참여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동네 나눔반장’사업을 운영하였다. 동행, 주거, 식사지원 등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공급력이 확인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통한 양질의 일상서비스 공급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센터는 사회적경제 돌봄 광역추진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매년 참여 자치구 확대(5개(‘19) → 19개(‘20) → 21개(‘21))를 통해 자치구 기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돌봄SOS센터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단위 돌봄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정책 간 협력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2021년 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 돌봄지원팀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단은 돌봄SOS센터 전체 서비스 의뢰 건수(52,998건)의 58.8%(31,133건)을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공하도록 발굴·연계하였으며, 3대 일상편의서비스(동행, 주거편의, 식사지원)의 경우 (2021. 12. 기준, 전체 40,083건 중 76.5%(30,683건)를 제공하였다.

돌봄SOS센터 서비스별 기관유형별 의뢰량(2021. 1. ~ 12.)

구분	총계			서비스 유형별 의뢰량 (건, %)				
	기관(개소)	의뢰량(건)	의뢰율(%)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
합계	888	52,998	100.0	12,900(100%)	15(100%)	5,473(100%)	8,552(100%)	26,058(100%)
요양시설	2	3	0.0	0(0.0%)	3(20.0%)	0(0.0%)	0(0.0%)	0(0.0%)
장기요양시설	587	15,024	28.3	11,358(88.0%)	12(80.0%)	3,654(66.8%)	0(0.0%)	0(0.0%)
사회서비스원	39	1,194	2.3	877(6.8%)	0(0.0%)	307(5.6%)	10(0.1%)	0(0.0%)
이용시설	32	1,038	2.0	212(1.6%)	0(0.0%)	106(1.9%)	484(5.7%)	236(0.9%)
사회적경제 조직	123	20,551	38.8	311(2.4%)	0(0.0%)	1,010(18.5%)	3,385(39.6%)	15,845(60.8%)
자활센터	63	10,582	20.0	139(1.1%)	0(0.0%)	210(3.8%)	2,936(34.3%)	7,297(28.0%)
기타	42	4,606	8.7	3(0.0%)	0(0.0%)	186(3.4%)	1,737(20.3%)	2,680(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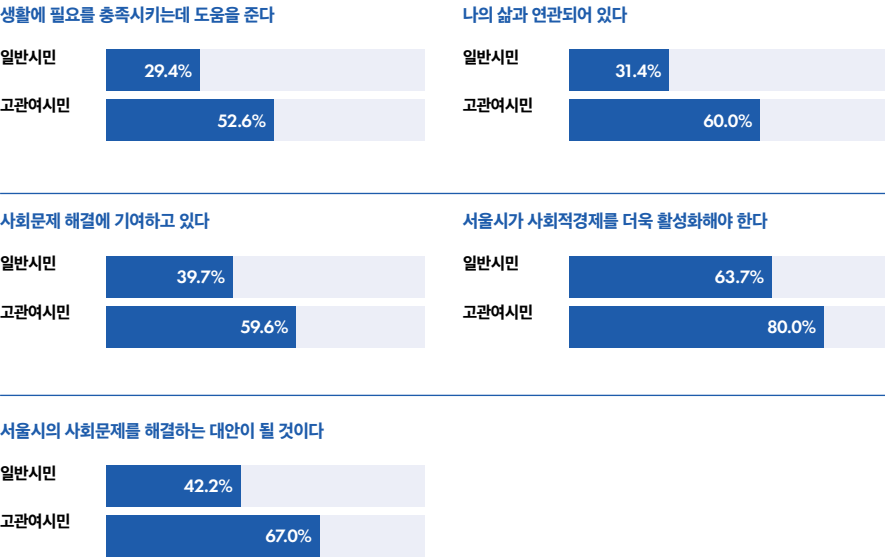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찾동추진지원단 돌봄지원팀)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 서울시 소재 돌봄분야 네트워크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돌봄 광역추진단에서는 광역추진위원회 및 5개 분과와 TF를 운영하여 ‘먹거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돌봄SOS센터 식사지원분야 사회적경제를 통한 ‘질 좋은 돌봄 서비스’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 간 연계로 실무도움서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 보람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서는 사회적경제 분야 중장년층의 일자리 발굴을 지원하는 ‘어르신돌봄지원단’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년 12월 기준, 18개 자치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 기업 및 중간지원조직에 32명의 어르신이 배치되어 행정지원·배송·서비스 모니터링 등의 지원역할을 수행하며 돌봄 분야 중·장년층 신규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시민체감형 사업은 서울의 시민생활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사업과의 연계로 생활서비스 발굴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 공급역량 강화와 지역 내 공동 생산 및 고용까지 매우 적극적인 경제 주체로 시민이 등장하는 과정이었다. 사회적경제 방식의 적용이 중요한 이유는 공동주택과 같은 주거문제와 돌봄 등 생활 및 주거 편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민간시장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지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 생산과 자원 배분, 고용 증진까지 지역주민에게 공동의 이익과 지역사회 신뢰형성으로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활동이 줄어 커뮤니티 형성과 신뢰 관계 구축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량적 성과 창출의 압박으로 어려움이 컸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체감형 사업은 사회적 위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동체 활동과 참여 주민의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활의 질 개선에서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생활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2020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개발 기획연구 「서울시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측정 연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





클. 오단이
강남대학교 교수

기고

‘시민경제’로의 ‘사회적경제’ 개념의 해체·재구성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주요 부처의 2024년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 예고하였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은 올해 2,022억 원에서 내년에는 786억 원으로 59%를 삭감하였으며,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 예산은 무려 91% 삭감하였다. 심지어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액 삭감하였다. 계속되는 세수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회적경제 예산뿐 아니라 국가 R&D 등 여러 영역의 예산을 삭감하였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異見)이 있다.

사실 서울시는 이보다 더 일찍 예산과 관련한 진통을 경험하였다. 사회적경제 미디어인 ‘이로온넷’ 2021년 11월 25일 기사에 의하면, 2022년 서울시 사회적경제 예산은 전년 대비 45.7% 삭감된 220억 원 편성이 되어 사회적경제 축소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유야 어떻겠으나 그간 서울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었는지 먼저 살펴보자. 서울시 사회적경제 1.0(2012~2018년)은 민관협치를 통해 공동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자치구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지역화를 도모하였으며, 신규 사회적경제 조직(협동조합 중심)의 양적 확대와 성장단계별 지원제도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에 대한 성과와 비판도 존재하지만 서울시가 광역 단위 사회적경제를 선도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한편, 2019년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을 선포하고 5개년 액션플랜을 제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조직 중심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에서 시민중심의 사회적경제 전략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 즉,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은 서울시민의 일상문제와 사회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시민 생활안전망 시민경제”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였다. 그 배경에는 시장경제의 부작용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함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가치가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떠올랐으며,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시민과 혁신주체의 증가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이자, 동시에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 시민중심의 정책 그리고 사회적경제 정책의 전환 시기로 보고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시 사회적경제 2.0의 정책방향은 생활권 단위 선순환 “사회적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해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첫째, 서울시민의 일상문제 해결 과정에서 생애주기별 필요 서비스와 재화의 이용을 사회적경제로 전환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사회적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생활관리기업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의 시민참여를 촉진하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일상성을 높이고 누구나 참여하는 시민경제로의 사회적경제 전환이다. 즉, 광역단위 사회적경제 정책사업과 기초(자치구) 및 지역단위 전략사업을 연계한 협업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시민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며, 정책사업으로 자치구 단위 “서울형 생활관리기업” 모형을 개발하여 지역 돌봄, 건강, 주거,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대 과제와 16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5대 과제는 시민체감형 지역순환경제 구축, 시민자조기반 형성 지원,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반 강화,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 제고, 판로개척 및 시민인식 제고, 혁신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이고 16개 단위 사업은 공동주택 같이살림 프로젝트 추진, 사회적경제 지역돌봄사업단 구축, 주

민기술학교 기반 지역관리 기업 육성, 연대·협력의 시민 자조기반 조성 지원,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소셜벤처 등 혁신기업 발굴·육성, 사회투자금 확대를 통한 사회적금융시장 견인, 사회성과보상사업 지속 확대, 사회가치평가시스템 구축, 중앙·지역간 정책전달 및 매개 역할 강화, 공공구매 및 민간관로 확대, 사회적경제기업 자율경영공시 활성화, 시민 인식개선, 사회적경제 혁신인재 양성, 국제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 강화 등이다.

2020년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 개념 및 가치확산 기초연구」에서 필자는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는 지역(생활문제) 기반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경제로 정의하였으며, 시민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함께 살맛 나는 더 나은 공동체를 통해 공동선을 이뤄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영역(돌봄, 교육, 주거 등)의 전문가 중심이 아니라 시민이 주체화되어 시장경제와 구분하여 사회적경제 제도권 내 조직 외에 마을공동체, 소상공인 등의 여러 주체들을 포함해야 하고,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조직이나 활동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맥아를 제공하는 다양한 조직이나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학술적 연구의 결과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대안 혹은 보완이라는 두루뭉술한 개념 제시로 ‘사회’만 강조되었고, 사회적경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혹은 기업의 지원으로 인해 공동체 지향·연대·협력 등의 본질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마무리하자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몰이해로 사회적경제를 좌파 이념으로 프레임을 덧칠해서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려면 사회적경제는 시민경제로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시민주도성은 갑자기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중간지원 조직의 창업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고 사회적경제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시민교육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방식을 넘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식 협업사업을 늘려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연스럽게 연대와 협력을 체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시민경제로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경제에 무관심한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와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구조(생활 속에 시민들이 필요와 관계를 채울 수 있는)로 전환하여 공동체의 일상성을 높여야 한다. 지역화 전략을 위해 지역순환경제 체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함께 생활 속에 시민들이 필요(needs)와 관계(relationship)를 채울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책적 설계를 진행해 공동생산과 소비가 구조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시민경제 사용으로 오는 혼란이나 경제활동 외 사회활동을 하는 조직과 사회적경제 간의 기계적인 결합에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적경제가 가지는 문제에 대한 해결기제로,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경제 주체로 시민주체를 강조한다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공동생산과 공동소비를 통한 다양한 주체들이 형성되는 것에는 긍정적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적경제가 지역(생활문제)을 기반으로 시민에 의한(by citizen), 시민을 위한(for citizen) 경제로 다시 태어나길 희망한다.⁰¹⁾

01.

“사회적경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경제로 재정립해야”(오마이뉴스, 오단이,
2023. 1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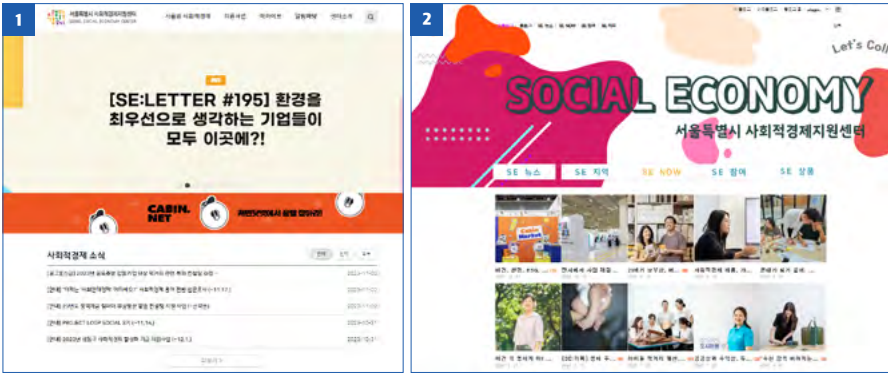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홍보와 확산

더 넓고, 더 멀리 사회적경제 공감대 확산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이후, 시정과 사회적경제 현장조직, 시민 간의 이해와 소통의 기반을 마련하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정보와 자원이 모이는 허브가 되었다. 2013년 3월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https://sehub.net/>)’을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소식과 사회적경제 교육·행사, 일자리 등 지원사업 정보를 교류하였고, 2023년 9월 말 기준, 월평균 방문자 수 10,522명, 월평균 페이지뷰 수 107,987회로 1인 기준 1회 방문 시 10회 내외로 웹사이트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센터는 포털뿐만 아니라 블로그,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센터 사업 홍보 및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관련 정보를 확산하고 있다.

- 1. 포털
- 2. 블로그



사회적경제 포털에는 공유자원, 부문/업종별 기업정보, 교육 및 채용 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이 상시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소식과 정보, 사업성과 확산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하도록 사업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기 뉴스레터 발송으로 사회적경제 종사자 및 관심자에게 정보와 자원, 서울의 변화 사례 및 성과를 콘텐츠로 제작해 확산하고 있으며, SNS를 활용하여 사례와 콘텐츠를 재확산함으로써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 페이스북
- 2. 인스타그램
- 3. 유튜브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보와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센터는 사회적경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회적경제 관계자 및 고관심자를 대상으로 서울 사회적경제 정보제공, 사업 및 정책 교류 등을 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7개 국내·외 기관의 5,439명이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방문하였고, 이러한 교류를 통해 서울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홍보하고 사례를 확산했다. 또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미디어와 협약을 추진하여 생활밀착형 사회적경제 기업 및 활동의 수범사례를 확산하고, 사회적경제를 알림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서울 사회적경제 언론 협력 추진 내용

2022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서울시 사회적경제 사업 홍보 협력
2021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기획기사 <이것이 사회적경제다> 4회, 홍보협력
	이로운넷	이로운넷 사회적경제 서울'판' 공동운영
2020	한겨레신문(주)	한겨레 서울& 기획보도
	이로운넷	이로운넷 사회적경제 서울 '판' 공동운영
2019	사단법인 빅이슈코리아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2018	한겨레신문(주)	지면 연계 독자 대상 캠페인
	JTBC(주)	서울시 사회적경제 홍보영상 제작(스팟영상 2종)
2017	한겨레신문(주)	사회적기업 10주년 공동 기획 3회
2015	한겨레신문(주)	사회적경제 연속 기획 시리즈 3회
	월간자치와협동	'월간 자치와 협동' 연계 월간 전략 캠페인 7회

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추진으로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홍보 방식에도 변화를 시도하였다. 기존의 미디어를 활용함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새로운 인재 유입과 일반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뉴미디어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민친화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홍보 채널과 방식, 대상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다양화시켜 나갔다.

사회적경제 뉴미디어 홍보 콘텐츠 제작(2019~2021년)

2019



서울소셜이코노미살롱 'SE 살롱'

소통의 장인 살롱(salon)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편하게 얘기 나누는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허브 역할을 하는 미디어 채널



사회적경제 해법 찾기 사.경.해

시민 대상 사회적경제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주거·일자리·재무관리 관련 사회적경제 해법 사례 콘텐츠 제작 및 확산

2020



바이소셜x서울 SE 크리에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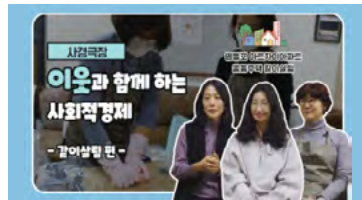
밀레니얼 세대 대상 크리에이터를 선정하여 사회적경제 활동과 경험을 소개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가치소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식 개선



하루인턴

사회적경제 현장의 일터 체험 관찰 카메라와 스튜디오 토크가 혼합된 예능 프로그램 운영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참여 독려와 흥미 촉진

2021



사경해법사전

일상적 소재를 이용한 다큐멘터리와 웹드라마 형식의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 제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도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상 속에서 선택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다.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것은 이슈에 대한 작은 관심에서부터 소비, 캠페인 활동과 나아가 실제 공동 생산과 수익 창출 과정까지 다양한 참여로 층위를 나눌 수 있다. 다양한 참여의 층위 맞춤 홍보로 나이, 성별,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유무를 넘어 이곳저곳에서 사회적경제를 제품과 서비스로, 새로운 트렌드와 정보로, 활동과 일자리로, 봉사와 캠페인 등 다양한 모양으로 만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장해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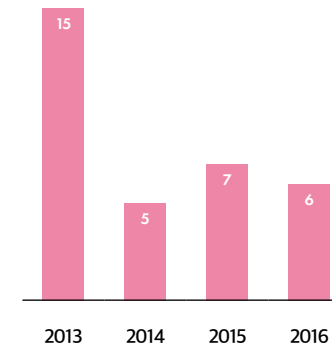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연구 사업

사회적경제 정책과 현장의 브릿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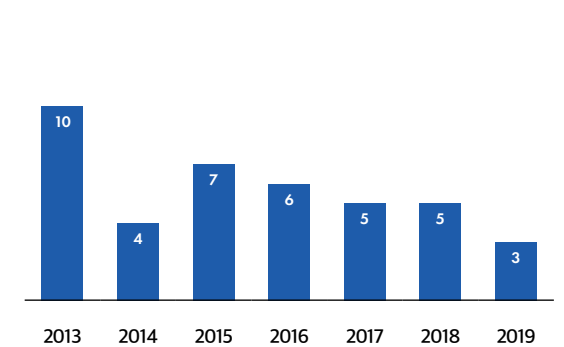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의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장 연구자를 발굴하여 현안 및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초기 사회적경제 분야별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새로운 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자원조사연구에서부터 시민체감형 전략사업과 같은 전략 개발을 위한 정책과 전략기획연구, 사회적경제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술연구 등 연구 사업 추진을 통해 깊이 있는 현장의 이해와 밀착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2013~2016년까지 현장제안 자율연구 공모를 운영하였다. 현장에 기반한 연구과제를 도출하고 전략 사업 또는 비즈니스모델로 실현가능하도록 총 33건의 현장 연구를 지원하였다. 연구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사회적경제 현장 사례 학습 및 정보교류를 위해 사회적경제 콜로키움을 연간 운영하였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40회 콜로키움을 진행하였고, 국내 사례뿐만 아니라 국외 초청 강연 등을 통해 다양한 사례가 교류되고 이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혁신적인 해결방식으로 모색을 위한 상호학습의 장을 만들 수 있었다.

자율공모 연구(2013~2016)



콜로키움 운영(2013~2019)



현장자율연구 외에도 센터는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기 전략 및 과제 도출, 시민공제조합,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 모델 연구, 도시재생지역 마을관리기업(CRC) 모델, 지역 돌봄모델 등 시민생활 연계 정책과 사회적경제 연계를 통한 활성화 정책 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2020년부터는 다양한 학문 분야별로 구성된 신진연구단을 운영하며 연구과제의 발전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신진연구단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운영하고 이를 뉴스레터 또는 발간물로 제작하여 그 내용을 확산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연구자 간 네트워크 형성과 센터사업의 효과성 및 성과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와 함께 현장성을 높여나갔다.

년도	주제 및 연구진
2020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적경제의 관계 및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문제 오단이 강남대학교 교수
	도시재생의 방향성과 특징 및 추진방식 내 사회적경제와 협업 지점 최유진 강남대학교 교수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노동 등 현대 노동의 다양성과 사회적경제의 대응 박경진 W기획연구소 대표
	한국 사회적경제의 역사 및 현장 연구를 통한 '사회(the social)' 담론 분석 이가람 사회학 박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원 특성과 그에 따른 자원 관리 방안 유한나 한신대학교 교수
2021	기업 사회공헌 방식의 동향과 사회적 가치를 위한 사회적경제와의 파트너 신수민 유한대학교 교수
	아시아 국가의 사회연대경제 제도 지형 비교 및 정책적 발전 방향 미우라 히로키 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소셜임팩트를 고려한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사회문제 접근 등 방법론 정유진 트리플라잇 공동대표
	서울 사회적기업이 주목하는 사회문제 미우라히로키 서울대학교 사회혁신 교육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정유진 트리플라잇 공동대표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시장 역량 신수민 유한대학교 교수 / 유한나 한신대학교 교수
2022	사회적경제와 지역자산화 최유진 강남대학교 교수 / 박경진 W기획연구소 대표
	지역사회 돌봄 내 사회적경제의 역할 오단이 강남대학교 교수 / 이가람 사회학박사
	주민자치회와 사회적경제 임상현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교수
	코로나-19 시기에 인-지정 제도가 사회적 경제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서진선 한남대학교 교수
	사회적경제 참여의도의 영향요인 규명 유한나 한신대학교 교수
	사회적자본과 사회적경제 참여의사 간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이경미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소 전문연구원
	사회적경제 조직의 돌봄노동에 대한 태도 박경진 W기획연구소 대표
	포스트코로나 사회적 자본으로서 아동돌봄 사회서비스의 사회적 협동조합 성장 가능성 신수민 유한대학교 교수



※ 센터 발간 자료와 기타 자료집은 서울 사회적경제 포털(sehub.net) 내 '아카이브-문서자료/홍보자료'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사회가치지표(S-SVI) 개발과 측정

The value: Making the invisible visible

초기 사회적경제 연구의 방향은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육성을 위한 전략사업의 모델 개발 및 현장 수요조사 등으로 현장의 사업실행과 비즈니스모델 개발 등 밀착지원을 위한 주제별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2020년 이후 사회적경제 활성화 2.0이 추진되며 연구 사업은 기존의 기획연구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정책을 통한 시민의 생활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서울 사회적경제의 환경에 맞춰 사회적경제 기업의 사회가치평가 기초 체계를 수립하여 서울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를 진단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 서울형 사회가치지표(S-SVI) 2.0을 개발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측정 컨설팅을 시행하였다.

서울형 사회가치지표(S-SVI) 구성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2.0으로의 변화는 시민의 생활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함에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를 근간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과 협력하고 시민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생산과 소비, 활동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뿌리내리는 것에 있었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미션 수행과 달성에 대한 미션 실천 성과영역으로 8개 영역,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역협력활동과 네트워크,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활동, 지역네트워크 협력활동 3개 지역협력 성과영역으로 구분되어 서울형 사회가치지표는 두 가지 측면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고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부 자원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 또한 가치지표의 중요한 지점이다. 몇 개의 지표만으로 모든 성과와 개선된 현상을 보여줄 수는 없다. 즉, 매출이나 고용의 지표로만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측정가능하도록 만들어가는 서울형 사회가치지표는 현재 개발과 현장 적용의 초기 단계이다. 모든 이들이 만족하는 지표가 되지 못할지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안을 통해 실효성 있는 사회가치지표로서 활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해간다면 수면 아래에 있던 성과들을 보여주고, 표현하지 못하여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거라 기대한다.



글 권소일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 조교수

기고

현장을 연결하는 브릿지, 사회적경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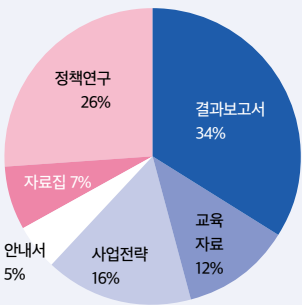
센터, 10년간 380여 권 발간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개소 10주년을 맞아 그간 센터에서 어떠한 연구사업을 해 왔는지 정리해보고 현장과 함께하는 연구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한다. 센터에서 3년간 근무한 ‘재직자’이자 이제는 ‘외부자’로서 연구물을 정리하려니 다소 낯설고 조심스럽다. 그러나 센터에서 출간해 온 연구의 소중함을 다지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전달하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센터에서 발간한 발간물은 380여 권으로 1년에 평균 38종의 발간물을 쏟아냈다. 발간물 안에는 정책연구 보고서(26.0%)도 있지만, 사업결과 보고서(34.0%), 전략보고서(16.0%), 교육자료(12.0%), 사업 매뉴얼(5%)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소개되는 자료들이 함께 출간되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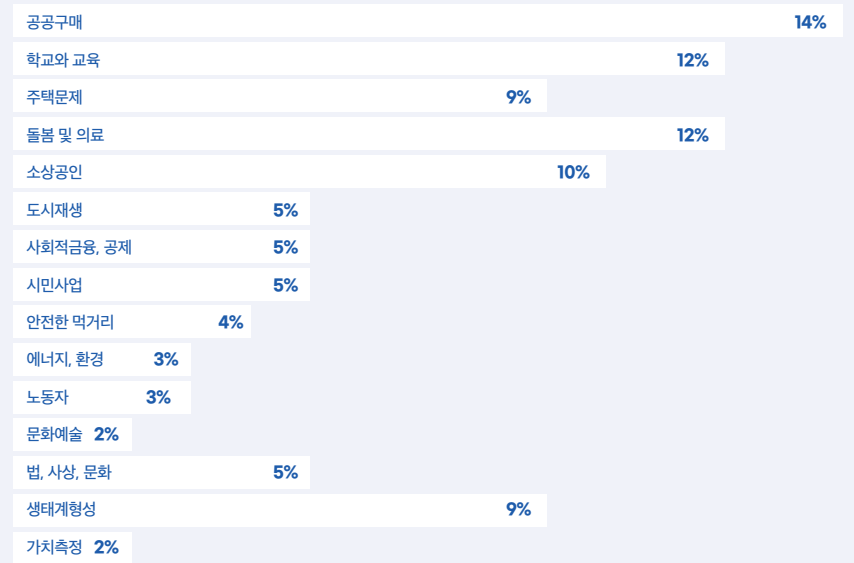
서울에서 처음 시도되는 많은 실험을 센터에서 지원사업으로 수행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사업결과 보고서가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지역특화사업단에 대한 사업결과, 컨설팅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 성장기 사회적경제 기업가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결과보고서로 기록되어있다. 특히 다양한 국가들의 기술 방식과 선진사례를 익힐 수 있도록 현장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적용 방식을 보고서로 남긴 해외연수 결과보고도 많이 있다. 그중에는 2015

[그림 1] 2013~2022년 발간물 현황



년에 한 의료협동조합이 다녀온 이탈리아 ‘카디아이’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보고서가 있다. 이후 많은 돌봄제공 조직들은 사업 방향을 카디아이 사례를 적용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다양한 형태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내 사회서비스 제공의 선진국 사례로 소개된 이탈리아 카디아이를 센터는 이미 8년 전에 경험하고 서울 각 지역에서 적용한 셈이다. 서울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여러 방면에서 좋은 사례로 꼽히는 것은 현장조직을 아낌없이 지원한 결과가 빛을 낸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림 2] 발간물 주제 모음



또한 센터 발간물의 주제가 다양한 영역을 섭렵해 왔다는 점에서 놀랍다.^[그림 2] 지난 10년간 발간된 보고서의 주제는 1)학교교육, 주택문제, 돌봄과 의료, 안전한 먹거리와 같은 시민의 삶과 관련된 주제 2)공공구매,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 금융, 사회적경제 생태계형성, 사회적 가치 측정과 같이 사회적경제가 조직으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주제 3)에너지와 환경, 노동자, 문화예술, 도시재생 등 산업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하는 것으로 크게 나뉜다. 이러한 주제들의 보고서는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가능하도록 다양한 주제에 대해 화두를 던지고 확장된 논의가 가능하도록 포문을 열어주었다.

교육·주택 등 생활문제 해결에 주력했던 초기 연구

초반기(2013~2015년)에는 ‘교육’과 ‘주택’이 주제로 많이 다뤄졌다. 당시 사회적경제 운영방식을 국내 정책으로 도입할 때 각종 사회문제의 해결사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중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교육과 주택문제를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센터에서는 경쟁과 서열화가 만연한 교육현장에 협동조합이 들어왔을 때,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학교 현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도록 기회를 주고 공론장을 열었다(학교협동조합 활성화방

안연구, 2014). 이후로도 학교협동조합 매뉴얼 발간(2016), 학교협동조합 제도개선 토론회(2016) 등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많은 현장가,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학교 내 의사결정자로서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고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주택문제도 마찬가지다. 엄청난 집값을 지불하고도 시민들은 왜 층간소음과 열악한 구조에 시달려야 하는지 답을 찾지 못했다. 이에 사회적경제는 건설사와 시행사는 상상도 못 할 이익을 가져가고 피해는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는 이유에 대해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협력적 주거에 대한 사회적경제 사례연구, 2013;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한 빈집 활용연구, 2014). 이후 공공성 증대를 위한 주택협동조합 소유구조와 운영에 관한 연구(2016), 지속가능한 품질연동형 사회주택임대료 산정체계연구(2018)로 이어가면서 서울에서 가능한 구조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나갔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제로 사업모델로 발전하면서 협동조합형으로 아파트를 짓고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도시의 모습이 현실화되었다(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중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발간물 많아

중반기(2016~2019년)에는 협동화 사업, 규모화 사업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기획,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반 마련을 위한 발간물이 다수 보인다. 이러한 주제의 특성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지만 섣뚱 도전하기 힘든 분야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획한다는 점이다. 공정무역, 플랫폼 노동자, 발달장애인 일자리 등 여성, 장애인,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를 안정화할 방안을 발굴하고 지속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 중 짚어보고 싶은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사업모델연구(2019)’이다. 대리운전자, 가사관리사, 퀵서비스 직군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만들고 고용관계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자는 내용이다. 그전까지 각 직군이 따로 접근하였다면, 해당 연구는 모든 플랫폼 노동자가 함께 연대하여 통합적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하였다. 통합적 플랫폼으로의 논의는 각 직군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맞출 수 없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 다양한 곳에서 목소리가 나왔겠지만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22년에는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직군으로 포함되었다.

이렇듯 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단독 사업모델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 협업이나 연대하여 비즈니스 영역을 발굴하는 모형을 지향했다. 협동조합간 거래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2013), 협동화 지원사업 성과(2016), 지역기반 생활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서 시민프랜차이즈 가능성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2018) 등이 예이다. 동종업종에서의 협업도 어려운데 이종 협업을 지원하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협업화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규모가 비슷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상권에서 살아남기 위해 같은 가치를 가진 조직들과 머리를 맞대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람을 모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혁신은 거창할 수 있지만 이렇게 작은 시도에서 시작하여 큰 것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후기, 사회적경제 조직 성과를 드러내는 연구에 집중

후반기(2020~2023년)에는 서울형 사회가치지표 제작, 사회적경제 시민체감도 측정, 마을기업 성과분석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를 드러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 방식을 발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서울형 사회가치지표를 만든 목적은 서울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서울의 사회문제를 어떻게, 얼마나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이었다(서울형 사회가치지표 개발 및 측정연구, 2020; 서울형 사회가치지표 측정방법 고도화 연구, 2021). 이 지표의 활용은 소비자의 윤리적 선택을 돕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를 부각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 분야의 신진연구자들이 모였던 자리도 의미 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높은 경영학, 사회적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젊은 학자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고 현장과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였다. 자신의 전공 분야 외의 사람들을 만나 자연스럽게 영감을 얻고 새로운 연구, 활동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센터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음에도 포스트코로나 시기를 사는 서울의 사회적경제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준 것에 감사하다.

자율성·전문성 기반의 연구환경 마련, 새로운 화두 던지는 연구 필요

이처럼 다양한 주제를 섭렵하여 연구와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센터가 중간지원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이다. 사업 형태는 연구, 기획, 교육, 지원사업 등으로 진행하되 자율성이 보장되니 일선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었고, 이에 사업들의 효용성도 높았다고 본다. 센터의 역할이 어느 하나로 고정되어 있었다면 펼칠 수 없었던 점이기도 하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가까이에서 듣고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한 것이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센터는 현장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사회는 급변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언제나 그랬듯 선제적으로 화두를 던져야 한다. 또한 산업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초 가치 확산, 법률 개선, 데이터 구축을 토대로 안정적 산업 분야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길 바란다.

끝으로 발간물의 결과를 아무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결과물을 공유하는 꾸준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아카이브 작업이 유지되어 명실상부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명맥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



OUTRO

좌담	서울 사회적경제 함께 걸어갈 10년
기고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

2022년 UN은 제77차 정기총회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결의하였다. 사회적경제는 오래전부터 그러하였듯이, 사회의 이면을 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연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견인해야 한다. 사회연대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서울 사회적경제는 향후 이러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기본 인프라를 만들고, 지원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다양한 혁신사업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리더들을 발굴해왔다. 그동안 몰두했던 일들을 지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와 변화의 모멘텀을 발견해보고자 한다.

SEOUL M! SOUL

마음이 모이면 서울이 됩니다

서울 사회적경제 함께 걸어갈 10년

일시

2023. 9. 12(화) 15:00~17:00

참석자

박미현 터치포굿 대표(좌장)
서인아 컨서스웨어 대표
서사라 지구자판기 대표
윤은빈 위드위드아웃 대표
김지민 에이드런 대표



지난 10년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많은 굴곡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야 했기에 그 과정이 녹록지만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서울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또 다른 위기에 놓여 있다. 대외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정책이 축소되고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한때 국정과제로 주목받던 사회적경제 위상과 규모가 약화하였다. 내부적으로도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하락, 조직 내 세대 갈등, 협력 문화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자며 다시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 길에 지난 10년의 성과를 이어 온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의 참여 또한 이어지고 있다. 향후 10년을 서울 사회적경제를 더 넓고, 더 큰 연대의 길로 안내할 청년 사회적기업가들과 함께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이야기해 보았다.

박미현 — 향후 서울 사회적경제를 이끌어갈 사회적경제 젊은 리더분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10년을 맞이한 서울 사회적경제가 향후 어떻게 가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저는 터치포굿 대표이자 (사)서울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공동대표 박미현입니다. 참여자분들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사라 — 지구자판기는 리필스테이션의 접근성을 높이는 리필 IOT 자판기로 행사 및 교육을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리필스테이션 매장에 관심이 커졌지만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기에는 매장이 부족해 그런 불편함을 덜고 리필 문화를 살리자는 뜻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서인아 — 대학 졸업 후 글로벌 패션기업에서 일하며 버려지는 의류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며 회의감이 컸죠. 결국 퇴사 후 패션브랜드 ‘네이크스’를 만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소셜엔터프러너십 MBA를 전공하며 브랜드 운영뿐만 아니라 친환경 패션쇼,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최근에는 좀 더 스케일업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생각에 옥수수에서 추출한 바이오매스 소재 개발과 바이오 가죽 브랜드를 개발·판매하는 ‘컨서스웨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지민 — 어릴 때부터 미술과 아이들을 좋아했어요. 미술대학 진학 후 양육시설에서 미술교육 봉사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지속해서 지원해주는 장기프로그램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더 오래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시작한 게 ‘에이드런’이에요. 에이드런은 양육시설의 아이들에게 미술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아이들과 함께 그린 그림을 패턴디자인으로 재구성하여 패션잡화, 리빙제품 등 디자인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디자인 브랜드예요.

윤은빈 — 가게에서 샐러드를 구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화용기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샐러드웍스’를 운영하는 ‘위드위드아웃’을 2021년 창업했어요. 사업 초기 생각보다 많은 고객이 다화용기와 일회용기 중 다화용기를 선택하는 걸 알았어요. 다화용기를 더 많은 사람이 찾도록 해야겠다는 고민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다화용기 선택 비율이 95%까지 늘었고, 반납률도 90% 이상이에요. 최근에는 대학가 중심으로 샐러드를 직접 만들어 가게로 보내는 서비스를 시작해 매월 두 배씩 매출이 올랐어요. 식음료 부분의 다화용기 전환도 계획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원순환, 환경서비스 확대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회적경제에 관심

150

박미현 ____ 앞서 기업 소개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뛰어들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왜 사회적경제에서 자신의 가치와 비전을 찾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서사라 ____ 학창 시절부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의료봉사자가 꿈이었어요. 그러던 중 한 행사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꿈꾸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의료봉사자는 한정된 대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만, 사회적기업가는 더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그때부터 브랜딩, 마케팅 등의 수업을 듣고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사회적경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개인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보니 리필스테이션을 자주 이용하게 되었고, 소비자로서 ‘우리 집 앞에도 리필스테이션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지구자판기를 창업하게 되었어요. 사업 초기에는 돈이 없어서 종이상자로 자판기를 만들어 직접 자판기가 되기도 했어요. 직접 소비자를 만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체감하면서 가능성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통해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지구자판기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인아 ____ 저도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사회적경제라는 부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로 창업하게 되었죠.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사회 가치를 높이는 일이 아니었다면 창업의 길을 가진 않았을 거예요. 기존의 일 경험을 통해 체감한 고용 문제와 환경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김지민 ____ 저는 사실 사회적경제를 잘 몰랐어요. 대학생 때 잘 모르고 창업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로 이어진 케이스죠. 사업 초기에는 사회 가치를 실현하겠다 이런 고민보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게 미술이라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 위키서울 공모전, 크라우드펀딩,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단계별로 심화과정에 참여하면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사회적경제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더불어 지금 이 일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죠.

윤은빈 ____ 저는 경영학 공부를 하고 있어서 평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문제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기업 경영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죠. 그래서 그 일을 알게 된 학창 시절부터 사회적기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돈을 많이 벌면 더 광범위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사회적기업 출신 최초의 유니콘이 되고 싶어요.

고객들의 응원·함께하는 구성원이 사회적경제 지속하게 하는 힘

박미현 ____ 다들 기업을 시작하신 자신의 개인적인 동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실상 사회적경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실제적인 일, 현실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는 물론 경제적 성과까지 내야 하는 부담이 있기에 사회적경제 기업 운영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을 듯한데, 그런데도 사회적경제를 지속하는 동기가 궁금해요. 어떤 부분들이 사회적경제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힘인지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윤은빈 ____ 함께하는 구성원을 보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보면 힘이 나요. 정말 사랑스러운 고객이 많은데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정성스럽게 자기 채널에 소개해주는 분도 계시고, 직접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 주는 분도 계세요. 거창한 것보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작은 것들로 오히려 동기부여를 얻고,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아요.

김지민 ____ 공감합니다. 저도 번 아웃이 왔을 때 이 일을, 우리 브랜드를 얼마나 사랑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무렵 고객 인터뷰를 했는데, 너무 많은 분의 따뜻한 말과 응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고객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좌절했는데, 그런 응원을 받고 나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브랜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 동기부여예요. 그게 내가 이 일을 끌고 가는 힘이기도 하고요.

서인아 ____ 저도 비슷한데, 제품을 출시하면 제일 먼저 구매해주고 메일이나 DM으로 제품 후기나 기프트콘 등을 보내는 고객들이 있어요. 또 한 고객은 원데이클래스에 참석하곤 오늘 하루 중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죠. 그런 고객들의 반응이 기업을 지속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요.

서사라 ____ 저는 동기부여가 되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매출이나 고객 수 증가와 같은 정량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브랜드에 우리의 철학이 담겨간다는 것을 느낄 때 스스로 성장하는 걸 느껴요. 또한 외부 강의를 나갔을 때 제 이야기를 듣고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을 보면 고맙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 또한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앞서 많은 분이 얘기한 것처럼, 지구자판기 사용자

가 늘고 그 사용자들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 줄 때인데요. 사업 초기부터 편지와 쿠폰 등을 보내며 응원해주는 사용자들이 있는데, 정말 많은 힘이 돼요.

박미현 ____ 기업이 만들어가는 미션과 이를 이해하고 이용해주는 고객,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을 보며 대표님들은 동기부여를 얻는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네요. 이번에는 대표이자 동료로서 함께하는 직원들에게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나가지는도 궁금하네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사회적경제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되었어요.
더불어 지금 이 일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죠.

김지민

151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박미현

윤은빈 ____ 저희 회사에는 주로 동기부여가 된 분들이 오셔서
제가 따로 동기부여를 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었어요. 다만 개
인적인 생각을 얘기드리면, 대표만큼 직원들도 사회적경제 일
원이 되는 것에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 가치를 중요시 해서 다수가 선택하지 않는 길
을 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도 동기부여가 자아실현
에 있어야 한다고 봐요. ‘내가 살아가며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관심 가진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 회사에 오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서사라 ____ 처음에는 직원들에게 급여나 복지 이런 것들이 중
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함께 생활해보니 우리가 가진 가
치를 더 중요시한다는 걸 알았죠. 저는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환경 강사, 플로깅 전문가와 같이 이 일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역량과 정체성을 만들 기회를 제공해요. 그러면 그 역
량을 성장시키기 위해 직원들도 더 노력하거든요.

서인아 ____ 저는 나이와 상관없이 수평적이되 상대를 존중하
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또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나
배경에 관심이 많아서 직원들과 자주 티타임을 가지며 면담지
를 작성하는데요. 직원들의 소소한 부분까지 챙기고 관심을 표
현하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일을 위해 모였지만, 일상에서 많
은 시간을 보내는 동료들과 조직 안에서 서로 간의 관심을 가
지는 것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라요. 그리고 큰 목표보
다 작은 도전과제를 던지거나 다음 단계를 제안하면서 작지만
확실한 성공의 경험을 가지도록 돕는 것도 동기부여 방법 중
하나예요.

김지민 ____ 우리 브랜드를 구성원 모두가 같이 이끄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요. 어떤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지 워크숍이나 대
화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과정을 함께 만들면 구성원들이 느
끼는 성취감도 클 수밖에 없죠. ‘내가 하는 일이 내 자아다’는
걸 심어주는 게 우리 회사만의 동기부여 방법이에요.

청년 사회적기업가들은 외부 위기에도 사회적경제 영
역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시민(고객)들의 지지가 중요하
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은 사회적경제의 존재 이유면서
도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사회적경제의 정체성을 더 단
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는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직원 개개
인이 조직의 주체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아실현의 계기
를 마련해주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
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기업 운영의 장애물

박미현 ____ 앞서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기업에서
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나 돌아보게 되네요. 한편 대표
님들의 경험을 저도 적용해보아겠다는 생각도요. 10년 넘게 기
업을 경영하면서 기쁨도 많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
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 오신 대표님
들과 사회적경제 기업을 경영하며 장애물이라 생각하는 요소
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윤은빈 ____ 사업 초기에는 스타트업으로서 겪는 어려움이 많
았어요. 좋은 팀원의 이탈, 서비스 정체 등이 그런 어려움이죠.
사회적경제이기에 겪는 어려움을 꼽으라면, 사회 가치를 우선
하여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도 더 들고 속도도
느려진다는 점이에요.

김지민 ____ 저에게 어려움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미지인데
요. ‘사회적경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착하다’는 이미지를 많
이 떠올려요. 그것도 맞지만 저는 ‘잘한다’는 말이 더 많아졌으
면 해요. ‘착하다’는 이미지의 한계와 소구포인트에서 ‘착함’의
이미지만 강조되는 것은 기업의 측면에서도 브랜드를 각인시
키기가 어렵거든요.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런 사회적경제의 이
미지가 장애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 말도 맞지만 그 단어에
앞서 ‘잘한다, 재미있다’ 이런 단어들이 더 각인되었으면 좋겠
고, 그것이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
요.

서인아 ____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패션브랜드로 성장
하려다 보니 사회적경제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오히려 패셔너
블한 이미지와 상반되어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
양한 이미지, 브랜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저희는 대체가
죽으로 상품을 제작하고, 친환경 소재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일반시장과 가격경쟁에서 친환경 자재
단가를 맞추는 일도 저에게는 어려운 과제예요. 이런 부분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나,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 제품의 질
이 가진 의미가 가격으로 잘 책정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합니다.

서사라 ____ 사회적경제에 입문하면서 정부 지원을 통해 더 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가치를 높이고 싶었어요. 최근 사회
적경제에 대한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기도 떨어지고
안타까워요. 민간에서는 임팩트 투자가 늘어나는데 정부에서
는 예산을 줄이니 아이러니죠. 앞으로는 이런 장애물을 잘 극
복해서 사회적경제가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되어 사회적경제
에 소속된 기업이라는 게 오히려 우위에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
으면 좋겠어요.

사회적경제 더 넓고 멀리 함께 가기 ‘너, 내 동료가 돼라’

박미현 ____ 오늘 좌담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일반 기
업과 비교해서도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업을 잘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 소속되면 재미있고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다’ 이
런 이미지가 생기면 좋겠다고 얘기해주셨는데요. 공감되는 부
분이 많네요. 그렇다면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면 앞으로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인아 ____ 저는 학생들과 소셜프로젝트를 할 때, 근황 토크를
통해 학생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 관심에 맞추어 다양하게 접
근해요. 사회적경제를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도 딱딱한 개념보
다는 개인의 이슈와 연관해서 설명해주면 더 친근하게 느낄 것
같아요. 주변에 사회적경제 기업은 아니지만 사회 가치를 추구
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강조해서 더 많은 사람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면 좋겠
어요. 또한 같은 분야 기업들만 어울리지 말고, 다른 영역 주체
들과의 네트워크도 활발해졌으면 해요.

사회적경제가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되어
사회적경제에 소속된 기업이라는 게
오히려 우위에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서사라



서사라 — 다른 영역 간의 네트워크는 저도 동의해요. 저는 8개 환경기업 대표들과 '지킬로드(지구는 지키는데 외로운 대표들)'라는 네트워크 활동을 해요. 환경이라는 공통된 영역에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는 일은 다 달라서 도움이 돼요. 사회적경제가 가진 강점이 다양한 영역 간의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는 것이기에 이런 강점을 잘 살려서 통합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해요. 그리고 소비자를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대상으로 한정 짓지 않고 '혁신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새롭게 포지셔닝 한다면 더 많은 소비를 촉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 내부에서 사회적경제에 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반 기업들은 이미 정해진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지만, 사회적경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활동들이라 성공 여부를 떠나서 사회 인식과 문화를 바꾸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커요. 그게 또 사회적경제가 가진 매력이기도 하고요.

김지민 — 저는 사람들이 사회적경제를 볼 때 '재밌다'는 이미지가 강했으면 좋겠어요. 저 또한 재미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였기에 남들이 보기에도 좋은 일, 착한 일 보다는 재밌게 일한다고 할 때 좋아요.

고객인터뷰 답변 중 하나가 '에이드런 제품은 제작 전 과정에 사회 가치가 느껴져서 좋다'였어요. 고객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보고 싶냐고 물으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미술 수업 때 아이들과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대표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등이라고 대답해요. 기업 경영의 전 과정에 스토리가 있고 재미가 있다는 게 바로 사회적경제가 가진 강점이에요. 다른 기업들도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을 스토리로 담아 더 많이 알려나가면 좋겠어요.

윤은빈 — 저도 비슷한 생각이예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남을 돕는 걸 좋아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점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이 영역이 재밌어 보이고 스스로를 찾아가는 자아실현의 관점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사회적경제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기업임에도 경제활동이 어렵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사회문제도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이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더 경제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끼리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주체들과 교류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박미현 — 사회적경제에 대해 앞으로의 방향까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사회적경제에 대해 막 알기 시작한 시민들, 또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사회적경제란 이런 것이다, 이것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하면서 좌담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사회적경제를 개인의 이슈와 연관해서 설명해주면 더 친근하게 느낄 것 같아요.

서인아



스스로를 찾아가는 자아실현의 관점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사회적경제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 같아요.

윤은빈

서사라 —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창업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고민을 이룬 나이에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가 깊게 성장하고 있다는걸 느껴요. 바로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만드는 중독적인 요소죠.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이 사회적경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자아실현과 성장의 경험을 해보면 좋겠어요.

윤은빈 — 사람은 누구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요. 이런 고민은 결국 '어떻게 일 할까'와 맞닿아 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서로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게 돼요. 사회적경제는 그걸 가장 선두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곳이에요. 어떤 존재로, 사회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것인가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이 일에 미래세대가 두려워 말고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서인아 — 개인적으로 창업을 시작할 때 원대한 꿈을 가졌어요. '그걸 이뤘느냐하면 워낙 큰 목표라 온전히 이룬 건 아니지만,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의 노력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학생들도 당장 창업을 통해 큰 목표를 이루려 하기보다는 '많은 이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 나갔으면 해요.

김지민 — 저는 무작정 사회적경제에 뛰어들라 말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을 먼저 찾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일을 찾았을 때 그게 사회에 필요한 일이 되게끔 하는 것이 더 삶의 재미를 찾고 지속가능할 수 있는 방법인 듯해요.

박미현 — 오늘 네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동기부여가 된 시간이었어요.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저는 오히려 말리는 입장이었어요. 그동안은 하나의 유행처럼 창업을 독려하는 분위기여서 떠밀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도전하길 바라요. 사회적경제 지원이 축소된 지금이 오히려 적기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잘 정리해서 사회적경제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다 생각해봅니다.

좌담 말미, 참여자들에게 사회적경제를 앞으로 알아 갈 미래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하니, 사회적경제를 성장의 기회, 서로 연결된 사회에서 연결을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는 곳, 좋아하는 일이 사회에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곳이라 표현했다. 사회적경제를 소개하는 표현은 서로 달랐지만,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이라는 것. 경제와 가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정은 힘들지만,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의미 있는 길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서울 사회적경제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본다.





클.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

기고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

“적합한 기후의 출현은 우연이었지만, 우리 생존에는 필연이다. 이제 인간이 기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이 우연이 지구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인간의 실패는 이 우연을 안다는 데 있고, 인간의 위대함은 이 우연을 다루는 데 비로소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가 쓴 『파란 하늘, 빨간 지구』에 나오는 문장이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구에 뿜어낸 온실가스가 지구 평균 기온을 1.1℃ 올렸다. 1.1℃ 상승한 지구에서는 기상이변과 해수면 상승, 대형산불과 빙하가 녹아내리는 기후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만든 위기, 우리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인간의 위대함을 발휘할 수 있을까?

1.5℃ 마지노선

2018년 IPCC 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한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안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금 속도로 인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2030년 경 1.5℃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1.5℃ 이내에서 지구 평균 기온을 안정화하려면 적어도 2050년 이전에 탄소중립을 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인간이 지구의 대기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80억 명에 달하는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지구대기에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

지 않으려면 배출량이 제로가 되거나,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조금이라도 배출하면 그 양을 흡수 또는 상쇄해서 순배출이 제로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인간의 화석연료 연소로 배출되는데, 탄소중립은 인간이 200년 이상을 사용해온 석유, 석탄, 가스를 단 30년 이내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5,115만 8,000명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총 60여기가 넘는 석탄발전소가 있다. 총 전력 생산에서 석탄 발전 비중은 33.93%, 가스 28.09%, 원전 27.8%, 태양광 4.8%, 풍력 0.56%(2022년)이다. 전력 중 화석에너지가 생산하는 비중은 62%가 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는 총 몇 대의 자동차가 달리고 있을까? 2023년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2,550만 대가 넘는데, 이것은 인구 2명당 차 1대씩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에는 1,225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산업부문은 산업에서 소비하는 전력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앞에서 제시한 석탄발전소, 자동차등록 대수, 산업단지 수는 상징적인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모습인데, 2050년에 탄소중립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석탄발전소, 내연기관 차량, 주유소 같은 화석연료 기반 시설은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중립’은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적경제

이처럼 기후위기의 원인은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석유, 석탄, 가스를 태워서 작동하는 탄소 경제,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로 작동하는 인간의 경제시스템에 있다. 현재의 경제시스템이 기후위기를 초래한 것이다. 이제는 다른 경제를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는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로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이다. 사회적경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며,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에 기후위기 시대, 모두의 삶을 지키는 대안경제가 될 수 있다. 사회적경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은 에너지, 건물, 교통, 자원순환, 생태계보호와 생물다양성, 교육, 재난 대비, 돌봄, 건강과 의료, 예술과 놀이, 먹거리 등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된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순증 제로를 달성하려면 꼭 필요한 생산과 소비로 경제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상품과 인간의 이동 자체가 줄어야 하기에 지역 단위 생산과 소비가 중요해진다. 국가 간의 수출 분야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해지면 수출주도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내수가 중요한데, 내수도 어떤 생산과 소비인지를 따져야 한다. 첫째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 생산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둘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산과 소비인가, 셋째 기후재난에 대응해 지역사회 회복력을 높일 수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대안경제는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공병원, 폭염과 한파를 견디는 안전한 집, 편리한 공공교통과 자전거 도로, 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자원순환, 집 근처에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공원이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고, 새로 짓는 건물은 에너지 제로 건물로서 노후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하는 일에 돈을 써야 일자리도 만들고 온실가스도 줄인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교육하고, 강과 숲을 가꾸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며,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시민들도 재난에 안전할 수 있도록 재난 대비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동네 친구와 이웃은 긴급할 때는 도움을, 평온할 때는 행복감을 주며, 이들과 동네에서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다면 모두의 행복을 위해 좋을 것이다.

2050년의 에너지 미래와 에너지프로슈머

2050년 탄소중립 사회가 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떻게 바뀔지를 상상해보자. 화석에너지를 사용하면 되지 않기에 석유, 석탄, 가스가 하던 역할을 전기가 하게 된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것처럼, 농기계도 전동화되고, 디젤어선은 전기 어선으로, 또 산업단지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전기로 전환된다. 전력화는 전기수요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탄소배출이 없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와 같은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고, 낮에만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바람이 불어야 전기를 생산하는 풍력이 늘어나면 전력망 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장장치, 지능형전력망, 전기를 열이나 가스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섹터 커플링 기술이 발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이 에너지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는 에너지프로슈머로 역할하게 된다. 에너지프로슈머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협동조합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쇠나우 시민들은 1997년부터 전력망을 사들여 전기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현재 쇠나우 전력회사(EWS)는 21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독일 최대 재생에너지 전력회사로 성장했다. 1987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핵 없는 미래를 위한 부모 모임(Eltern für eine atomfreie Zukunft)’이 원전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시작한 일이 현재의 EWS로 발전하였다. ‘쇠나우 전력회사(EWS)’는 1997년 7월 1일 첫 전력 공급으로부터 26년이 지난 지금 249명의 직원을 고용하며 21만 가구에 전력과 열을 공급하는 독일 최대 재생에너지 회사가 되었다. EWS는 전기와 열 판매, 에너지 공급망 건설과 운영, 풍력발전소를 포함한 분산형 발전소 계획·건설·운영 등 종합적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예상 매출액은 약 5억 유로(7068억 원)다.

쇠나우 전력회사 같은 협동조합이 성장하게 된 계기는 독일 정부가 2000년 재생에너지 법을 통해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생산에 뛰어들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제도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은 에너지협동조합이 에너지 생산 및 공급부터 전력망 운영, 에너지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여기에 약 20만 명의 시민들이 직접 관여하고 있다. 시민참여와 정부 정책이 연결되어야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 한국에도 137개의 태양광협동조합이 등록되어 있다. 현재 시민참여 에너지협동조합은 110개가 넘었고 발전소 개수도 220여 개, 27개가 규모이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척박하고 심지어 배척받는 상황에서도 에너지전환을 위해 모여있는 시민들이 있다.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도 협동조합의 힘에 달려있다.

지속가능성을 향해 확장하는 사회적경제

“이러다가 바다의 절반이 플라스틱으로 뒤덮일 것 같아.”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다. 폐기물 재활용, 업사이클링을 넘어 생산-소비-관리-재생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줄여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점점 자원이 고갈하는 시기에 자원과 생산성을 최대화하려면 그만큼 사람의 노동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는 자원순환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9년 출범한 사회적협동조합 ‘한강’은 강 하천의 생태 복원, 강 문화 콘텐츠 발굴, 에코투어를 하고 있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강 가꾸기, 생물다양성 보호, 생태계 조사는 사회적경제에서 확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2017년부터 제주 동백동산을 지키면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선홍곶 사회적협동조합도 주민공동체가 생태관광을 통해 주민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기후재난에 대비해 회복력을 갖춘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도 사회적경제가 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 외에도 자원순환과 생물다양성 보호, 기후재난에 함께 대응하는 학습과 훈련까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 이미 우리 옆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지구의 생태적 한계는 넘지 않으면서도 인간다운 삶을 함께 살 수 있는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우리가 어떤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며 살아갈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부록

2019 서울 사회적경제 주간 기념행사
일상에서 만나는 사회적경제

환영합니다.
이곳은 사회적경제 레마파크
메코랜드입니다.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15일(토), 11시~19시 30분
장소 대우로점점점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경제진흥원, 서울특별시경제재단

화합의 시간

2020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동구매
상담회

5.07.(화)~13.(수)
10:00 ~ 17:00

023 사부작 뉴 리더십 워크

한다리
종개소
문어는날

한다리
종개소
문어는날

소셜패션쇼

성수, 현장에 패션된다

입선 동상

입선 동상

입선 동상

입선 동상

입선 동상

입선 동상

입선 동상

입선 동상

입선 동상

입선 동상

입선 동상

입선 동상

입선 동상

입선 동상

입선 동상

협력 기관

가온	구로사회적경제사회적협동조합
가치혼합경영연구소	구르미(주)
갈곡리가족	국악나루협동조합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굿바이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굿앤컴퍼니
강동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래픽오션
강동도시농부	그린주의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극단 날으는 자동차
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	글로와이드
강북자원순환네트워크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금천구사회적경제지역특화사업단
강서구사회적경제협의회	기업과사회경영연구소(주)
거마도	꽃가람누리마을협동조합
건강한농부 사회적협동조합	나눔과미래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나래주거재생협동조합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적경제전문인력양성사업단	나무를 심는 사람들
경의선숲길 마을정원사회	나무와열매 사회적협동조합
계원예술대학교	나비프로젝트
고독스테이	너답뉴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네오누리콤
공간크크	노나논다
공감만세	노란들판
공공공간	노무법인 동인
공공네트워크(OO은대학)	노무법인 의연
공기핸드크래프트	노무법인 지산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무점	노원사회적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공영그래픽스튜디오	녹색친구들
공익회계사네트워크 많은	놀자엔터테인먼트 협동조합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뉴그라운드
관악사회적경제협의회	늘장협의회
관악정다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니콜앤컴퍼니
광주광역시협동조합지원센터	다사리협동조합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다솔교육문화예술협동조합
광주NGO 시민재단사회적경제센터	다숨도시락
광진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다숨이재단
광진담쟁이협동조합	다숲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광진아이누리애사회적협동조합	대안프랜차이즈협동조합연합회
관창야오협동조합	대지를위한바느질
교육협동조합 온지곤지	더 셰프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더디앤씨

더브릿지
더블베어스
더사랑
더이음 컬처허그
더커먼즈
데이터목수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봉구사회적기업협회
도스토리연구소
도시마을기업연구소
도시마을협동조합
도트 앤 포인트
돌봄플러스사회적협동조합
동네목수
동네발전소협동조합
동네정미소
(주)동대문마을기업
동대문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대문구사회적경제협의회
동락사회적협동조합
동스토리
동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동작구협동경제지원단
두꺼비하우스
두드협동조합
두리하나다울
두리함께
듣는연구소
디벨롭어스(주)
디앤아이사회적협동조합
디어라운드(주)
디자인 두
디자인교육개발원
디지털구로사회적경제특화사업단
디크리에이티브
딜리버리랩
딴짓
라온사회적협동조합
라온제나협동조합
랩2050
레드컴뮤니케이션
레이블소셜
로드스콜라

로컬디자인무브먼트
롯데쇼핑(주)
리드릭
리베라빗
리서치앤리서치
리얼인사이트컨설팅(주)

(사)마을
마을과 사람
마을닷살림협동조합
마을무지개
마을에서크는아이들협동조합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만유인력
말하는사람들
맘이랜서
먹스킹
메타브랜딩
모두를위한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모미코
모자란협동조합
모티브하우스
모해교육협동조합
목화송이협동조합
무궁무진스튜디오
문턱없는세상협동조합
문화예술오픈스쿨
문화예술협동조합 결애
문화예술협동조합 아이야
문화유통협동조합
물고
미디어콘텐츠창작자협동조합
미디어협동조합와보송
미션잇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민들레워커협동조합

바늘한땀협동조합
바른참
박피디와황배우
반달컴퍼니
방물단
방앗간컴퍼니
배려댄와플협동조합
(주)백의민족
밴드오브노들
번역협동조합
법률사무소 와이앤로
법무법인 더함

법무법인 동천
베네핏
(주)베지노믹스비건페스타
벤츨스페이스
버리커뮤니케이션
복지유니온
불런컬처
부스터씨
북서울신용협동조합
북촌공예마을협동조합
불이마을협동조합
브이노마드
비소사이어티(주)
비영리IT지원센터
비타민컴
비폭력평화물결마음의씨앗
빅이슈코리아

사계절공정여행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점프
사람마중
사랑의자전거
사이드캣
사회비행자
사회연대은행 함께만드는세상
사회적기업지원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관악
사회적협동조합 금천사회경제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너머
사회적협동조합 동사경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동작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사회적협동조합 새바람
사회적협동조합 서로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인사랑케어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페
사회적협동조합 지파운데이션
사회적협동조합 파인트리
사회적협동조합 평화물결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사회적협동조합 함께강동
사회적회계튜터 이든
사회주택협회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혁신공간 데어

살림경제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삶의출판협동조합
삶터사회적협동조합
삼각산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삼화회계법인
상상우리
상생발전연구소(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주)생생농업유통
사인임팩트
샵플
서감도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서대문구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서대문청년창업센터
서린회계법인
서울대학교
서울디지털사회혁신추진위원회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 강북지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소셜벤처허브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서울시민시장협의회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서울시학교협동조합추진단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연구원
서울자활기업협회
서울지역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협의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청년대학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특별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서울학교협동조합협의회
서초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초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마산좋은날협동조합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성북구사회적기업협의회
성북어린이돌봄협동조합
성북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세계무역문화원협동조합
세논컴퍼니
세븐포인트윈
세상에없는세상
세아회계법인
세진플러스
소셜메이트숨협동조합
소셜벤처파트너스서울
소이폴리협동조합
솔미상생협동조합
솔트카페
(주)송지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송파사회적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수상한협동조합
쉐어러스
쉬모스랩
슈필렌
스마일팩트
스컹크웍스스튜디오
스타일공유
스토리메이커
스튜디오490협동조합
스페이스함께
스프레드아이(Spreadi Community Interest Company)
슬로워크
사월이앤씨
신나는조합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
11번가(주)
씨닷
씨스톤컨설팅(주)
씨앤드
씨즈
C.I.T.E.S.
○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커피
아리알찬협동조합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주)아시아허브
아이부키
아이쿱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임우드
아트임팩트
아하!열린교육센터
안테나
앙코르브라보노 협동조합
약수동공가협동조합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
양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어니스트밀(주)
어반비즈서울
언니네트발 여성농인 협동조합
언더독스
업드림코리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덴스푸드
에듀통협동조합
SW복지재단
SH서울주택도시공사
에스엠협동조합
SE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SW복지재단
AUD사회적협동조합
HB외식창업센터
HBM사회적협동조합
에피투스컨설팅
에픽로그협동조합
Ant's production
엠에프씨컨설팅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여민복지협동조합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영등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영화제작소노
예술미디어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옛고를협동조합
오가니제이션요리
오디오가이(주)
오마이컴퍼니
50플러스미래설계 사회적협동조합
오엠인터랙티브
오요리아시아
오티비컴퍼티
오피스메카(주)
운동네협동조합
온앤미
와디즈(주)
YMCA 서울아가야

와우책문화예술센터
용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우리마음미디어협동조합
우리아이친환경(주)
우리홈쇼핑 (롯데홈쇼핑)
월간자차와협동
월메이드
웹와치(주)
웹케시(주)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주)위베이비
위시루프컴퍼니
위코노미(주)
위국
유쓰망고
윤슬케어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은평돌봄이동지원단
은평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그린
이노소셜랩
이대웨딩협회
이로운넷
이에스에이치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이피쿱협동조합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스케어코어
인트윈
119레오(주)
일상예술창작센터
일촌나눔하우징
일하는사람들의협동조합연합회
임팩트스퀘어
잇마플
✕ 자락당
자리(주)
자연미약선연구원
작은몬드라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재단법인 밴드
재인컨설팅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적정마케팅연구소
전국주거복지협동조합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종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종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
중국제일시장아리청정협동조합
중구마방협동조합
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지구마을사회적협동조합
지속가능한관광 사회적기업네트워크
GSEF사무국
지혜의밭
ㅈ 착한엄마
착한여행
참손길공동체협동조합
청년일자리허브
청년자립지원센터 브리지사회적협동조합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청년협동조합 몽땅
청년협동조합연합회
청소대안기업협의회
청춘창업 창창
청출어람
추억을 파는 극장
칠리펀트
ㅋ 카페티모르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협동조합
커뮤니케이션 우디
커뮤니티맵핑센터
커피큐브
컬처멘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케이앤아츠
케이오에이
코아드
쿠팡(주)
쿠팡실리테이션그룹
쿠피협동조합
쿵비즈협동조합
쿵스프랜차이즈
크린서비스청
큰손부라더
ㅊ 타이드인스티튜트
터치포굿
테스트웍스
투파더
트래블러스맵
트립티
티알큐
티앤비경영연구원협동조합

티팟(주)
ㅍ 파란동그라미 사회적협동조합
(주)팝업놀이터
패셔널로지 협동조합
패션봉제아카데미
(주)파센트
퍼블릭그라운드
퍼플레이어컴퍼니
펀디쿱협동조합
페어스페이스
(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
풍낭
프래그랩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플레이플래닛
필덤
ㅎ 하나세무회계컨설팅
(사)하늘에
하이사이클
하도콘텐츠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감마센터
한국갭이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공정무역협의회
한국공항공사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사회서비스연구원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사회투자
한국사회혁신금융(주)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한국아이티연합협동조합
한국업사이클 디자인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서울권역
한국윤리적패션네트워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합회
한국임팩트투자진흥원
한국자원순환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
한국정리수납협동조합

한국주거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VMD협동조합
한누리
한담테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살림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신플러스케어
한양종합방재(주)
함께결음의생협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함께일하는세상(주)
함께일하는재단
함께주택협동조합
함께하는행복한돌봄
햇팩컴퍼니
해피브릿지협동조합
행복나래(주)
행복도시락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동행쿱협동조합
행복ICT
헬스브릿지
협동조합 노느매기
협동조합 롤링다이스
협동조합 리콧
협동조합 성북신나
협동조합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협동조합 은평청년정책연구소
협동조합 이노밸류
협동조합 이장
협동조합 잼터
협동조합 좋은이웃
협동조합 푸마시
협동조합가치공유연구소
협동조합교육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협동플랫폼카페이웃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희기희
흐르는강물처럼
희망나눔세상
히든엔코

구분	기관명	주소	연락처
종로구	종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3길 12	02-739-7008
중구	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97 2층	070-8670-0039
용산구	용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 46, 한남아이파크 B106	02-318-5200
성동구	성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성동구 독성로1길 2, 8층	02-2291-2323
광진구	광진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70, 3층	02-461-9390
동대문구	동대문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38길 19 창업지원센터 A동 2층	02-969-9936
중랑구	중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4길 29	02-433-0795/0789
성북구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5길 29	02-927-9501
강북구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47길 5, 3층	02-994-8283
도봉구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279-5	02-6952-6954
노원구	노원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02-933-7150
은평구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3층	02-355-7913
마포구	마포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2층	02-303-5284
양천구	양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75 1층	02-2643-1556
강서구	강서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	02-2666-9845/9846
구로구	구로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38 오류문화센터 4층	02-3666-9845
금천구	금천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8길 23 금천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3층 302호	070-4432-3792
영등포구	영등포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내 우리은행 2층	070-5029-4693/4969
동작구	동작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5 1층	02-820-9003, 9008
관악구	관악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151-1, 3층	02-6713-7500
서초구	서초구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9길 10 에피소드 서초 393 1층	02-6253-8868
강남구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20 8층	02-6956-2021
송파구	송파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246	02-2043-1421
강동구	강동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08	02-482-1367

기록하면 역사가 된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오단이 공동대표

백서가 멀리 보는 망원경이 되고
다시 모일 좌표가 되기
기원합니다.

신나는조합 **문성환** 상임이사

지난 10년의 기록이
앞으로 10년을 밝게 비추는
거울로 쓰이길 바랍니다.

서울연구원 **이준영** 연구위원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커다란 발자국이 더 큰 울림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길...

한양사이버대학교 구혜영 교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0주년 백서
서울 사회적경제 연결의 기록

발행일 2023년 11월 30일
발행인 조주연

발행처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 23길 10, 5층
전화 02-353-3553
팩스 02-383-3553
이메일 info@sehub.net
홈페이지 www.sehub.net

기획·진행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식플랫폼실
편집 씨앤드
디자인 원스프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으며 이 책의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EOUL SOCIAL ECONOMY CENTER

